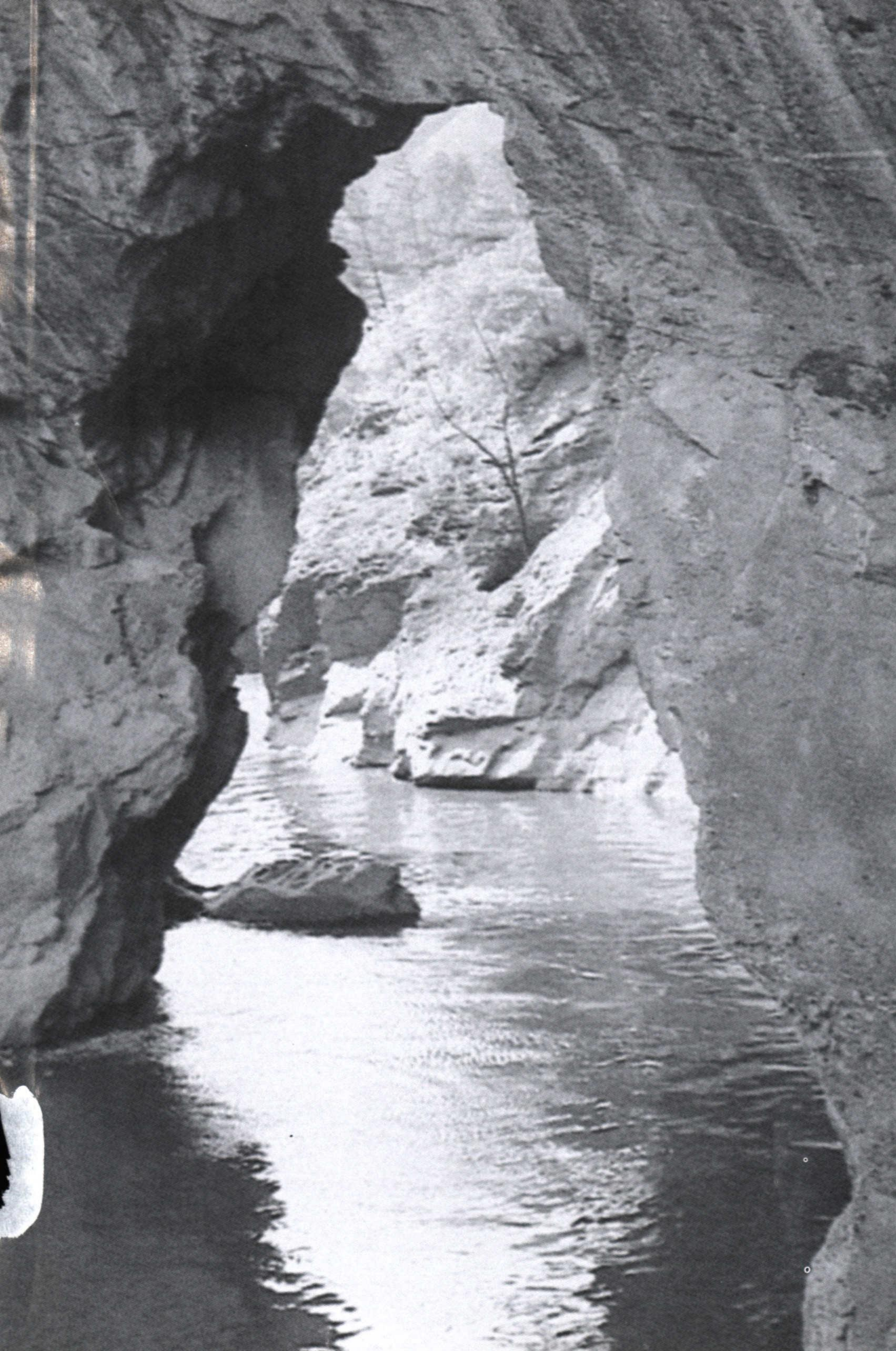


太白文化

第十二輯



太白文化院



무지개 뜨는 겨울 태백산

1

아침 햇살은
안개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놓는다.
눈꽃 핀 나뭇가지의 긴장은 어느새 늦추어지고

땅에서 나뭇가지로
나뭇가지에서 하늘로
경쾌한 음(音)의 층계를 밟는
빛의 요정

눈이 내린다
쓰러져서 더욱 아름다운
겨울 들판
눈비 내리면 그 눈비 다 맞고
폭풍 몰아치면 그 폭풍 다 맞던,
슬픔의 밑바닥에는
남모를 아름다움이 차 오르고

선연한 핏자국 찍으며 산맥을 넘어가는
겨울 무지개의 휘파람 소리
눈 덮인 태백산을 달린다.



시인 정 연 수

2

삶의 뒤편길
터진 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겨울빛
그 강철같은,
상처는 햇살을 받아 전설처럼 아물어 가고

얼어선 안된다, 애야 결코 얼어선 안된다.
한겨울에도 더운 김이 솟는
아버지의 가슴
태백산의 정기

두드릴수록 단단한 쇠덩이
보습날 푸른 눈썹을 한 아버지의 땅은
슬픔을 지우며 겨울 하늘을 연다.
뻗을수록 강인하게 성장하는
눈 그리고 태백의 겨울

눈 덮인 태백산에 무지개가 뜬다.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대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서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제12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이성천 선생님 초청 강연회



'98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태백문화학교 수료생들 작품전시회(황지연못)



제 2 회 한강대제광경(검룡소)



98년 제2기 문화학교 입교식



연극인 최종원씨 초청강연회(문화원 강당)



문화유적지 순례(경주)



극작가 신봉승씨 초청 강연회



당골 숲대복원 광경

太白文化

第十二輯

■ 권 두 시	4
■ 문예중흥선언	6
■ 98년 문화원 화보	7
■ 차 례	12
■ 발간사	우성조 16
■ 무인년 문화소식	18
■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분야별 활성화 방안	채용식 37
■ 태백을 찬미하는 노래 대중가요를 통한 이미지 찾기 제안	이명진 47
■ 본적 사지 답사기	배일환 63
■ 아! 민족의 영산 태백	장성유 120
■ 축사(祝辭) 해제(解題)	김강산 130
■ 호랑이 생각	김강산 158
■ 제13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 중 등 부	
시조 장원 / 잡초	김재청 163
차상 / 땅	김정희 164
차하 / 풀 한 포기	김정은 165
차하 / 풀	홍은희 166
산문 장원 / 풀	민경미 167

	차상 / 땅	박고운	169
	차하 / 내마음 속에서 자라는 질경이	반문진	171
시	장원 / 풀잎	동방선영	173
	차상 / 자유공간	이수진	174
	차하 / 땅	유제리	175
	하차 / 풍류	오지은	176

◆ **고 등 부**

시조	장원 / 풀꽃 반지	김현주	177
	차상 / 풀	김남희	178
	차하 / 달빛 타고 오는 바람	김기옥	179
	차하 / 소꿉놀이	박원경	180

산문	장원 /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땅	최다경	181
	차상 / 아버지의 땅	김정숙	184
	차하 / 잡초를 보며	이예나	186
	차하 / 풀잎과 소녀	명현주	188

시	장원 / 바다와 바람	박효정	191
	차상 / 바람이여	윤순희	193
	차하 / 풀밭에서 서서	황윤진	197

■ 태백문화원 연혁	198
-------------------------	-----

■ 98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199
--------------------------------	-----

■ 태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단	202
--------------------------------	-----



太白文化

第十二輯

太白文化院

우리문화를 소중히 여기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전세계는 각기 자기나라의 문화로 세계를 이끌려 할 것이고 따라서 문화의 충돌 내지는 문명의 충돌이 예견되는 때이다.

세계강대국이 자국 문화 우월 주의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국 문화의 잣대로 세계를 재단하려 하는 시대이다.

힘있는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를 잠식하여 종내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이다. 이제는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가고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 문화는 어떤가, 과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 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문화를 갖고 다듬어 가꾸고 발전시켜 나



태백문화원장 우성조

갈 때 다 문화시대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나름대로의 역량있는 문화가 될 것이다.

하찮은 문화라도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증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맹목적 무비판적 외래문화의 수용을 경계한다면, 우리문화는 살아나 우리들을 살찌우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니 그것이 곧 우리문화의 세계화로 가는 길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우습게 여기고 천대하는 풍조가 만연할 때 우리 문화는 세계사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 창조적 문화만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며 문화만이 살길이요 관건이다.

▣ 지역명소 발자취 담은 달력 발간

동사무소가 지역의 명소와 주민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활동사진을 활용한 달력을 제작해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이 달력은 탁상용 7백50부로 가로 18.5cm, 세로 12cm 크기의 총 15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진은 지난 한해동안 주민과 동사무소의 활동장면과 문곡동 관내 주요 명소 사진을 삽입시켜 제작됐다.

▣ 제5회 태백산눈축제 열려

한겨울 꿈의 축제인 제5회 태백산 눈축제가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동안 설원의 도시 태백에서 개최됐다.

1월 19일 중앙로에서 있었던 전야제에선 공군전투기들의 축하비행,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1월 21 ~ 22일에는 황지초등학교에서 설상 축구대회, 1월 22일 ~ 24일에는 천주교성당에서 연극 「돼지와 오토바이」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축제 마지막날인 1월 25일에는 태백산일대에서 등반대회와 눈썰매대회, 가족눈사람 만들기대회, 제기차기대회 등이 열렸다.

이번 축제때는 지난해보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져 축제참가자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 청소년 무료 교양강좌 열려

태백시는 방학기간중 중앙볼링장과 청소년수련실 태백문화원 등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볼링과 수공예, 동판, 염색, 한지공예, 소품만들기 등 교양강좌를 무료로 운영했다.

▣ 태백시민 향토 장학생 선발

태백시는 98년도 태백시민 향토장학생을 선발했다.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장학생선발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자녀의 중·고·대학생 35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 '한밤' 출판 기념회 열려

문인협회 태백시 지부는 2월 3일 오후 6시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지인 「한밤」 제5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2백 20쪽 분량으로 1천부가 출판된 제5집엔 수필 9편 등 지부회원 20여명 등 70여편이 실렸다.

▣ 태백산 오궁썰매대회 개최

태백산 눈축제와 함께 태백시를 대표하는 겨울축제가 될 제1회 태백산 오궁썰매대회가 2월 22일 오전 10시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오궁썰매로 관광이벤트 상품을 개발한 태백시는 태백문화원과 생활체육협회의 지원을 얻어 천연 썰매장인 태

백산 등산로에서 오궁썰매 겨울활주대회의 사진 콘테스트 등의 축제가 열렸다.

■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

탄광촌 청소년 교육 환경개선위원회는 2월 26일 오후7시30분 태백시 황지동 태백석탄회관 3층 문화관에서 탄광촌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 추계예술대생이 나와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 수준 높은 고전음악을 선사했다.

■ 98년 제1기 문화학교 운영

문화관광부 지정 태백문화학교(학교장 우성조)에서는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3개월간 교육에 들어갔다. 칠보공예교실, 국악교실, 고전무용교실, 종이접기교실, 도자기교실, 한문교실, 가요교실, 통기타교실 등 8개반 강좌를 1개반당 30명씩 모집해 4월초에서 7월초까지 무료로 운영하였다.

■ 국제 모터로스 선수권대회 개최

모터사이클경주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는 태백시에서 5월 10일 모터사이클대회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 동점동 임시경기장에서 열렸던 이번 대회는 한국, 중국, 태국 일본선수 2백여명이 출전, 열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통자이 왕자왕아시아 모터 사이클협회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회를 빛냈다.

▣ 태백 산업전사 위령탑 정비

순직 광원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태백시 황지1동 산업전사위령탑이 정비되었다. 총 1억5백만원을 들여 위패안치소와 비문 관리동을 정비, 보도블럭 4백60㎡와 경계석 5백m, 계단 대리석 1백74㎡를 교체했다.

▣ 태백 심원암 불상 지방문화재 지정신청

태백시는 5월 11일 소도동 심원암 불상을 지방문화재로, 장성동 삼엽충 화석군락지와 금천동 방앗 소나무, 혈동 사내골 소나무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에 신청했다.

심원암 불상은 신라시대때의 희귀 토불이고 화석군락지는 고생대 때 지층의 신비를 엿보게 해주는 명소이며 소나무 2그루는 노거수로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북한동포 돕기 음악회 열려

선명회 동해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3일 오후3시 태백KBS홀에서 시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헨델의 '주님께 감사하라' 멘델스존의 '네 마음의 진심이 있다면' 등 외국곡과 현재명 곡 '산들바람' 김동진 곡 오페라 심청이중 '임당수의 뱃노래'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중 '그대의 찬송' 등 일반의 사랑을 받는 아리아를 연주했다.

▣ 맥향동인회 백일장·사생대회 열려

맥향동인회가 주최하는 제27회 어린이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5월 27일 오전10시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할 태백 시내 초등학교 6백여명은 저·중·고 학
년부별로 동시와 산문그리기 분야의 실력을 겨뤘다.

■ 제13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개최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3회 태백시 남·녀백일장이 5월 27일 구
문소에서 열렸다. 시 관내 중·고등학교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렸던 이 대회는 시부문, 시조부문, 산문부문으로 나누어 중·고등부
각각 시상했다.

- 중등부- 시부문(장원) 황지여중 2학년 동방선영
 시조부문(장원) 장성여중 3학년 김재청
 산문부문(장원) 장성여중 2학년 민경이
- 고등부- 시부문(장원) 장성여고 3학년 박효정
 시조부문(장원) 황지여상 3학년 김현주
 산문부문(장원) 장성여고 최다경

■ 한강발원지 검룡소 새단장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가 새롭게 단장돼 황지연못과 쌍벽을 이루며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태백시는 태백산맥 금대봉에서 석회암반을 뚫고 솟아올라 20여m의
폭포를 이루며 장관을 이루는 검룡소에 주차시설을 비롯해 대형그늘
막 벤치 등이 새롭게 단장돼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길이 7m, 폭 2m, 무게 20t의 국내 최대 표지석을 설치해
검룡소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도록 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등 새로
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 석탄박물관 건립誌 발간

태백석탄박물관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태백석탄박물관誌가 5월 30일 발간됐다.

태백시가 태백석탄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태백석탄박물관 건립지는 4.6배판 크기에 1백30쪽 분량으로 국내 박물관과 유관기관·단체 자료 또는 시설물 기증자 등에게 총1천부가 배부되었다. 이 책에는 태백의 석탄개발사, 태백석탄박물관 건립과 전시물내역 자료, 시설물 기증자 명단 등을 수록했다.

▣ 태백중학생 한국전 참전기 발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태백중학교 학생 1백27명의 무용담과 제대 이후의 생활상을 수록한 「학도병들의 잃어버린 세월」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호국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의 아픔과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하고 있는 이책은 태백중·고교총동문회와 재경동문회가 애국혼을 일깨우기 위해 펴낸 참전 회고록으로 「산화한 영령들을 물어둔채」 「참전 학도병들의 전투체험기」 「자료편」 등 모두 3장으로 꾸며져 있다.

한편 태백중학교에서는 이들 학생 용사들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해 충령비 충혼탑 학도병기념관 등을 세웠으며 교육자료집 「충혼」을 발간하고 있다.

▣도민체전 성화 채화

제33회 강원도민체전 성화채화가 홍순일태백시장, 주수복태백교육장, 심영섭성화채화단장을 비롯해 황지여상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9일 오후 2시 태백산 천제단에서 있었다.

■ 제13회 태백산 철쭉제 개최

고산축제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제13회 태백산 철쭉제가 6월13일~14일 이틀간 태백산 도립공원내 당골 광장 등지에서 펼쳐졌다.

6월 13일 오후 1시에 당골광장에서 풍물놀이 캠프파이어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등이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6월 14일에는 당골광장에서 출발하는 태백산 등반대회가 열렸고 오후 5시에는 시민 노래자랑대회가 열려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축제기간중 황지연못에서는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돼 태백산등지에 보존돼 있는 청정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 건전가요 가곡 경연대회열려

태백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청소년 건전가요 가곡경연대회가 6월20일 오후1시30분 KBS태백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태백 시내 12개 중·고교에서 25개팀이 출전, 건전가요와 가곡을 열창하며 관동대학교 그룹사운드인 「헝슬라」가 특별출연했다.

■ 태백 아르페지오 제7회 정기연주회 열려

태백 클래식기타 동우회인 「아르페지오」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오후7시 황지라이온스회관에서 청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원들은 이날 연주회에 「투우사의 노래」 「집시의 노래」 등 카르

멘 모음곡과 「아베마리아」 「카니발의 아침」 등 명곡을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지난 92년 창단된 「아르페지오」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멜로스 고전 기타 합주단」을 4회 초청, 협주를 했다.

▣ 이성천선생 초청 강연회 열려

국립국악원 원장을 지낸 이성천선생 초청강연회가 6월 26일 오후 6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주민과 문화학교 수강생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채리티체임버 앙상블 초청음악회 열려

채리티체임버 앙상블을 초청,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6월 26일 태백중앙병원 석탄회관 등에서 열렸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이번 사랑의 음악회에는 경희대 정준수교수, 서울대 김현곤교수를 비롯한 중견연주자들이 참석, 하이든의 트리오 3번 등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선보였다. 채리티체임버 앙상블은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95년에 창단, 탄광촌과 병원 오지 등을 순회하며 공연을 가졌다.

▣ 시민화합걷기대회 열려

태백시는 제2기 민선자치 출범을 축하하고 제4회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 대화합 걷기대회가 7월 5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태백시가 주최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황지지역주민들은 상장중학교에서 장성지역은 장성여고에서 각각 출발, 중간지점인 종합경기장에서 만나 화합의 장을 이뤘다.

▣ 태백고원훈련장 개촌

태능선수촌에 이어 태백 고원 전지훈련장이 6월 30일 개장되어 엘리트스포츠의 새지평을 열었다.

태백고원 전지훈련장은 6월 30일 오후 1시 태백시 소도동 함백산 현장에서 김운용대한체육회회장을 비롯 신현웅문화관광부 차관 이대원대한육상연맹회장과 체육관계자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훈련장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97년부터 28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태백고원 전지훈련장에는 4백m 트랙과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 98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1998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이 7월13일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3개월과정으로 가요교실, 국악교실, 도자기교실, 칠보공예교실, 한문교실, 고전무용교실, 종이접기교실, 통기타교실 등 총 8개 강좌를 실시한 문화학교는 160여명이 수료했다.

▣ 하반기 교육수강생 모집

태백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과정의 하반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했다.

모집대상 인원은 취미교육반 2백50명, 부업장려반 90명, 외국어회화반 58명 자동차안전교실반 25명, 하계컴퓨터기초강좌반 27명등 총 4백 50명이다.

▣ 98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 열려

태백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황지연못에서 열렸다.

이번전시회에는 칠보공예 50점, 종이접기 40점, 도자기 40점 등 태백문화학교 수료생 작품 130여점이 전시되었고 통기타교실, 수료생들의 공연도 있었다.

▣ 전통무예 문화학교 개설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 태백지회와 청소년 문예기획단의 청소년 전통무예문화학교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태백산 도립공원과 어평 야영장 등을 순회하며 열린 청소년 전통무예 문화학교에서는 태견과 우리놀이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청소년 전통무예 문화학교는 선착순으로 중·고교생 2백명을 모집하였다.

▣ 태백미술작가회 제2회 '자리전' 열려

태백미술작가회(회장: 이한호) 회원들의 제2회 「자리전」이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태백 황지연못 앞에 위치한 카페 「샘」에서 열렸다. 이용규씨의 「푸른창」, 장정근씨의 「팔려가는 소」외 9명의 수채화, 유화, 조각작품 30여점을 선보였던 이번 전시회는 태백산의

황지연못 등 태백지역의 풍경화를 비롯하여 인문, 정물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였다.

■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열려

제5회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7월 18일, 19일 이틀간 황지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4인 등록 3인조 경기로 벌어진 이번대회는 중등부 54개팀 2백16명, 고등부 46개팀 1백84명 등 1백개팀 4백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 탄전문학 제7집 '광부일기' 발간

탄광촌의 애환을 소재로 한 문학집인 탄전문화 연구소(소장 정연수)의 탄전문학 제7집 「광부일기」가 7월 17일 발간됐다.

국판 1백12쪽 분량으로 2천부가 발간된 「광부일기」는 전국 각처에서 활동중인 시인 15명의 최근작 46편이 실려있다.

기고시인은 태백의 정연수, 최승학, 삼척의 박종화, 최홍걸, 김진광, 김태수, 박유정, 서울의 김이하, 이인평, 정선의 구영주씨 등이다. 이들 시인들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잊혀져 가는 산업현장이 된 탄광촌 주민들의 치열하고도 정직한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애썼다.

탄전문화연구소는 7월21일 오후 8시 카페 「플래닛」에서 기고시인 등을 초청 「광부일기」출판기념회를 열었다.

■ 청소년복지회관 교육생 입교

태백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교육생 입교식이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회관내 대강당에서 교육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배드민턴 주부교실 열려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황지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주부교실을 열고 그림잡는법과 서브 자세 등 기본기 교육을 했다.

▣ 함박꽃 6집 발간

태백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부 문인단체인 함박꽃 어머니 독서회가 7월 22일 동인지 함박꽃 제6집을 발간했다.

함박꽃 제6집에는 김영희회장 등 동인 25명의 시와 수필 등 작품 36점이 수록돼 있다.

▣ 제2회 한강대제 열려

제2회 한강대제가 8월 2일 오전 11시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에서 태백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시작으로 펼쳐진 제2회 한강대제는 검룡소에서 흘러 내린 물로 머리를 감고 발을 씻는 세발과 탁족놀이, 구슬모양의 유두면 먹기놀이 등 유두날에 얹힌 민속놀이와 검룡소물 많이 먹기, 빨리먹기대회 등이 진행됐다.

한강 5백14km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는 하루 1만여t의 지하수가 솟아나오고 천연림이 울창하며 강원도 유일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말나리, 꼬리치레 등 태고의 생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 태백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설치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공도계광업소의 케이블카형 석탄수송 장비인 가공삭도가 8월 11일부터 태백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전시됐다.

태백시가 지난 4월부터 1억9천여만원을 들여 이전한 가공삭도는 운반함 2점과 지주탑 2기등을 갖춰 1백28m 구간에 설치되었다.

총무계가 4백70t 이나 되는 초대형 전시물인 가공삭도는 지난 40년부터 석공도계광업소 흥전갱~도계역 저탄장간을 운행하며 1시간당 석탄 50t 가량씩을 수송했었으나 채탄량이 줄어들자 1991년 운행을 중단, 현장에 방치돼오다 1998년에 태백석탄박물관에 기증됐다.

▣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산상축전 열려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산상축전이 8월 15일 오전11시 태백산 천제단에서 산익인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산천제위원회의 제례집의로 열렸다.

북한산, 지리산, 속리산 등지에서도 동시에 개최된 이날 산상축전 참가자들은 안개비가 자욱히 내리는 악천후속에서도 천제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을 소망했다.

한편 태백마당 회원 30여명은 이날 천제가 열리기전 흥겨운 사물놀이를 펼치며 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장승박이 축제 열려

장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의 제8회 장승박이 축제가 8월 26일 오전 9시 교정에서 재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축제에선 종이학 전시회와 벼룩시장 개장 민속체육대회, 시낭송회, 연극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환경사진 입상작 전시회 개최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8월 22일과 23일 이틀간 황지연못 공원에서 열렸다.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개최됐던 이번 전시회는 올해 환경사진 공모입상작 1백 30점이 전시되었다.

▣ 태백산 쿨시네마 축제 열려

태백산 특유의 서늘한밤에 흥미진진한 영화를 즐길수 있는 제2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 태백산 당골광장에서 열렸다.

「여름 탈출 시원한 영화여행」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의 1인당 관람료는 어른 2천원, 초중고생 1천원이었다.

상영된 대표적 영화는 성룡의 CIA, 8월의 크리스마스, 조용한 가족 등 이다.

▣ '98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입교

문화관광부지정 태백문화학교(학교장:우성조)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9월 7일 오전 11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입교식을 하고, 3개월간 교육에 들어갔다.

칠보공예, 고전무용, 종이접기, 국악, 가요, 통기타, 한문, 도자

기교실외에 신설된 사진교실 총9개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무료로 운영했다.

▣ 주부들 사진전 열려

여성사진 동우회 「터」(회장:현옥춘)는 8월 18일~20일까지 3일간 황지연못에서 여덟번째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 태백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올려

순직 광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98순직산업전사 위령제가 10월 1일 오전 10시 태백시 황지동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에서 열렸다.

이날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에는 유가족 2백70여명을 비롯 국회의원과 산업자원 부장관, 도지사 및 도의원과 인근 5개 시군 시장 군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17회 태백제 열려

향토문화축제인 제17회 태백제가 10월 3일 천제와 단군제 행사를 시작으로 한밤백일장과 사진전시회 등 문예행사가 10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 태백산 천제 올리다

단기4331년 10월 3일 (개천절) 오전 11시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제가 진행됐다.

태백산 상상봉 천제단에서 거행된 천제는 태백산천제위원회(위원

장:김강산)에서 주최하여 범민족적인 제사로서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미래 영원한 인류의 평화를 구하고자 올려지고 있다.

이날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가운데 영신굿 강신 진설 참신 주유 헌작 고천 송신 소지 순으로 의식이 행해졌다.

배달민족이면 종파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이 태백산 천제는 한민족은 하나임을 고하는 제사인만큼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태백예술제 열려

제11회 태백예술제가 10월 9일~11일 황지연못과 시청광장등지에서 개최되었다.

10월 9일 오전 9시 황지 연못에서 연합 사진전과 태백미술작가회 미술전, 태백서예동우회 서예전이 열려 사진과 미술작품등 1백 10점이 전시되었다.

또한, 수도권 설치미술가 단체인 「마감뉴스」는 10월 11일부터 1개월간 구함태광업소 폐광지에서 탄광촌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을 국내 최초로 개최하였다.

▣ 연극배우 최종원씨 특강 열려

KBS사극 「왕과비」에서 한명회역으로 열연중인 태백출신의 연극배우 최종원씨가 10월 17일 오후 2시 태백문화원에서 특강을 하였다.

태백문화원 초청으로 열렸던 이날 강연회에서 최씨는 「예술과 인생」을 주제로 지난 70년 상경후 겪었던 애환등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다.

▣ 태성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작품전 열려

태성대학 산업디자인과 제3회 졸업작품전이 10월 23일 오후 2시 대학내 D동 강의실 4층에서 제품과 시각 가구등 각 분야 작품 40점이 출품된 가운데 열렸다.

▣ 태백시여성회관 교육생 작품전시회 열려

태백시여성회관 교육생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 회관내 강당에서 교육생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작품전시회에서는 홈패션과 양재서예 지점토 수공예 등 1백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 극작가 신봉승 초청강연회 열려

극작가 신봉승선생 초청강연회가 10월 28일 오후 4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주민과 문화학교 수강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18회 무후제 올려

제18회 무후제가 10월 28일 오전 11시 삼수동 심원사에서 주민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후손도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 어린이 영화감상실 운영

어린이 영화감상실이 11월 1일 오후 2시 태백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래동화 2편이 상영되었다.

▣ 태백노인회 창립 기념식 열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창립 17주년 기념식이 10월 31일 오전 10시30분 태백시 황연동 노인회관에서 기관단체장과 회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태백시 황지연못 청소년 쉼터로 지정되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연극공연과 사진전시회 백일장등 문예행사가 열릴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되었다.

태백시는 11월 7일 오후 1시 황지연못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하고 첫행사로 우리 놀이 마당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열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웅변대회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태백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웅변대회에는 초등부 13명, 중등부 7명등 연사 20명이 출전, 열변을 토했다.

▣ 솟대복원

1998년 11월 7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주최로 태백산도립공원내 솟대를 복원하였다.

▣ 태백문화학교 제2기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열려

1998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12월 7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는 칠보공예, 도자기를 비롯 가요교실 등 총9개 강좌를 실시하여 150명이 수료했다. 또한,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12월 7일 ~ 9일까지 열렸으며, 전시작품으로는 칠보공예 70점, 종이접기 70점, 도자기 40점 등이다.

▣ 한식요리 전시회 열려

김미연 요리학원의 한식기능사반 작품전시회가 12월 30일 오전 10시 태백시노인회관에서 훈련생 50명의 작품 80점이 전시된 가운데 열렸다.

정리 : 이 명 숙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분야별 활성화 방안



채 용 식
(행정학 박사)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실무위원

1. 들어가면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사 표본을 보존·관리·연구·감상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사 표본과 제반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이다.

둘째, 지질·광물·동식물·곤충·고생물 화석 및 인류적 특성을 집대성함은 물론 생태·해양·진화·민속·자연 등에 대한 자료를 분류해서 전시·수장·연구·교육하는 종합적인 문화벨트이다.

셋째, 식물·무척추동물·척추동물·곤충·광물·화석 등을 수집하여 보존·전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환경과의 관계, 생태계 보존 등 현존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고 미래의 과학적이고 탐구자적인 자세를 갖게 해 주는 교육의 장으로서 각각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개념정의를 “자연사 표본과 관련된 일체의 자연현상과 사회구성원인 인간이 살아오면서 축적해 온 각종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총망라한 복합현상”으로써 규정하고자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태백시는 타 지방정부보다는 후발주자였지만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재 유치경합 지방정부인 경남 창녕군이나 경기도 고양시, 양평군과 함께 꾸준한 유치 열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관단체,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선 탓에 이들 자치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조직적인 유치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련의 유치전략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천혜의 자연자원, 국내 유일의 발원지 자원, 특색 있는 산업자원(눈, 철도, 석탄 등), 각종의 군락지, 개국신화와 백두대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태백지역은 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물리적 요소)임은 물론 소프트 웨어(공간 전시요소)에서도 특화요소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타지방정부보다 유치운동에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유치정보나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나. 자연사 박물관 유치는 태백시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유치열의에 대한 확산효과가 미흡하고,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개념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등 각종의 편익에 대한 對주민홍보나 계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 범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립자연사 박물관 태백유치추진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대내·외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유치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미조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와 조직적인 대응능력의 부재 그리고 향후 유치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3. 분야별 활성화 방안

가. 기획·홍보분야

첫째, 태백시의 성장잠재력 또는 장기발전성을 토대로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인문환경 등이 타 경합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보마인드 구축, 토털마케팅 계획수립과 치밀한 기획력을 갖추기 위한 토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추진실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학적·합리적인 방향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단기·중기·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사 박물관 태백 유치가 가능한 청사진 제시와 대안 탐색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지역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지역주민간의 합의를 도출함은 물론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對정부, 관련유관단체 등에 대한 연계홍보전략을 수립하여 태백지역 주민들의 열의를 적극 확산시킬 수 있는 유도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정부 부처 방문, 관계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지방언론매체를 통한 수시 보도 및 각종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태백지역의 입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태백시의 관광기반시설, 도로접근성, 생태보존성, 주변경관, 인문환경, 지방정부 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통일 후 미래에 대한 영역별 평가작업 수행을 수행하여 좋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태백시와 유치위원회는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분야별 유치세부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선진화된 좌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여덟째, 유치실무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조직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물적, 인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 관광분야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태백지역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 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차별화되거나 고유하고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은 물론 친절과 환대정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패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태백시 관광분야와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계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체적 연출과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관광전문가와 자연사 박물관 등에 연구·종사하는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며, 연구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독특한 지방색을 연출하여 타 경합 지방정부와의 비교우위 측면에서 앞설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광분야와 자연사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화 소재를 이용한 소프트 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는 반드시 환경과의 조화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비전의 철학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성급한 미명이나 타 지방정부에 빼앗기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졸속적인 관광개발이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방식으로는 오히려 지역의 황폐화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관광안내 서비스에 대한 프로의식과 관광특산품개발을 통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의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가장 필수적인 과제가 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선전·홍보전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초미의 관건은 그 첫째도 둘째도 선전홍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문화분야

첫째, 태백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대상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는 태백지역의 관광용기가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단군신화와 같은 민족문화의 유산에 그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재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도록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관광매력물으로써 자연사 박물관의 문화적 공간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박물관 이외의 현대적 문화시설(미술관, 문화회관, 극장, 음악관)도 문화관광자원의 범주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확충과 개발을 서둘러 문화자원의 다양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관광자원은 관광의 가치인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및 종교성 등이 존재해야 관광객들에게 이색 경험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자원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의 특성과 주민의 예술적 창조성을 비교, 감상, 비판하는 대상이 되도록 문화적 우수성이 내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 관습, 정서, 종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생활의 총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에게 관광의 경험과 색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출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휴머니즘이 적절히 가미될 때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사 박물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인문환경과의 색다른 조화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규정은 지역문화의 유산으로서 주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을 지닌 자원으로서 광의적으로는 복합적인 인문환경속의 부분집합으로 해석되며, 자연적 자원과 사회·인문자원과의 합리적인 조화가 가능할 때 관련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 동·식물 분야

첫째, 금대봉·매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희귀 동·식물 서식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태백제비꽃, 꿩의 바람꽃 등 주요 식물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책자수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식물종에 대한 군락지(물박달, 신갈, 층층나무 등)개발로 숲 속의 이상향(Forestopia)을 실현하여 숲의 내면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멸종위기에 있거나 우리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보존 대책을 수립하여 풍요로운 자연의 寶庫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지형·지질 분야

첫째, 태백지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형과 지질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의 다양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특화 생태박물관(Eco Museum), 예로서 눈박물관, 종이박물관, 철도박물관, 화석발물관 등을 건립하여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숙박과 체류 및 교육·연수가 복합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직운산층을 중심으로 한 화석 군락지와 구문소는 자연학습장, 대학생 MT방, 교육의 장으로서 또는 향토기행 및 특별관심 관광지로서 매우 선호될 수 있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관리책(예로서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태백지역의 지형과 지질을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천 지질·지형 탐구관을 여러 군데 만들고 현 석탄박물관을 광물박물관과 분리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이색경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 생태 및 환경분야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론에 바탕을 둔 생태관광은 자연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여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을 보전하여 예비자원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자원을 과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생태관광은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태백지역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생

태관광의 개발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을 보호·관리하고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관광은 탐구·관찰·탐방 등을 주요 관광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재형 관광형태로서 체재일수 연장과 1인당 소비액 증대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주민들과의 직접 체험이 가능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태백지역을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태백시 전역을 그린청정지역(Greentopia)으로 개발하고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적극 부합할 수 있는 특화된 생태관광자원과 도입활동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상품 및 문화·전시공간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포리스트토피아(Forestopia : 숲 속의 이상향)를 건설하여 국민자연학습 및 보건 휴양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대덕산, 금대봉, 함백산 및 태백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 양서·파충류, 주목군락지·야생화 군락지·수목군락지·화석 군락지 등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광 받는 생태관광코스가 될 수 있으며, 생태관광은 테마관광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관광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궁극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생태적으로 우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태백지역을 생태모범도시로써 그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생태공원계획이나 환경계획 등에 초장기 생태관광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4. 발전방향

가. 태백의 자연과 인문환경을 전 세계 속에 알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존관리대책과 자연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나. 세계에서 유일한 자연사 박물관으로서 태백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특화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 선진국의 자연사 박물관을 철저히 연구하고, 비교우위전략을 강구함과 함께 첨단기술 활용과 특색 있는 전시수단을 확보하여 새로운 생태박물관의 기틀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라. 태백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고유한 성장잠재력을 발견·전시하여 종합문화관광공간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마.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기능의 다양화와 특이한 주제형 소박물관, 테마형 관광코스 및 입체적인 전시공간 확보를 통한 총체적인 연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바. 태백지역은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원지대로써 지리적,자연적 특성과 함께 문화적인 인문환경도 고유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을 조화시켜 새로운 자연 매력물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 산악지대나 고원지대 또는 오지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태백에 가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Taebak get it)』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형 자연사 박물관으로서 거리활동이 가능한 다채로운 개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아. 미래 관광객들의 소비욕구와 교육욕구를 고려한 연계관광프로그램을 제작·개발하여 태백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원으로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철학이나 이념설정이 명확해야 하며,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예측가능한 숙원사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5. 결 론

우리 지역의 안정적 기틀과 태백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형 산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가장 확실한 지역산업은 무엇인가에는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뜰이나 위축된 우리지역에 자연사 박물관 유치는 태백의 20세기와 21세기를 연결해 주는 소금과 같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타 지방정부를 부러워하거나 지금 시작해서 별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지역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다하고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태백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21세기 낙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小我 病的인 마음은 과감히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는 폐광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른바,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역주민들의 一體感(intity)을 조성시켜 줄 수 있는 촉진제가 됨은 물론 지방화 실현의 성공사례로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歴史的 使命과 숙명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함께 공감해야 할 것이다.

태백을 찬미하는 노래 대중가요를 통한 이미지 찾기 제안



이 명 진

1.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문화혁명 시대, 태백시가 적극적인 세계 무대에 우뚝서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에의 접근성과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문화는 정보화 사회의 생산과 소비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물(物)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즐기는 방법의 선택도 그 중의 하나이다.

태백이라는 도시의 세기말 문화혁명으로 태백의 노래를 만들고 불러 내고장을 찬미하는 메커니즘의 활동영역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창작의 문화마당으로 시민을 불러내는 촉매체를 내고장 노래 만들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민요풍 및 가요풍 서구, 유럽풍의 노래 등 각기 영역이 많지만 우선 누구나 함께 동화되고 흥얼거릴 수 있는 대중가요를 만들어 널리 애창시키므로써 자연스럽게 태백인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 태백 아닌 다른 도시인들은 태백이라는 영혼의 정교를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2. 현황 및 실상

그동안 태백이라는 석탄도시는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국가 기간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며 불철주야 근로의 영역에서 온 정열을 불태워 왔다.

또한 도시의 생성도 자연적 테두리에서 접근해 나오지 못하고 해방후 석탄이라는 지하자원을 캐기 위해 팔도에서 모여든 인위적 촌락으로부터 시작해서 1981년 시 개칭이라는 문턱을 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삶의 질곡을 헤쳐나오다 보니 한(恨)맺힌 사연 또한 오죽 많겠으며 웃지 못할 사연 또한 어찌 넘치지 않으리오! 태백이란 도시의 주변에 깔린 이러한 정서의 모듬이 글로 예술로 노래로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고 흥얼거릴 수 있는 내고장 노래는 만들지 못했다. 어쩌면 1989년 석탄산업의 사양화의 정책 집행이 이러한 곳의 움튼을 잠시 막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내고장 노래를 삶의 흔적과 역사의 패적에 무침하므로서 진정한 태백인의 가슴을 열게 해야 한다.

노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이요, 마음이며, 삶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강원도의 노래 70년 삶 그리고 희망」이라는(KBS춘천총국 '98.2.11)프로그램은 제안자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30여 곡의 강원도의 그 많은 노래 중에서도 이미 국민가요가 된 <소양강 처녀>를 보면 태백이라는 도시도 반세기쯤 후에 제2의 대한민국의 국민가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더 나아가 요즘은 풀, 나무, 꽃도 노래를 한다는 사실이 자연음악이란 제목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CD로 출간된 바 있다. 식물과 자연현상이 내는 파동을 사람이 듣고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화 했으며 자연음악은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그리고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너지를 함께 느끼는 것으로 심신의 치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강원도의 노래는 6.25피난민의 애환을 담은 군세어라 금순아와 함께 속초 청호동 신향민촌의 아픔을 그린 하춘화의 구성진 가락에 담은 1975년 “속초에 심은 사랑”을 비롯하여 “설악산 메아리” 1977년 “달뜨는 경포대”, 1966년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1969년 “춘천댁 사공”, 1969년 “속초아가씨”, “소양강 처녀”, “가리왕산 미나리가락” 등 강원도의 풍토와 자연 삶의 환경을 담은 노래가 많고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다.

또한 각 지방마다 향토적인 노래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며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흥겹게 불리워지고 있다.

내고장을 찬미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보면 187곡으로 시도별 곡명은 아래와 같다.

· 내 고장을 讚美하는 노래

부산직할시

부산찬가

내사랑 부산

부산여성의 노래

부산에 살고파라

부산은 부른다

수영강을 살리자

아세아에 빛나는 부산

오륙도

우리부산 경사났네

우리의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대구직할시

능금꽃 피는 고향
아름다운 대구
능금노래

우리의 수원
수원 처녀
부천애향가
행주대첩가

인천직할시

갈매기 사랑
꽃 섬나루
나라의 관문
내고향 인천
내고향 인천항
눈감으면 들리는 소리
신나는 우리 인천
아름다운 인천
영광의 내고향
월미도 타령
인천에서 살아요
인천의 노래
조용한 나라를 연곳이라네
하얀 등대 반기는 인천항

광주직할시

아름다운 광주천

경기도

고향의 봄

강원도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응원가
개나리 꽃피는 마을
달마중 가세
달 뜨는 경포대
대관령 아리랑
명승 강릉
반공소년 이승복의 노래
뽕 따는 평창 아가씨
사임당의 노래
설악산 메아리
소양강 처녀
속초에 심은 사랑
송지호 연가 새강원 행진곡
아름다운 땅 아리랑 강릉
양양팔경가
췌음 아리랑
율곡의 노래
정선 아리랑
평창 아리랑
한서의 노래
황병산 사냥놀이

충청북도

충북찬가
충북학생의 노래
우리 속리산
내고향 청주
탄금대
무심천
보은대추타령
속리산 오솔길
속리축전의 노래
자연사랑 고운마음
추풍령
진천아가씨
울고넘는 박달재
월악산
짐배노래

충청남도

곰나루
금산인삼의 노래
금산 풍경
꿈구는 백마강
낙화암 노래
논산들에 풍년이 왔네
대전의 찬가
만리포 사랑
백제 찬가
보령 찬가

봉황산
삼다리
충남찬가

전라북도

전주의 찬가
내장산 단풍
남원의 애수
남원의 봄사건
눈물의 오리정
춘향의 절개
그네줄 상처
무주 구천동
논개

전라남도

목포의 눈물
삼학도 배따라기
목포의 노래
여수항 경치
푸른 여수항
나주의 마음
영산강 처녀
베틀 노래
구례아가씨
영암 아리랑
낭주골 처녀

진도아리랑
흑산도 아가씨

경상북도

경북의 노래
경주딸네집
경상도 청년
고령대가야 문화제 찬가
공처농요(햇소리)
공처농요(걸채소리)
공처농요(타작소리)
구미의 찬가
내고장은 봉화
독도는 우리땅
무영탑 사랑
불국사의 밤
봉덕사의 종소리
비내리는 고모령
신라의 달밤
신라의 북소리
신라제 길손
상주 연밥 노래
상주 서보가
석굴암
안동부르스
울릉도 민요
울릉도 트위스트
울릉도 사랑

영일만 친구
영일만 처녀
에밀레종
에밀레
추풍령
토함산
포항의 찬가
포항타령

경상남도

가고파
고향생각
고향의 봄
그리운 충무항
그리운 하동포구
김해시민 행진곡
내고향 진주
논개
마금산 온천팔경
모심기 노래(긴등지)
모심기 노래(점심등지)
모짬때의 노래(긴등지)
모짬때의 노래(짧은 등지)
밀양 아리랑
밀양의 노래
봄편지
사명대사 찬가
산토끼 행진곡

3.1사의 노래
삼천포 아가씨
선구자
쇠머리대기 노래
시민응원가
아름은 내고향
약진의 마산
옛동산에 올라
울산시민의 노래
울산 아가씨
유자따는 남해 처녀
의령청소년 노래
의병의 노래
조국과 함께 영광이 있으리
줄다리기 노래
진주라 천리길

촉석루의 하룻밤
충효정 노래
하동포구 팔십리
해거름 등지
향토 송가

제주도

감수광
삼다도 소식
서귀포 사랑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 칠십리
오돌또기
이야홍 타령
해녀 소리

굴곡진 우리의 현대사, 속절없던 세상사 인생역정을 노래에 담아 마음을 보듬고 한 톨의 삶을 음율에 담아 세월처럼 흐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민요가 고대사의 증표라면 가요는 현대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래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며 삶의 자취이며 생명과 염원의 표상이다.

마음을 울리고 적시고 흥분시키는 노래의 속성은 이별과 환희와 승화로 표출되는 사랑의 본질과 같다.

노래를 통해 그리운 대상을 연상하기도 하고 옛노래를 들으며 생의 자락을 회상하기도 한다.

민족의 정서와 혼을 담은 흘러간 가요는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며 역사이고 전설이기도 하며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태백의 대중가요를 만들어 부르며 함께 마음을 열고 힘차게 달리는 윤희유 역할을 노래에서 찾아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시민의 응집력과 단결은 고향의 노래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불러도 시원하고 마음이 탁 트이는 태백의 대중가요 벌써부터 그립지 않습니까?

또한 목 말라 오지 않습니까?

생활의 곁에선 연인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자꾸 부르면 구수해지고 뭔가 향수에 목마른 듯 희노애락을 담은 태백의 대중가요와 함께 나누면 금상첨화 인생 아닙니까?

1백여 년의 우리의 가요사가 있음에도 태백의 향토가요인 대중가요 한 곡이 없다면 이 어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요즘처럼, 가요방, 노래방시설이 많은 때 누구나 삼삼오오 모이고 2차로 3차로 가게 되면 타향의 노래, 다른 지방의 대중가요를 목청껏 불러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서로 다르기에 자기 지방만의 노래에 마음이 여울질 수 있다지만 태백에서 삶의 평생을 보내고 또한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가 저 만큼 성장한 나이쯤 우리 고장의 흘러간 노래 한 점 부를 수 없다면 이 어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강원도 태백인의 이미지를 새길 수 있는 노래가사말은 1989~1990년 태백문화원에서 제1의적 캠페인으로 <노래를 부릅시다>로 정하고 향토의 노래가사를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그후, 민요풍의 노래로 만들어 보았으나 그다지 보급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향토의 노래가사를 모아 작곡하여 보급하는 시책을 태백시가 지원하고 문화원, 예술단체, 학교 등 각 단체가 진행시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가. 대상 : 향토의 노래 만들어 부르기

나. 유형 및 곡수 : 대중가요 10~20여 곡

다. 노래가사말 : 태백문화원 발표 향토의 노래가사 및 시민공모를 선정

- 지역적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는 노래가사
- 현실정화의 역할을 할 향토와 정서에 어울리는 노래가사
- 태백의 순박한 정서를 반영한 노래가사
- 태백의 경치, 전설을 담은 노래가사

라. 작곡·가수 : 유명작곡가 위촉 또는 출향·연고인사 지원 노래는 트롯트형 대중가수(전국보급 확산을 위해 지명도 높은 인기가수)

마. 제작사 및 형태 : 음반 제작사, 가요CD, 테이프

바. 보급활동 : 전국노래자랑·경연대회시, 경축행사잔치, 태백제 등 민속축제, 재경행사 등 축제마당

※출향인사에 무료제공 지역발전공감대 유인, 향토에 유발

태백문화원이 발행한 태백문화지라는 신문에 게재되었던 우리고장 향토가요 노래 가사를 아래에 실는다.

향토의 노래를 부릅시다.

사람은 감정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은 과학적이고 인격 적입니다.

즐거우면 소리로 웃습니다. 슬픔에 대해서도 울고,얼굴을 찡그리고 혹은 무표정합니다. 얼굴 모습을 보고 즐겁고 슬픔 감정을 읽습니다. 이같은 감정은 마음에 서 솟아 나옵니다.

즐거움에 곡조를 붙이면 즐거운 노래가 되고 슬픔에 음울을 매기면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곡을 붙힌 노래를 만들어 우리 탄

광촌사람들과 함께 노래부르려 합니다. 노래는 슬픔을 걷어가고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 태백을 약속의 땅으로 가꿈시다.(태백문화원)

광 원 가(鑛 員 歌)

작사: 兪炳奎시조시인
(太白市歌 作詞者)

수억년전 스민 태양 땅속에 잔다
가슴열고 손맞잡고 빛을 깨우자
한 겹 두 겹 파고들어 바위를 여니
어김없는 약속이라 노다지 창고.

우리들이 아니라면 누가 열겠나
헛소리만 치지말고 박수쳐 주오
고산심혈 막장끝이 불메 뿌리니
따스하고 밝은 념을 퍼내는 우리.

막장의 빛

노래말: 金永勳(태백문화원 이사)

노래곡: 崔大淳(정선음악교사협의회장)

출근이다 입갱이다 천하의 별천지
앞뒤위 아래가 온통 암흑속
캐프램프 빛살만 생명처럼 뻗친다
우리는 내일있는 막장의 빛.

퇴근이다 무사했다 천지가 환하다
사랑과 우애가 우리 모든것
앞집뒷집 만나서 오순도순 즐겁다
우리는 희망있는 막장의 빛.

태백탄전 뜨거운 열 생명이 솟는다
우리는 산업전사 어깨를 펴라
가난털고 일어서 잘사는날 보인다
세상은 우리의 것 막장의 빛.

여기가 고향

김영훈(태백문화원이사)

최대순 (정선음악교사협회의회장)

경상도라 내고향은 보리익던 먼 곳
강원도 탄광촌 왜 찾아 왔나
보리고개 피해서 철길따라 걸어왔지
아들아 딸애야 여기가 고향

전라도라 내고향은 황토마루 남쪽
강원도 탄광촌 왜 살려 왔나
새 삶을 찾아서 고개 넘어 걸어왔지
아들아 딸애야 여기가 고향

충청도라 내 고향은 인심좋은 마을
강원도 탄광촌 왜흘러 왔나
우리식구 행복하게 잘살려고 걸어왔지
아들이 딸애야 여기가 고향

내 산천 태백아

李 明 振(태백시 상장동 사무장)

흐르는 물길마다 굽이도는 산길마다
한 많은 사연 서리서리 엮어지고
가슴마다 인정담고 이웃끼리 마음주는
울고 왔다 웃고가는 내산천 태백아
채탄막장 이고지고
험난한 인생길
슬픔을 몰고 살아온 30년 세월
오늘은 보람에 내일은 희망에
한 많고 설움 많던 내 산천 태백아.

나는 광부로소이다

김 종 삼(소설가·황지여상교사)

초롱한밤별 먼산의 눈은 아직도 하얀데
새벽바람 등애지고 땅속깊은 산냄새를 맡는다
가뿌불빛 갱복지고 노보리 오를때에도
흐르는 땀방울엔 아들놈 재롱이 떠오른다.

까만얼굴 하얀이 나를 비웃어도
한잔술에 너털웃음 하루를 캐는
내인생 ○○○ 향이여.

눈부신 햇살저녁놀 - 불게타도
사끼야마 십년세월 가슴엔 탄가루만 쌓이네
받아쥔 노임봉투 아쉬움만 남아도
석양의 햇무리는 처자식 얼굴 그려낸다.

내고향 태백

1. 산길도 굽이굽이 하늘아래 첫동네
끝없이 깊은 땅밑 검은 노다지에
슬픔도 기쁨도 다 묻어버린 곳
아! 꿈에도 잊지못할 그리운 내고향
太白이라.
2. 물길도 굽이굽이 달리는 광차속에 꿈을 실고
오늘도 무사빌며 그리는 당신모습
괴로움도 즐거움도 허공속에 띄워버린
아! 영원히 잊지못한 추억의 내고향
太白 이라네.

鄭 然 福

※위 노래말은 태백문화보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둔다.

3. 나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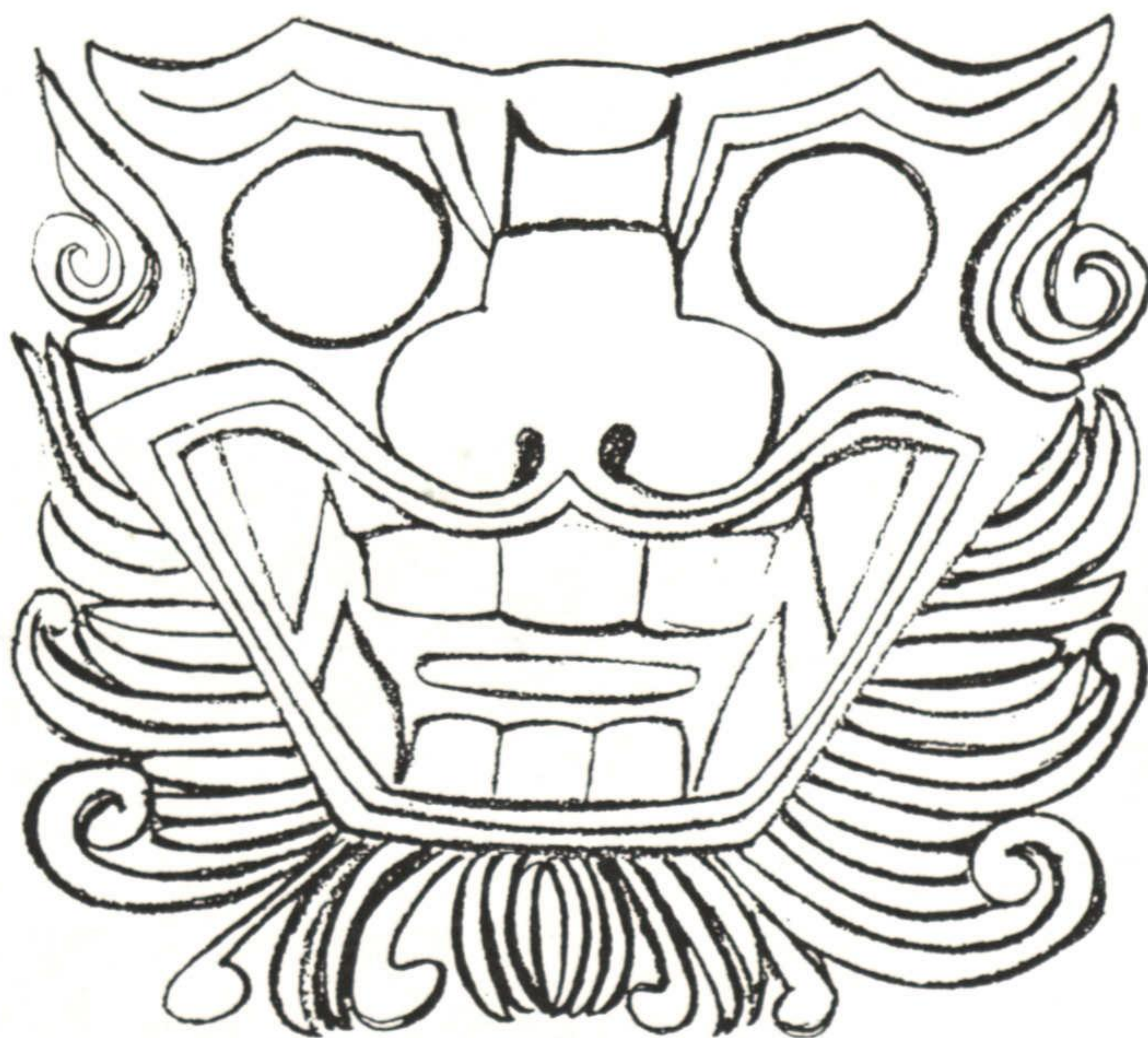
향토의 노래는 그 지방의 독특한 정서와 삶의 흔적이 한데 용해된 결정체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 내고장의 노래는 가슴을 울리게하고 삶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한다.

또한 구성진 가락의 풍토 자연적 환경에서 배어나온 진국 같은 노래는 한의 정서를 달래기도 하고 아픔을 잊게도 하는 진통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이다.

태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통한 태백시의 이미지를 찾고 타향·출향인에게는 고향을 품에 안게 하고 다른지역인에는 태백을 알리는 자연스런 홍보역할을 담당한다.

즉 태백인 스스로 향토의 노래를 노래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윤희유 역할을 자청 하므로써 즐거울때나 힘겨울 때 노래를 통해 안정을 찾고 시민의 정주심(定住心)과 자긍심(自矜心)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게된다.

본적사지 답사기





<사진1: 본적사지 원경/가운데 빨간 벽돌 양옥집 뒤에서 최초로 탐재가 발견되었고 우측 돈사에서 숲이 발견되었다.>



<사진2: 본적사지 석탑과 유사한 영주 부석사 서탑전경>

목 차

- ☐ 답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 ☐ 답사의 동기 및 과정
- ☐ 주변 환경
- ☐ 문헌 조사
- ☐ 유물 수거 현황
- ☐ 결 론
- ☐ 답사반 명단 및 참고 자료 목록
- ☐ 도면 목록
- ☐ 사진 목록
- ☐ 도 면
- ☐ 사 진
- ☐ 기타 참고 자료

본적사지 답사기



배 일 환
태백시 문화계장

□ 답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태백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1>} 유감스럽게도 전통 사찰은 한 곳도 없다.

자고로 명승지에는 유명 고찰이 있기 마련인데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 전통 사찰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2>} 물론 정암사가^{3>} 있기는 하지만 태백의 절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고 혹자는 태백산은 민족 고유의 신앙처이기 때문에 타종교의 근접을 허용하지

^{1>} '98. 5월 현재 27개소(조계종9, 원운종3, 태고종3, 천태종2, 법화종2, 조동종 2, 기타6) 신도수 6,910명

^{2>} 태백에서 국도로 무려 110km 떨어진 소백산에 위치한 부석사의 일주문에 “태백산 부석사”란 현판이 걸린것을 보아도 태백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됨.

^{3>} 서기 645년(신라 선덕여왕 14년)자장율사가 창건/보물 410호인 수마노탑(7층 모전석탑)이 있다.

^{4>} 강원일보사에서 1975.5.1 발간한<태백의 읍면>장성읍란에 ‘황지연못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출처를 밝혀지는 않았지만 “신라 선덕여왕 16년(647년)에 황지(연못)에 황익이라는 부자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않았을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태백의 지명 유래>를 보면 절터의 지명이 무려 20여 개, 탑과 관련된 지명이 3개 소개되고 있고 “황지연못의 전설”^{5>} 등 5개의 전설에 승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이렇게 많은 절들이 왜 폐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근래 들어 역사 답사 프로그램 바람이 일고 있다. 태백 향토 문화연구회를 비롯하여 황지 중학교에서도 시민 교양 강좌 차원에서 월 1회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어 향토 문화의 새 장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문화 탐방 활동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 아울러 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키 위해 황지 3동 본적사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쓰게 됐다.

□ 답사의 동기 및 과정

<태백의 지명 유래>에는 황지 3동 절골의 본적사지에 대해 ‘고려 때 것으로 보이는 석탑이 무너져 남의 집 수도가에 빨래 돌이 되고 있다’^{6>}고 소개되어 있는데 발간 당시에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본적사지에 살고 있는 이한묵씨가 자신의 집을 개축할 때 향토 문화에 관심이 많은 강원일보 장성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여 “본적사지의 복원이 시급하다”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때도 역시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5>} ‘89년 태백문화원에서 발간, 김강산 편저 P86

^{6>} ‘96.3-’ 97.8까지 관동 대학에 의뢰한 태백의 각종 유물,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결과보고서(4×6배판, 1,000부)

그러던중 '97년 3월 <태백시지> 발간 용역이 발주되면서부터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이어서 그해 8월에 납품된 <태백의 역사와 문화 유적>⁶⁾ 책자에 본적사지에 남아 있던 탑재의 규격과 수량이 명기되어 탑재 현황이 구체화 되자 복원은 못할 지라도 남아 있는 탑재들이 더이상 훼손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98예산편성시 탑재 수거비를 요청하였으나 IMF의 한파로 한푼도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수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신정 연휴 마지막 날 석탑재를 보관하고 있는 이한묵씨를 찾아가 수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자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다.

해동이 되기를 기다림과 동시에 올해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태백의 문화 지도” 자료 수집을 위해 '98 3.18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우리 직원(문화계)들은 향토 문화재 답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취재차 방문한 「태백 향토 문화 연구회」 회장인 장성일씨도 본적사지 석탑재의 수거 계획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시와 연구회가 합동으로 방치된 석탑재를 수습하여 석탄 박물관으로 이전해 놓기로 하였다.

4월에 접어들면서 탑재의 이전이 본격화되었는데 이전 경비가 없어 걱정이었다. 다행히 연구회에 적립된 회비가 있어 석탑재는 무상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연구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어 '98. 4. 3 탑재 수거 목록 작성과 무상이전 재확인을 위하여 현지를 방문했다가 임노미씨 집에서 뜻밖에 상대 면석 1점과 3층 옥신석 1점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린 반면 무상이전에 대한 동의는 한 집도 받아내지 못하였다.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문화원에 모여 이전 준비를 하여 현장에 갔으나 예상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우선 정확한 탑재의 현황과 규격부터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 곳에서 가장 오래 산 이한묵씨집에 초층 옥개석 1점과 하대 면석 3점이 마당의 개집 옆에 <사진 3>, 그리고 초층 옥신석 1점과

하대 갑석 1점이 집앞 기단부에 <사진4> 놓여 있었고 바로 옆의 임노미씨 집(이한묵씨가 최초에 살았음)의 장독대에 상대 갑석 1점과 하대 갑석 1점이 세워져 묻혀 있었고 완벽한 기반부 면석 1점과 지대석 2점이 눕혀져 놓여 있었으며 <사진6>, 작은 방 입구에 3층 옥신 1점이 콘크리트 바닥에 <사진 8> 묻혀 있었다. (4월 8일 방문시 이한묵씨집 사이에 있는 돌담에서 상대 갑석 파편 5점을 추가 발견 <사진 7>)

이한묵씨집에서 북동쪽으로 직선 거리 50m 떨어진 절골천 건너편 박규현씨집에 3층 옥개석 1점과 하대 면석 2점이 <사진 5>, 그리고 박규현씨집에서 하천을 따라 하류쪽으로 약 20m 떨어진 교량 옆의 김기락씨 대문밑에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1점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김기락씨는 청주로 전출을 간 관계로 만나지 못함)

그러나 완벽한 것은 상대 기단부 면석 1점뿐이고 나머지는 붕괴될 당시나 그 이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파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규현씨는 훗날 절을 지으면 사용하려 했다면서 우리들의 계획에 동의해주어 3층 옥개석 등 3점만 그날 석탄 박물관으로 이송해 놓았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흩어져 있는 석탑재의 규격 파악 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복원도를 한번 그려보면 석탑의 윤곽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자정이 넘도록 복원도를 그려보았더니 예상외로 탑 복원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정연우씨에게 복원 절차를 문의해 본 바 “현장에 보관하였다가 현장에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면 일단 수거후 문화재 지정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주민 설득 작업과 함께 과거 10여 년 전에 이곳의 탑재 소문을 듣고 수거하려고 했던 신라 석재 강사사장을 만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석탑재를 찾아보았으나 무위에 그치고 대신 고기와 여러 점을 수집하게 되었는데 마침 MBC 최재석 기자가 이를 취재·방영(4.15 촬영, 당일 저녁과 이튿날 아침 방영)되어 주민 설득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한편 고기와의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았더니 수집된 기와는 평범한 일반 기와뿐으로 더 조사하면 당연히 수막새와 암막새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4월 16일 현장을 재 방문하여 지표 조사를 하였는데 이한묵씨집 뒷 돌담에서 연화문 수막새 파편 1점과 인동당초문의 암막새 파편 1점, 그리고 귀면와 파편 1점을 발견하여 이때부터 석탑뿐만 아니라 기와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행정 자료실과 태백 도서관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부시장님께서도 인제의 “한계사지 발굴 보고서”를 구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98. 4. 18 토요일 오후 태백 향토문화 연구회원들과 함께 임노미씨집의 장독대 바닥에 묻혀 있던 기단부 석재들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돌담 일부를 헐어 탑재 파편 3점을 꺼내어 건설업을 하는 전영수 사장의 지게차를 지원 받아 모두 이한묵씨집 마당에 모아 두고 연구 회원들이 손수 시멘트와 모래를 사 와서 훼손된 장독대를 말끔히 보수해 주었고 석재를 박물관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준비된 1톤차로는 무리일 것 같고 회원들도 지쳐서 삼겹살을 사다가 임노미씨의 넓은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사진 9-11>

그리고 석가 탄생일 하루 앞둔 ‘98. 5. 2 콘크리트 파쇄기를 구하지 못해 임노미씨집의 3층 옥신석과 김기락씨집의 장대석은 그냥 남겨둔채 나머지 석탑재들은 비를 맞아가며 덤프트럭에 실어 석탄 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

□ 주변 환경

본적사지는 태백시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함백산(해발 1,573m)^{7>}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함백산 북서쪽 기슭에 있는 정암사는 한강 수계의 최상류에(영서), 본적사는 낙동강 수계의 최상류(영동)에 있다는 상징성을 가지며 정선, 삼척, 경북을 잇는 38번 국도와 35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용이하며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있다.

석탄이 개발되기 전까지 본적사지 주변은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졌으나^{8>} 광산이 개발되면서부터 갯목용으로 마구 벌채되고 주변에 많은 민가의 건립과 밭의 개간으로 수목은 찾아볼 수 없고 절골천 밑을 지나는 석탄갱으로 하천수가 일부 유입되어 하천의 수량이 많이 준 관계로 아름다운 풍치는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나 신기하게도 함백산엔 수많은 석탄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하천과는 다르게 갯내수가 유입되지 않아^{9>} 오랫동안 시민의 휴식처(야유회, 소풍, 물놀이, 돌구이, 빨래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또한 하천에는 석탑재와 같은 무늬의 화강암 바위들을 더러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런 종류의 바위는 소도 당골천에서 많이 발견된다.

본적사지 남쪽에는 본적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10m 남짓한 바위 절벽이 있어 과거에는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7>} <태백의 지명 유래> P.71에는 함백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중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함백산을 묘범산이라 기록하였다. 묘범산은 묘고산과 같은 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과 같은 뜻으로 대산이며 신산이며 세계의 중심산이며 크게 밝은 산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8>} <인조 실록>에는 본적사 주변이 울창한 수목으로 덮혀 하늘을 가렸다 한다.

^{9>} 정암사를 가로지르는 소하천에도 갯내수가 유입되지 않아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다.

^{10>} <태백의 지명 유래>에는 현 태백역 앞에 토기점이 있었다 하나 <삼척군지>에는 번적골(본적골)에 토기점이 있었다 한다.

에 절골 안쪽(서쪽)엔 가는 골, 식복이골, 못터, 안충터, 심적암터(고려청자 파편이 많이 발견되었다 한다), 묘적암터, 은적암터가 있었다 하며 동쪽 인근에 토기점 터가 있었다¹¹⁾ 하는데 본적사의 기와를 생산하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적사에서 함백산 정상쪽(서쪽)으로 300m 위에 심적사(조계종, '62. 5. 7 창건)가, 1.7km 위에는 관음사(조계종 ' 78. 11. 7 창건)가 있으며 동쪽(황지연못)방면으로 약 1km 아래에 심원사(조계종, '53. 3. 15 창건)가 있다.

그리고 본적사지에 빌라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며 조금 더 올라가면 대규모 스키장과 골프장을 주축으로 하는 서학 레저 단지가, 뒷산(칠표 목장 방면)에는 대규모 수렵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예전에는 함백산(대박산)도 태백산으로 여겨 왔으며¹²⁾ 절골의 유역면적(약 5.6km²)이 매우 넓고 수로가 6km가 넘어 여름철 집중 호우시 물살이 세어 수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근래 콘크리트로 옹벽을 하기 전까지 매년 석축을 새로 쌓아야 할 정도로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었는데 본적사가 역사의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도 아마 조선시대 중엽에 큰 홍수로 인해 유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절골천이 석탑 앞(남쪽)으로 지나갔는데 지금은 금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 뒷쪽(북쪽)으로 흐른다”는 마을 원노들의 말과 주변 지형이 이를 뒷바침한다.

¹¹⁾ <태백의 지명 유래> P71

¹²⁾ <조선왕조 실록 강원도 사료집>인조 26년 11월 30일(1648년)원문 별첨

¹³⁾ 글쓴이의 위치는 소도동(태백산 정상)에 있었던 것 같으며 연화봉은 동점동의 연화봉을 지칭한 듯 하다. 만약 대박산이 지금의 대덕산을 지칭한다면 본적사의 위치는 불명해 진다.

□ 문헌 조사

- <仁祖實錄> : ^{12>}北有威朴山東南對蓮花峯 縱北稍遠有寺曰
本寂寺.....一里許 有小池^{13>}

북쪽에는 함박산이 있고 동남쪽에는 연화봉을 대하고 있으며 북쪽을 따라 조금 멀리가면 절이 있는데 본적사라고 하며... 아래로 1리쯤에 조그만 연못^{14>}이 있다.

- 《陟州誌》 ^{15>}: 大朴山在太白東^{16>}, 有上下本寂梁寂妙

대박산은 태백산 동쪽에 있다. 상하 본적이 있어 깊숙하고 적묘하다.

- 《陟州誌》 : ^{17>}大朴山在太白東, 有上下本寂深寂妙寐隱寐

대박산은 태백산 동쪽에 있고 상하 본적이 있어 깊숙하고 적묘하다.^{18>}

- 《三陟郡誌》 ^{19>} :

옛날 번적골에서 토기점을 설치하였으나 미구에 중지되고 5년전(1910년경)에 다시 개점하였으나 그 산액이 적다. 번적사는 숙종때^{20>} 마을 서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석탑만 남아 있다.

^{14>} 북동쪽으로 약7-800m아래에 있는 황지3동의 금계 연못으로 추정됨

^{15>} 대박산은 태백산의 북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대동여지도에는 현재의 대덕산을 대박산으로 여긴듯하다

^{16>} <완역 척주집-척주지(허목, 1662년)>삼척시 '97. 5. 1 P46, P80

^{17>} <완역 척주집-척주지(김종언) '97.5.1 삼척시 P274, P339

^{18>} 태백 문화원이 발간한 <태백의 지명 유래>에서는 寐를 寂으로 하여 “함박산은 태백산 동쪽에 있는데 상함백과 하함백 사이에 본적사, 심적사, 묘적사, 은적사가 있다” 고 해석

^{19>} '88.12.28 삼척군 P 698-1916년 심의승 군수 편찬 군지 인용문

^{20>} 재위 기간 1674년 -1719년

^{21>} 1994. 2. 28 태백문화원 P226

· <내고향 태백>^{21>} :

황지 절골에 있다.

절골에는 옛날 4개의 절이 있었는데 본적사·심적사·묘적사·은적사이다. 그 가운데 본적사가 本寺로 가장 컸다. 본적사 절터에는 삼층석탑으로 보이는 탑이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

· <태백의 지명 유래>^{22>} :

절골 어귀의 철다리에서 5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길가에 있다. 연대를 알 수 없는 석탑이 무너져 남의 집 수돗가에 빨래돌이 되고 있다. 탑은 3층 석탑으로 추정되며 양식은 고려 때 것으로 보아진다.

- 척주부 인용문 : 臺南有上咸白中咸白下咸白上下有本寂深寂妙寂隱寂庵今或廢

금대봉 남쪽에 상함백산·중함백산·하함백 사이에 본적암·심적암·묘적암·은적암의 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사가 되었다.

· <太白의 歷史와 文化遺蹟>^{23>} :

※소재지 : 황지 3동 6/3 467-5번지 일대

※위치 및 현상 : 일명 본적사지로 불리우는 이 절터는 현재 태백시 절골유원지로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를 바로 지나 민가들이 들어서 있는 일대에 위치한다.

절골이라는 명칭은 이 절외에 심적·묘적·은적암 등 여러 절이 있었던 연유로 생겨난 것이라 전한다.

그러나 현재 이 절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전혀 없어 당시 사찰의 창건과 변천 과정, 폐사 시기 등 그 내역의 전모는 살필 수 없다. 단지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내의 민가 주변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22>} 1989. 12. 27 태백문화원 P71, P87

^{23>} 1997. 8. 9 태백시·관동대 박물관 P110, P119, P127-132

통일 신라 말기(9C경)~ 고려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층 석탑재와 고려시대 기와편들 그리고 주민들의 전언을 감안하면 대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0 유적·유물현황

①삼층석탑재 : 이한묵씨(57세)마당에 3층 석탑의 옥개석 1점과 기단부의 석재 3점 초층 옥신석 1점이 마당에 방치되어 있다. 옥개석 1점은 뒤집혀 놓여 있는데 초층 옥개석으로 보여지며 옥개석 받침은 4단이고 옥신고임은 각형 2단이다. 옥개석 추녀 밑은 수평이며 낙수면은 약간 반전되어 있다. 옥개석의 규모는 가로와 세로가 84cm, 높이 31cm 정도이다. 초층 옥신석은 양끝에 우주가 있으며 상부에는 사리공으로 보이는 원형의 홈이 있으나 일부 파손되어 있다. 우주의 폭은 약 11cm이고 전체 크기는 폭 50cm, 높이 52cm이다.

이한묵씨집의 바로 옆집의 수도가와 장독대에도 기단부의 석재 2점(78×10cm, 99×10cm)과 장대석 1점(118.5×32cm)이 시멘트 바닥 속에 묻혀 있다. 한편 이곳에서 북동쪽 약 50m쯤 떨어진 하천 건너편 박규현씨 집의 뒷편에도 옥개석 1점이 옥신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자연석 위에 올려져 있다. 이 옥개석은 앞의 초층옥개석과 같은 재질이고 동일 형식을 띠고 있으며 크기(가로와 세로가 각각 60cm, 높이 약 27cm)로 보아 2층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기와 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한묵씨에 의하면 몇 해전 우사 증축을 위한 공사 중에 많은 양의 기와편과 숯, 도자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한다.

^{24>} 탑이란 말은 고대 인도어의 STUPA에서 유래됨.

탑은 불상보다 먼저 불교의 예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찰에 있어 금당과 더불어 중요한 구조물로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대체로 6세기에서 7세기 것들부터 남아 있는데 처음에는 목탑에서 시작되어 석탑으로 옮겨갔다. 석탑은 기단부, 탑신, 상륜의 세부분으로 나누며 내부 구조는 적심으로 중심을 안으로 하여 건립하였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문화재관리자교육교재, 1996년, 문화재 관리국)

□ 유물 수거 현황

1) 석탑재^{24>}

이번에 수거된 석탑재들은 이한목씨가 30여년 전 태백에 처음 들어와서 본적사지에 밭을 개간하면서 현재의 집터(당초 집터는 현 임노미씨 집)바로 뒤에 묻혀 있던 것을 인부를 사서 옮겼다고 한다. 당시엔 집이 몇채 없었으나 인근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하수도 뚜껑, 방구들, 주춧돌 등에 쓰기 위해 위치 변경과 인위적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다행히 상하대 갑석은 장독대(당시에는 빨래터)경계에 세워 묻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왔고 지표에 묻혀 보이지 않던 부분에 각형과 호형의 2단 옥신 괴임과 상대 중석 몰당이 갑석에 한 돌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모두 4집에 석재가 분산 보관되고 있었으며 임노미씨의 담장에서 발견된 기단부 상대 갑석에는 한 일자 문양의 은장^{25>}이 새겨져 있었다. 박규현씨 집의 3층 옥개석에는 찰주^{26>} 구멍과 풍경구 2개가 발견되었으며 아쉽게도 2층 옥개석과 옥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신라 석재의 강사장 말에 의하면 10여 년전 이한목씨 집 인근의 담장밑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수습된 탑재만으로도 상륜부를 제외하곤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본적사지 석탑재의 전체적인 모습은 ① 지대석은 크고 긴 바위를 길이로 양분하여 한 면은 편편하게 다듬어져 있고 바닥 면은 그대로 두어 호형을 이루어 탑의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진 15, 16> ② 하대 저석과 중석은 하나의 돌로 되어 4쪽이 하대 기단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17, 18> ③ 상하 2층 기단부를 이루고

^{25>} 두개의 갑석이 벌어진 틈을 막는 장치

^{26>} 탑의 상륜 부분에 꽃아 보구나 보개 등 여러 장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철틀로된 심주

있으며 중석의 탕주가 1개씩이고 ④ 상대 중석도 4매의 면석으로 구성되어있으리라 추정되며 <사진 21> ⑤ 하대 갑석과 상대 갑석에 호형과 각형의 2단 몰딩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하대 갑석은 4매, 상대 갑석은 부연과 은장이 있고 2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히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어 빗물 배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하 갑석은 탑 중심부가 두껍고 네쪽을 서로 맞출때를 고려하여 중심쪽으로 흠이 패여져 있어 갑석을 모두 맞추면 가운데 구멍이 생길 것

<표 1> 가구별 탑재 수거 현황

주소	성명 (전화)	보관 탑재	규 격 (단위 cm)			
			가로	세로	높이	기타
황지동 467-5 (6/4)	이한묵 552-4664	초층 옥개석 1점 초층 옥신석 1점 하대갑석파편1점 하대면석 3점	84 50 40 120 56 61	84 50 37 25 25 28	31 52 10	우주11 탕주16 하대저석10 하대중석15
황지동 산31-3	임노미 552-8821	상대 중석(면석)1점 3층 옥신석 1점 하대 갑석 1점 상대 갑석 1점 장대석 2점 상대 갑석파편 5점	88 38 78 99 110 126 36	59 38 73 49 32 36	12 ? 10 10 10-19 5-17	탕주 12 미수거 사면 갑석부연 5cm 사면 사면
황지동 621-57	박규현 552-6286	3층 옥개석 1점 하대 면석 2점	64 80 54	64 25 25	28 18 18	
황지3동 8/2	김기락 청주 전출	장대석 1점	115	72	18	미수거
계	21점	옥개석(초층, 3층) 2점, 옥신석(초층, 3층) 2점, 기단부 석재 14점(하대 면석 5점), 하대갑석 2점, 상대면석 1점, 상대갑석 6점), 지대석 3점				

으로 추정된다. <사진 19, 20, 22, 23> ⑥ 탑신부는 옥개석과 옥신석이 각각 한 돌씩으로 우주가 네 귀에 조각되어 있으며 ⑦ 옥개석 추녀 밑은 수평이며 낙수 흠이 패여져 있었고 전각은 살짝 들렸으며 옥개 받침은 각 4단이다. ⑧ 초층 옥신의 너비가 높이보다 좁은 것

<표 2>본적사지와 한계사지 3층석탑 실측 비교표(단위: cm)

명칭	높이		너비		매수 또는 단		비고
	본적	한계	본적	한계	본적	한계	
상륜부							
3층 옥개	28	32	64	88.5	4단	4단	2단각형괴임
3층 옥신		15.8	38	52.5			
2층 옥개		32		92	4단	5단	
2층 옥신		21		55			
초층 옥개	31	34.5	84	107.5	4단	5단	2단각형괴임
초층 옥신	50	57	52	64			
상대 갑석	10-12	18	99	139	호, 각형괴임		부연 있고 경
상대 중석	59		88		4매	4매	
하대 갑석	10-14	17	156	187.7	호, 각형괴임		
하대중석 및 저	25		154		하대석과 중		
지대석		10	156	228	?	5장	

²⁷⁾ <한국의 미 석탑> '92. 9. 5중앙일보사(정영호 책임감수)

신라의 석탑은 8세기 이후 시대가 내려오면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고 혹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옥개석의 받침이 5단이던 것이 4-3단으로 줄어든다든지 기단부 면석의 탱주가 상층부터 2주에서 1주로 줄어들거나 혹은 전혀 없어진다든지하며 또 옥개석 정상면의 중신괴임도 2단에서 1단으로 약화되고 또는 각형에서 호형으로 변한다든지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거대하던 것이 중형 소형 탑으로 위축된다든지하는 식으로 변형을 보이고 있다.

- 유사탑: 전남 장흥의 보림사 동서3층탑(870년), 경북 영주의 부석사 3층석탑, 경남 산청의 단계사지 동서3층석탑, 협천의 청량사 3층석탑, 울주의 청송사지 3층석탑.

이 특이하며 (52:50) ⑨ 다른 지역의 탑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폭이 좁다 ⑩ 상륜부와 2층 옥개석, 2층 옥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의 탑(8-9C경)으로 판단되며^{27>}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령의 성주사지 석탑, 인제 한계사 3층 석탑, 특히 영주 부석사의 동서 3층 석탑과 외형이 너무도 흡사한 형태이다.

2) 고기와^{28>}

삼국시대의 기와는 권위의 상징으로 궁궐이나 불사 등에만 한정 사용되었다는데 나와 지붕이나 초가 지붕만이 있었을 당시에 태백에 기와 지붕은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기와 조각은 집터뿐 아니라 밭 전체에서 수도없이 발견되었는데 사찰의 연대 추정을 보정해 줄 명문 기와를 찾아보았으나 유감스럽 게도 명문 기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0여 년전에만 해도 거의 원형에 가까운 기와들도 많이 발견되었으나 약재나 낫그릇 세척(연마)재

^{28>} <문화재-제25호> '92.12.10문화재 관리국. P277 이용희·김병호·김창석-
“고기와의 보존을 위한 연구”

우리 나라에서는 BC1-2세기경에 제조 기술이 전파되어 삼국시대에서는 각 각 독자적 기와가 발달하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연화문을 비롯한 갖가지 무늬들이 기와에 표현됨.

통일 신라 시대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정자기와가 만 들어졌으나 고려말엽에 들어서면서 무늬의 정교함이 결여되고 조법이 형식 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요가 많아져 무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양산에 중점을 두어 외양이 조잡해짐.

암기와, 암막새, 수기와, 수막새, 귀면와, 치미, 석가래기와로 분류할 수 있고 시유를 기준으로 가열소성의 최종 단계에서 청솔가지 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그을음을 기와표면에 흡착시킨 혼와와 소성이 끝날 무렵에 가마 내에 식염을 투입하여 기와표면에 흑갈색의 규산소다 층을 생성시킨 식염 유와, 기와표면에 유약을 입혀 적색 또는 황색 등의 경질 유리층을 형성 한 유약와로 구분된다. 혼와는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은 은한 은회색의 광택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궁궐, 사찰, 향교 등 목조건 물의 지붕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로, 일부는 다시 저지대를 매립하는데 쓰여졌다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 밭을 갈때 경운기를 동원하여 더욱 작게 파쇄된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밭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와편은 총 72점을 수집하였는데 이 중에서 귀면와 파편(도면 5-1 참조)은 경주 분황사지에서 발굴^{29>}된 귀면와와 동일한 문양으로 두 문양을 겹쳐 눈썹에서 턱까지 귀면을 복원 할 수 있었는데 귀면와는 여느 기와와는 달리 그 희소성으로 인해 발굴된 것도 별로 없다는 점과 분황사지 귀면와와 닮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색상별로는 갈색, 다홍색, 회색, 암회색, 흑색 등 다양한 색상이 발견되었고 문양별로는 선문을 비롯한 12종의 문양<도면 9, 사진 30-35>이 그리고 기능별로는 수막새 기와 등 5종의 기와가 발견되었는데(기와의 각부 명칭은 도면 4 참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막새 기와

- 세판 양식 연화문(도면 6-4, 사진 28)

주연 너비 0.7cm로 매우 좁은 편이며 연주는 약 40개가 돌을 새김되어 있다.

주연 높이는 0.5cm, 연판의 길이는 4cm로 총 24엽이며, 자방 너비는 5.6cm로 가장자리에 테가 둘러져 있고 그 둘레에 12개, 자방의 가장자리에 16개가 돌을 새김되어 있는데 마모가 심하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자 20개가 자방의 빈 공간사이사이에 돌을 새김되어 있다. 전체 직경은 14.7cm이며 턱 높이는 약 1.8cm이고 빛깔은 연한 회색이며 꽃잎이 좁고 많은 것이 특징이다.

^{29>} 분황사: 신라 27대 선덕여왕 3년에 건립(634년)여왕 재위 기간 632-647
<문화재 제25호-분황사 발굴 조사 결과보고> '92.12.10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와 경주 문화재 연구소가 합동으로 '90.8.14-' 92.9.22까지
3차에 걸쳐 발굴 조사(잔장 조유전)

- 복판 양식 연화문(도면 6-3, 사진 29)

외관이 무척 투박하고 조잡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의심스러웠는데 주연너비 1.3cm, 높이 1.5cm, 마모가 심하여 연주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연판 길이 3.2cm로 꽃잎 가운데에 선이 있고 총 16엽, 전체 직경은 위와 거의 같은 약 15cm로 추정되며 두께는 2.5cm, 빛깔은 밝은 회색이다.

- 문양 미상의 막새(도면 6-5, 사진 26)

매우 작은 파편으로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위의 두 막새보다는 다소 클 것으로 추측되며 하회탈의 눈썹을 많이 닮았으나 화초 문양이거나 새문양일 것으로 추정되며 빛깔은 매우 검은 편이다.

② 수기와(도면 7, 사진 35)

수기와의 양식은 ①무단 기와로 끝부분이 좁고 가는 기와 ②무단 기와로 끝부분이 좁고 가늘면서 약간 돌출부가 있고 기와의 앞에서 약 6-7cm 부분에 안쪽으로 홈이 패여져 있어 두 기와가 서로 맞물리는 형식 ③유단기와로 구별되었다.

③ 연목 기와(도면 6-1, 사진 29)

주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목기와로 추정되며 다른 문양에 비해 화려한 중판 양식이며 끝이 버선코처럼 돌출 되어 있고 빛깔은 검은 편이다.

④ 암막새 기와

^{30>} 忍冬: 인동과의 반상록 덩굴 식물로 겨울 동안에도 곳에 따라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동이라고 한다. 가지는 길게 뻗어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올라간다. 잎은 마주 달리고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해 지는데 어린대에 달린 잎은 깃처럼 갈라진다. 꽃은 5-6월에 피며 백색.

당초문: 덩굴풀 무늬의 총칭. 중국 전래의 덩굴 풀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런 종류의 무늬는 특별히 중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 온 것으로 육조 시대 일이다. 북제에서 수당 시대에 걸쳐 그 당초에 하문과 포도, 석류 등의 과일이 붙어서 다채로워졌다(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82.5.1 동아출판사)

- 인동당초문³⁰⁾(도면 8-1, 사진 24)

모두 3편의 파편으로 수습되었는데 다행히 두 편을 이어 거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무늬면에는 인동당초문이 돌을 새김되어 있고 주연부 연주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너비는 약 0.5cm, 높이는 1-2mm이다. 가로 약 20cm, 세로(길이)는 알 수 없으며 문양 부위의 두께는 4cm, 뒷부분은 2cm, 색상은 수막새와 같은 연한 회색이다.

이 기와의 특징은 앞뒷면에 마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앞면에 붓질을 한 듯한 섬세한 줄무늬가 있다.

-보상화문³¹⁾(도면 8-2, 사진 25)

2점의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접합이 가능하였으나 양 귀가 망실되어 전체의 규모를 알 수 없다. 주연부는 2개의 선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연주가 돌을 새김되어 있다.

주연의 너비는 5mm이며 두께는 4cm, 문양은 매우 섬세하며 빛깔은 밝은 회색과 검은 색이 있다. 보상화문에 대해서는 책마다 틀려 보상화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 기타(도면 8-4, 사진 26)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고 마모가 심한 2점을 발견하였는데 화초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⑤ 귀면와(도면 5, 사진 27)

³¹⁾ 寶相華文樣:상고 시대에 유행한 무늬의 하나. 연화문에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작품 상으로 나타난 무늬는 전혀 달라 복잡화미하며 실재하는 꽃이 아니다. 우미하게 문양화한 식물의 장식 무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꽃잎이 여덟개이고 끝이 뽕족한 것은 연화문과 같지만 좌우의 가장자리가 젖혀지고 또한 내부에 복잡한 곡선적 요소가 가해져 있다.

아마도 수나라에서 당나라 초기에 걸쳐 출현된 것 같은데 盛唐시대에 유행하여 둔황천불동의 석굴천장에 아름다운 예가 있다. 우리 나라의 신라 시대에도 방전등에서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귀면와는 단 1점의 파편만 발견되어 아쉬웠다. 이것이 마루용인지 사래기와 인지는 확실치 않았으며 두께는 2~3.5cm. 밝은 회색에 흑색코팅이 된 것 같다.

3) 기타(도면 10, 사진 36-37)

좀더 일찍 이곳에 관심을 가졌다면 원형의 도자기류를 많이 건져 낼 수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시대 불명의 질그릇류와 백자 파편 몇 점만 수집할 수 있었다.

이한목씨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10년전 화초 문양의 백자가 출토되어 시에 신고하였으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냥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돼지우리 옆에는 다량의 숯이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바 아마도 그곳은 부엌이거나 기와 요지가 아닐까 추정되며 태백역이 증

<표 3> 기와의 문양 및 종류

기와명	문양	규격(cm)	수거량	비고
귀 면 와	귀면중 입부위	9×9	1 점	도면 5-1
수 막 새 와	연화문(24엽)	직경 15	3 점	도면 6-4
	연화문(12엽)	직경 15	1 점	도면 6-3
	화 초 문		1 점	도면6-5, 6-6
	복엽 연화문		1 점	연목기와(6-1)
암 막 새 와	인 동 초 문		2 점	도면 8-1
	보 상 화 문		3 점	도면 8-2
	화 초 문		2 점	도면 8-4
기 와	무 문		1 점	
	선 문		12 점	도면 9-1
	격 자 문		32 점	도면 9-3
	어 골 문		4 점	도면 9-2
	복 합 문		7 점	도면 9-4

<표4> 기타 수집 유물

유물명	소재	수량	문양	비고
도자기류	질그릇 파편	5점	+와 빗살 물결(2선) 당초문 무문	
	백자 하부 파편	2점	무문	

축되기 전에 이곳에 방치되어 있던 석불상을 그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는에 역이 증축되고 나서 없어졌다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본적사지의 역사를 밝히고 유물들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참고 도서를 찾아보고 또 부석사나 정암사 등 고사찰을 답사해 보았으나 그럴수록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느낌이다.

불교 문화재에 대해 완전 백지(無知) 상태에서 단지 의욕과 상상력, 호기심만으로 이 일에 뛰어 들면서 뭔가 거창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으나 한가지씩 배워 나가다 보니 오히려 깨우친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배워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져 한계점을 느껴 현장 답사 수준의 기록으로 끝맺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한달 여간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민관 공동으로 방치된 향토 문화재를 찾아 복원의 길을 터 놓았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의 축적이 큰 소득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태백의 지명 유래>야말로 향토 문화재 발굴에 가장 훌륭한 길잡이라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태백의 지명

유래>에 사진과 지도 등을 첨가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보완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도 성과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 짧막하게만 소개되었던 본적사지에 대해 우리 힘으로 최초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본적사를 누가, 언제 창건하였으며 그 규모와 당시의 생활상, 추가 유물발굴(예컨대 석등, 부도, 당간 지주, 도자기, 목기, 주춧돌, 불상, 전돌, 배례석 등)과 폐사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되었는데 시급히 전문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적사지와 닮은 귀면와가 발견된 분황사지(선덕여왕 3년), 천제단이 있는 강화도 마니산의 정숙사(선덕여왕 8년), 태백산 정암사(선덕여왕 14년), 황지연못의 황익(선덕여왕 16년) 등 선덕여왕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의문도 속시원히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본적사지와 연관되는 시설(예컨대 가마터)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가 희소한 우리 고장에^{32>} 추가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태백 향토문화 연구회원들의 뜨거운 향토애와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적사지 삼층석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준 삼척 MBC의 최재석 기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답사(수거)반

· 태백시 : 문화계장 배일환, 문화재 전문위원 최익희, 지방행정서기 송기영

^{32>} 태백시의 지정 문화재(5종)

국가 중요 민속자료(제228호): 태백산 천제단

지방민속자료(제4호): 태백산 석장승

지방기념물(제39, 57, 58호)용연동굴, 삼엽충화석군락지, 월둔동굴

· 태백향토문화연구회 : 회장 장성일(강원일보 기자), 이상출(전 시의원), 조규오(태백시 시정계장), 이문근(전 상장동장), 최홍조(장성여고 교사), 정연수(시인, 태백신문기자), 김재록(태백경찰서), 전태균(태백시 관광교통과), 신원철(태백철물 대표), 김동수(의료보험조합), 김미향(태백문화원 강사), 김주영(태백경찰서), 석교준(영월소방서), 배해진(강원환경), 전영수(신진토건 대표), 오강희(제일화재), 박한홍(제일화재), 남종훈(태백소방서), 조영호(태백시청)

□ 참고 자료 목록

1. 한국의 미 석탑 - '92. 9. 5 중앙일보사 책임 감수 정영호
2. 한국의 건축 - '96. 4. 30 윤장섭 서울대 출판부
3. 한국의 미술사 - '87. 9. 20 김원용 일지사
4. 문화재(제19호) - '86. 12. 29 문화재 관리국 - 미륵사지 출토기와 등문양에 대한 조사 연구
5. 문화재(제25호) - '92. 12.10 문화재 관리국 - 분황사 발굴 조사 결과보고
6.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 '96. 12. 30 정선군(강원대박물관)
7. 척주집 - '97. 5. 1 삼척시, 강원대학교 강원 문화연구소、
8. 태백의 역사와 문화 유적 - '97. 8. 9 태백시(관동대 박물관)
9. 내고향 태백 - '94. 2. 28 태백문화원
10. 태백의 지명 유래 - '94. 2. 28 - 태백문화원
11. 부안댐, 수몰 지구 문화재 정밀 지표 조사 보고서 - '93. 12. 9 부안군
12. 한계사 - '85. 2. 28 인제군(강원대 박물관)
13. 삼척군지 - '88. 12. 28 삼척군

14. 조선왕조 실록 강원도사료집 - '95. 5. 10 강원도
15. 향토 교육자료집 내고장 강원도 - '90. 10. 20 강원도 교육위원회
16. 한국의 폐사 - '95. 12. 10 이재준 한국 문화사
17. 동산 문화재 관리 편람 - '94. 10. 7 문화재 관리국
18. 강릉 시립 박물관 도록 - '93. 12. 25 강릉시장
19. 문화재 교재 - 1996년 문화재 관리국
20. 옛절터 - '89. 12. 26 윤덕향 대원사
21. 옛기와 - '95. 11. 10 김성구 대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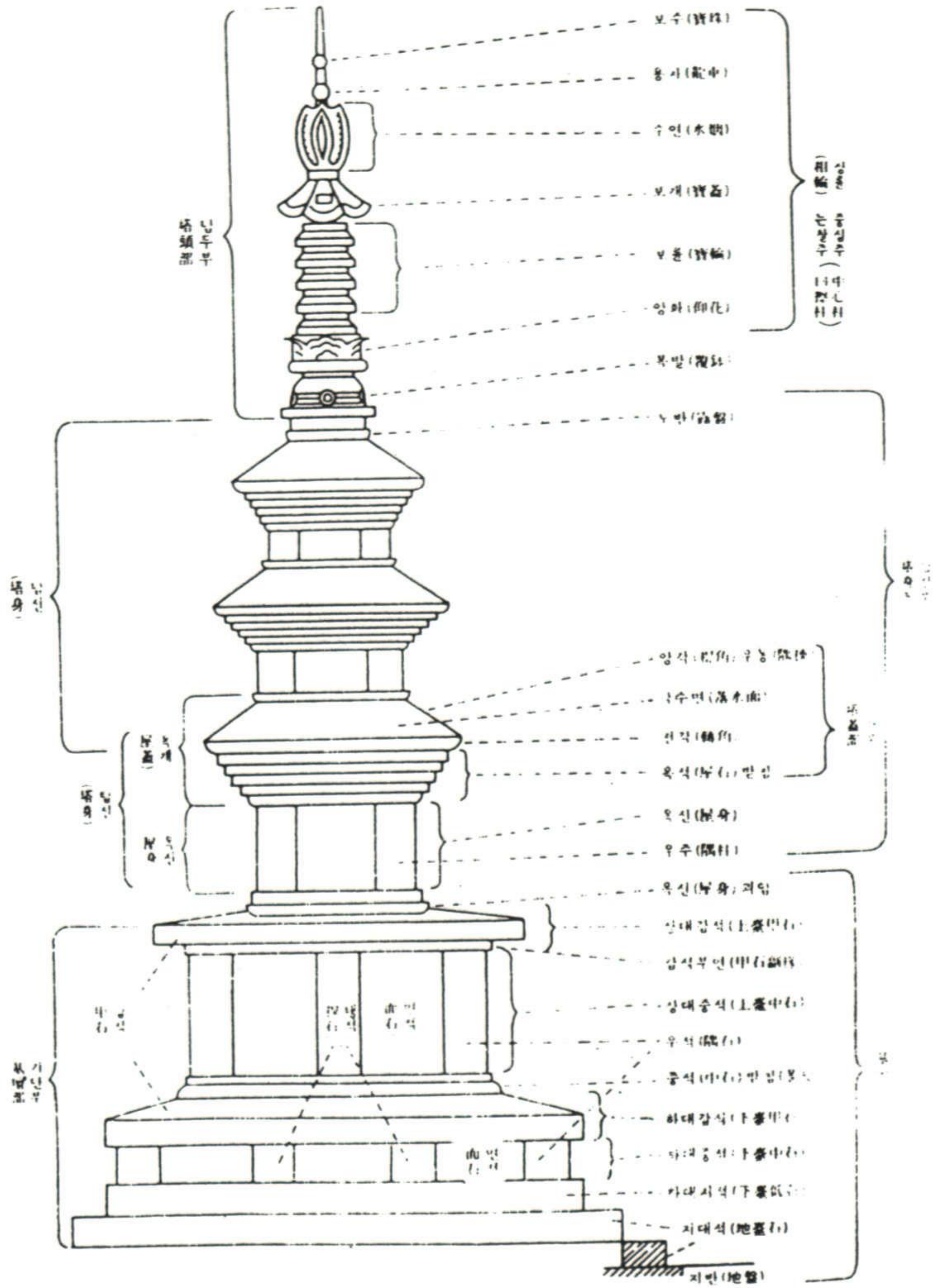
□ 도면 목록

- 도면 1. 석탑의 부분 명칭도
- 도면 2. 본적사지 석탑 추정 복원도
- 도면 3. 본적사지와 한계사지 석탑 비교도
- 도면 4. 기와의 각부 명칭도
- 도면 5. 본적사지와 분황사지 귀면와 결합도
- 도면 6. 본적사지 수막새 문양
- 도면 7. 수기와 단면도
- 도면 8. 본적사지 암막새 문양
- 도면 9. 본적사지 기와 문양도
- 도면 10. 본적사지 질그릇 문양도
- 도면 11. 복적사지 위치도
- 도면 12. 본적사지 부분 상세도
- 도면 13. 강원일보 기사 발췌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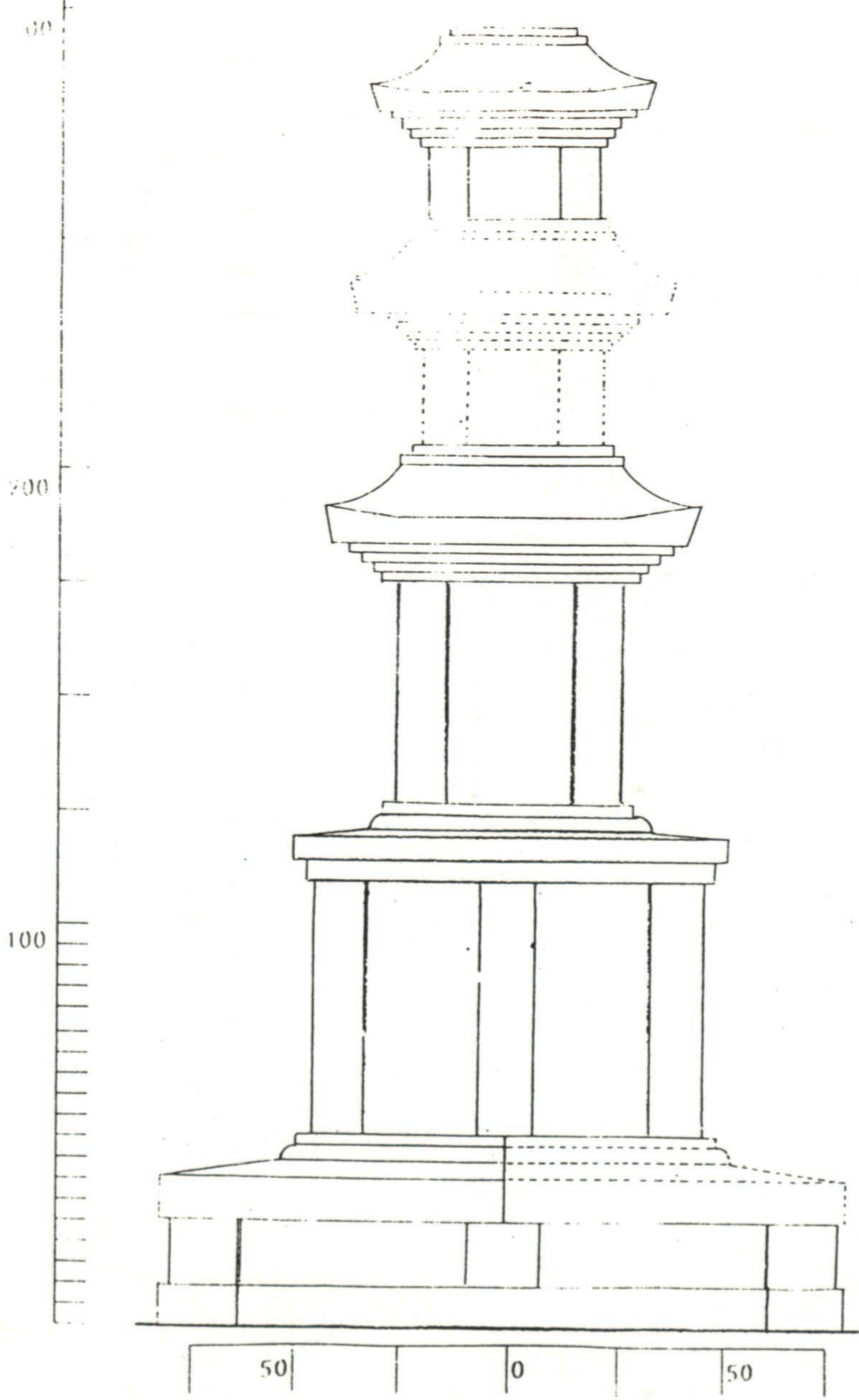
□ 사진 목록

- 사진 1. 본적사지 원경
- 사진 2. 영주 부석사 서탑 전경
- 사진 3-4. 이한묵씨 집에 보관되어 있던 석탑재
- 사진 5. 박규현씨집에 보관되어 있던 석탑재
- 사진 6-8 : 임노미씨집에 보관되어 있던 석탑재
- 사진 9-14 : 석탑재 수거 장면
- 사진 15-16 : 지대석
- 사진 17-18 : 하대 면석
- 사진 19-20 : 하대 갑석
- 사진 21 : 상대 면석
- 사진 22-23 : 상대 갑석
- 사진 24-25 : 암막새
- 사진 26 : 막새기와 파편
- 사진 27 : 귀면와
- 사진 28-29 : 수막새 및 연목기와
- 사진 30-34 : 다양한 기와 문양
- 사진 35 : 수기와 파편
- 사진 36-37 : 질그릇 및 도자기 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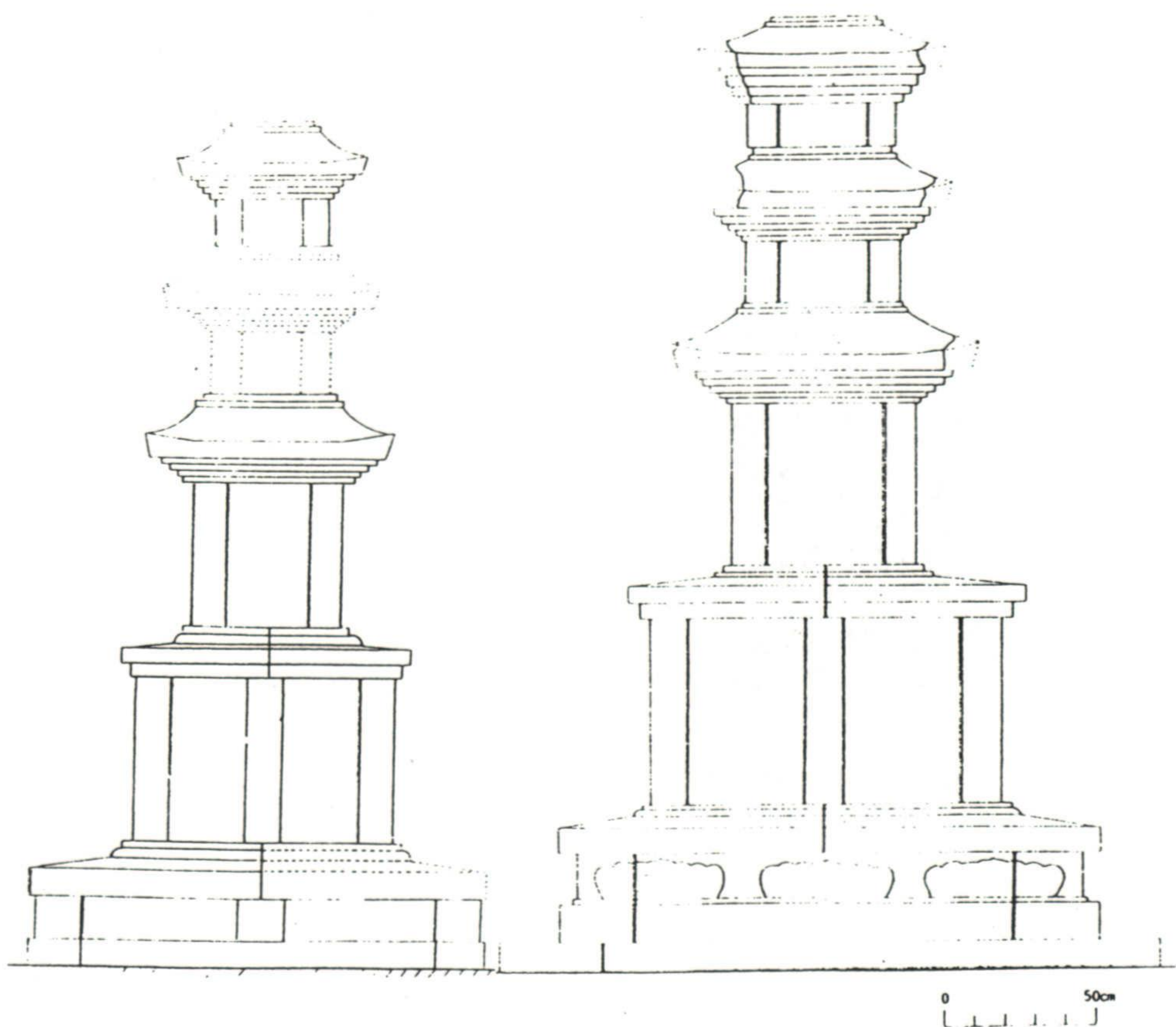
<도면 : 1> 석탑의 부분 명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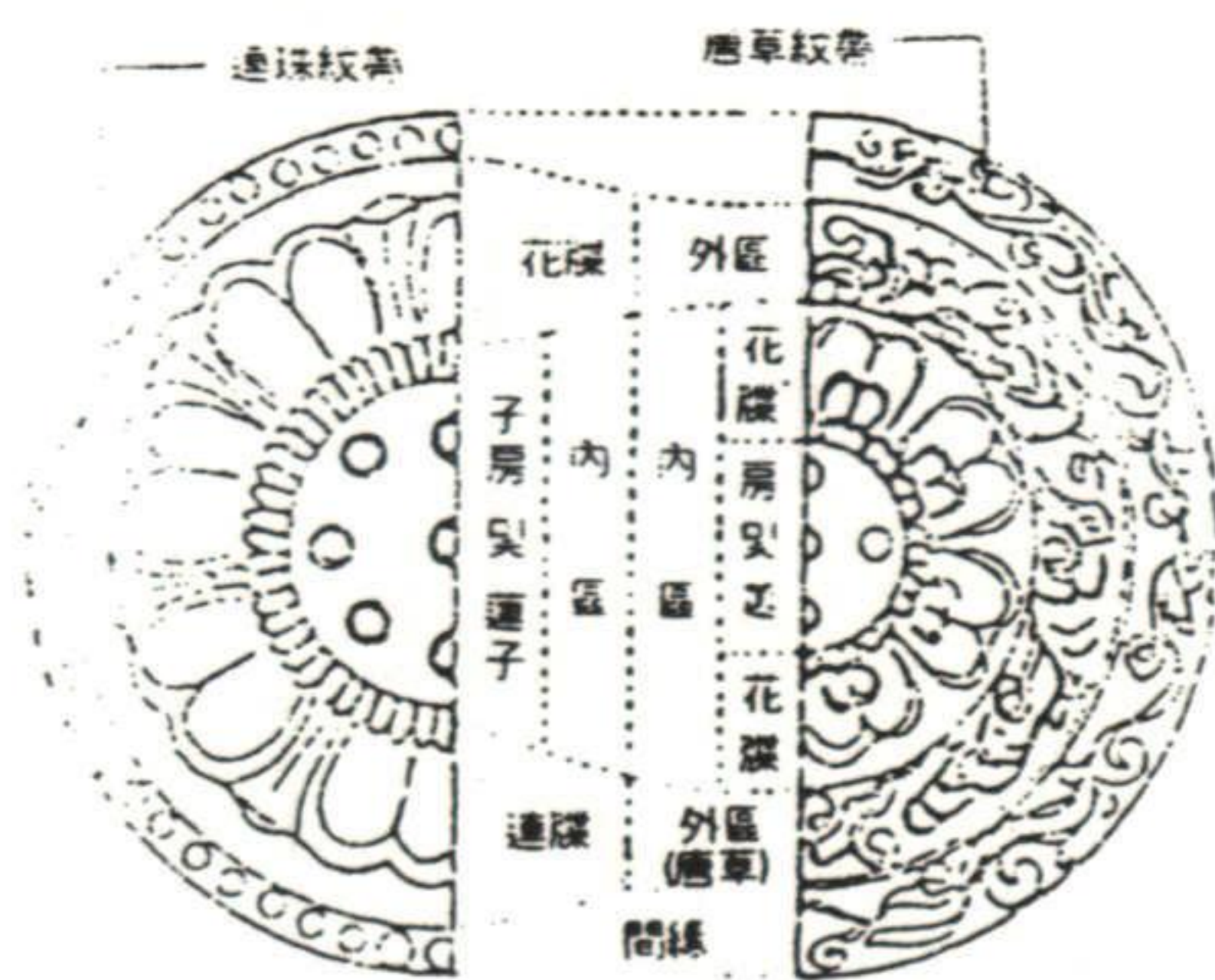
<도면 : 2> 본적사지 석탑 추정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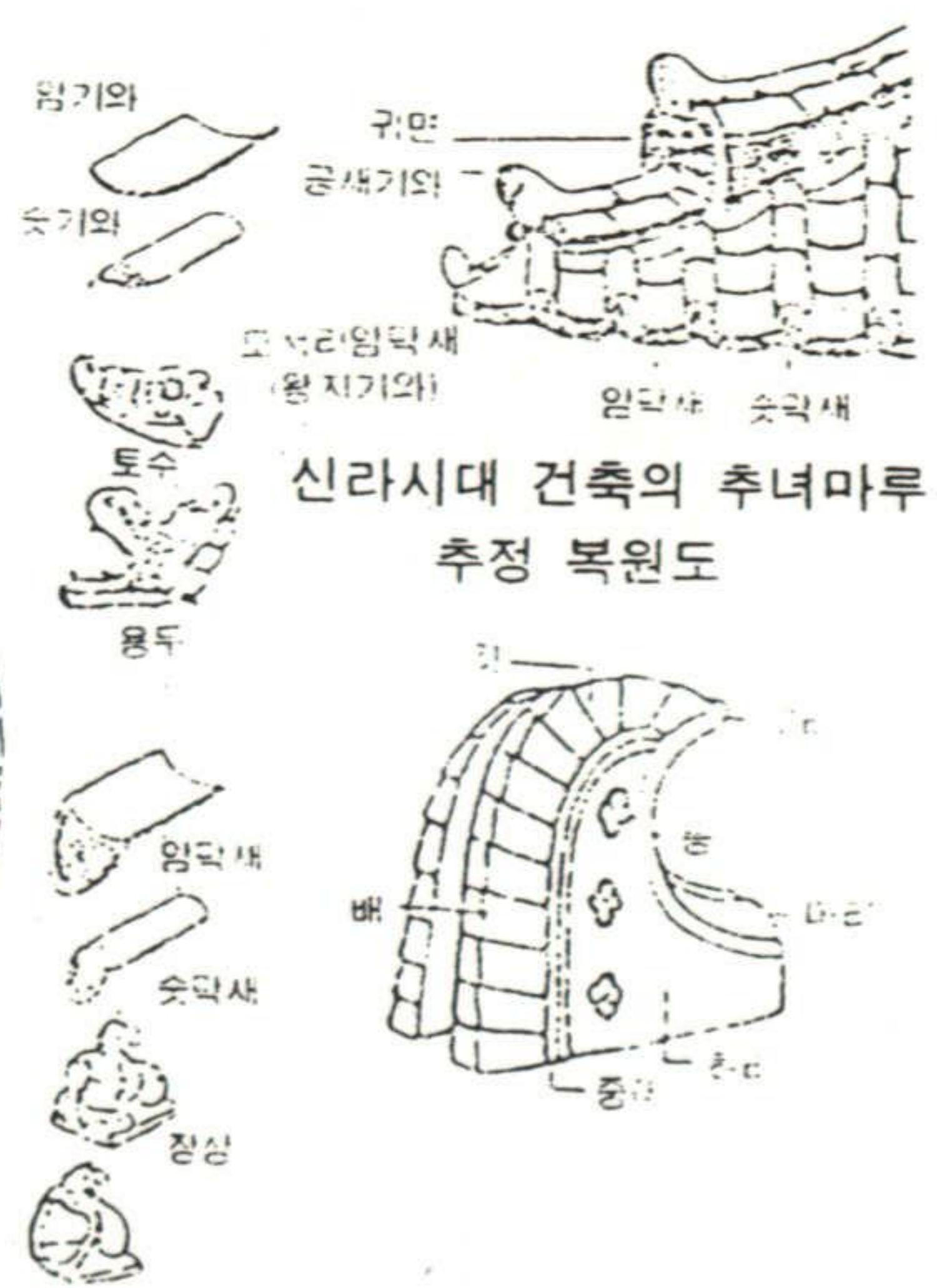
<도면 : 3> 본적사지와 한계사지 석탑 비교도



<도면 : 4> 기와의 각부 명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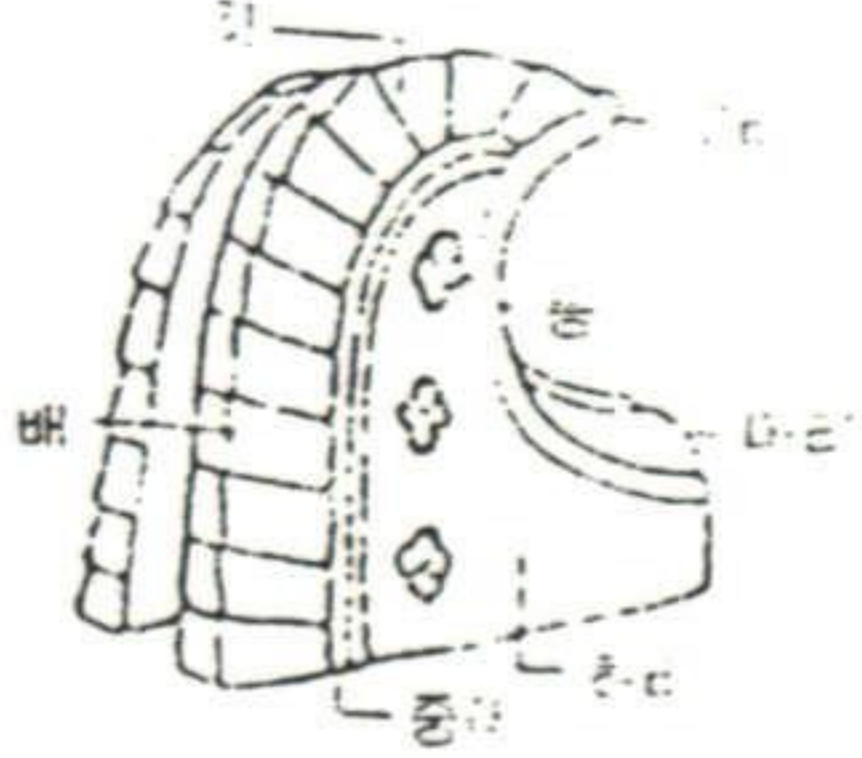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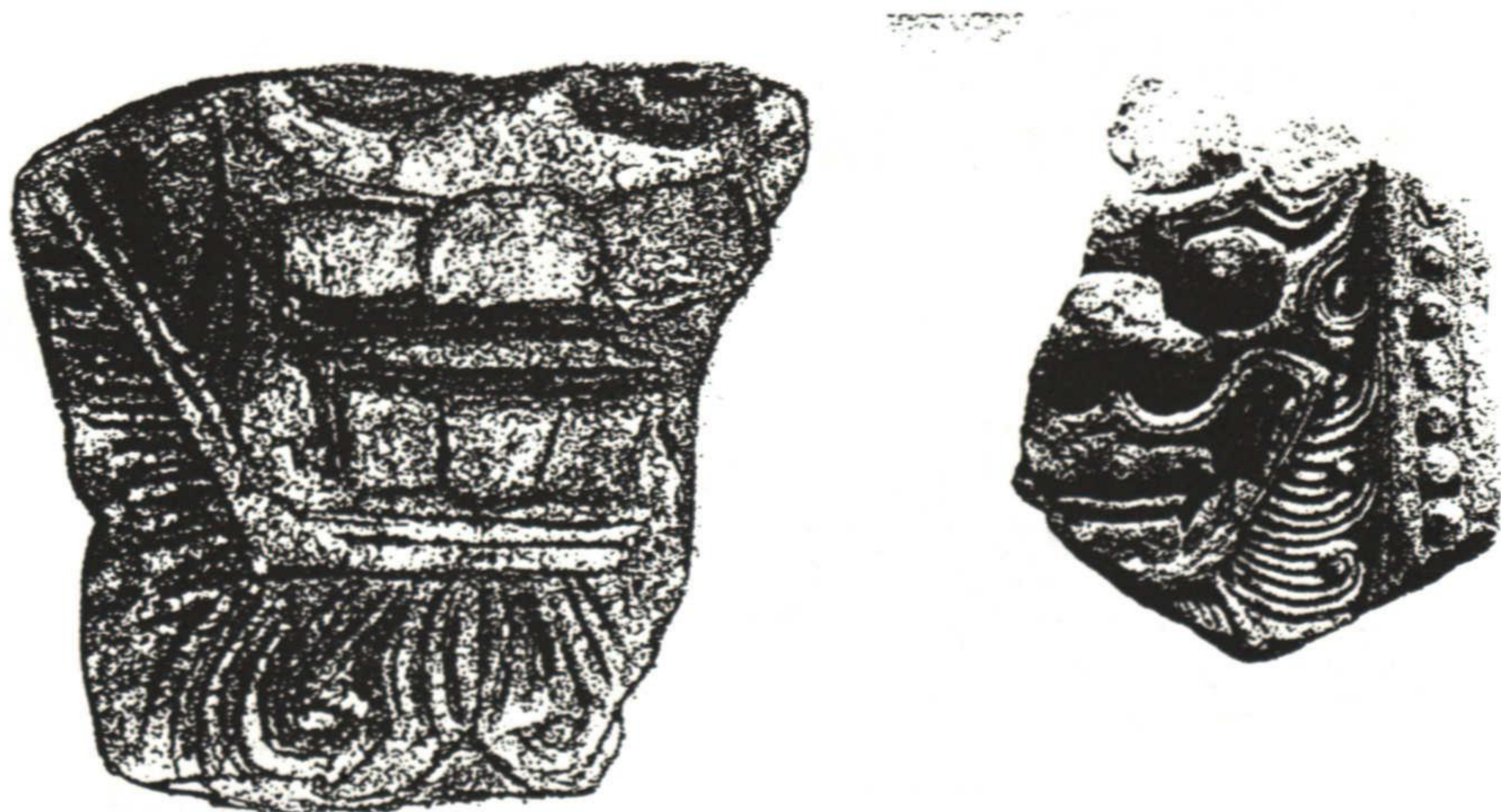
숫기와 박새 무늬부분명칭



치미의 세부명칭

신라시대 건축의 추녀마루 추정 복원도





5-1 본적사지 귀면와 파편 5-2 분황사지 귀면와 파편



5-3 분황사와 본적사의 귀면와 결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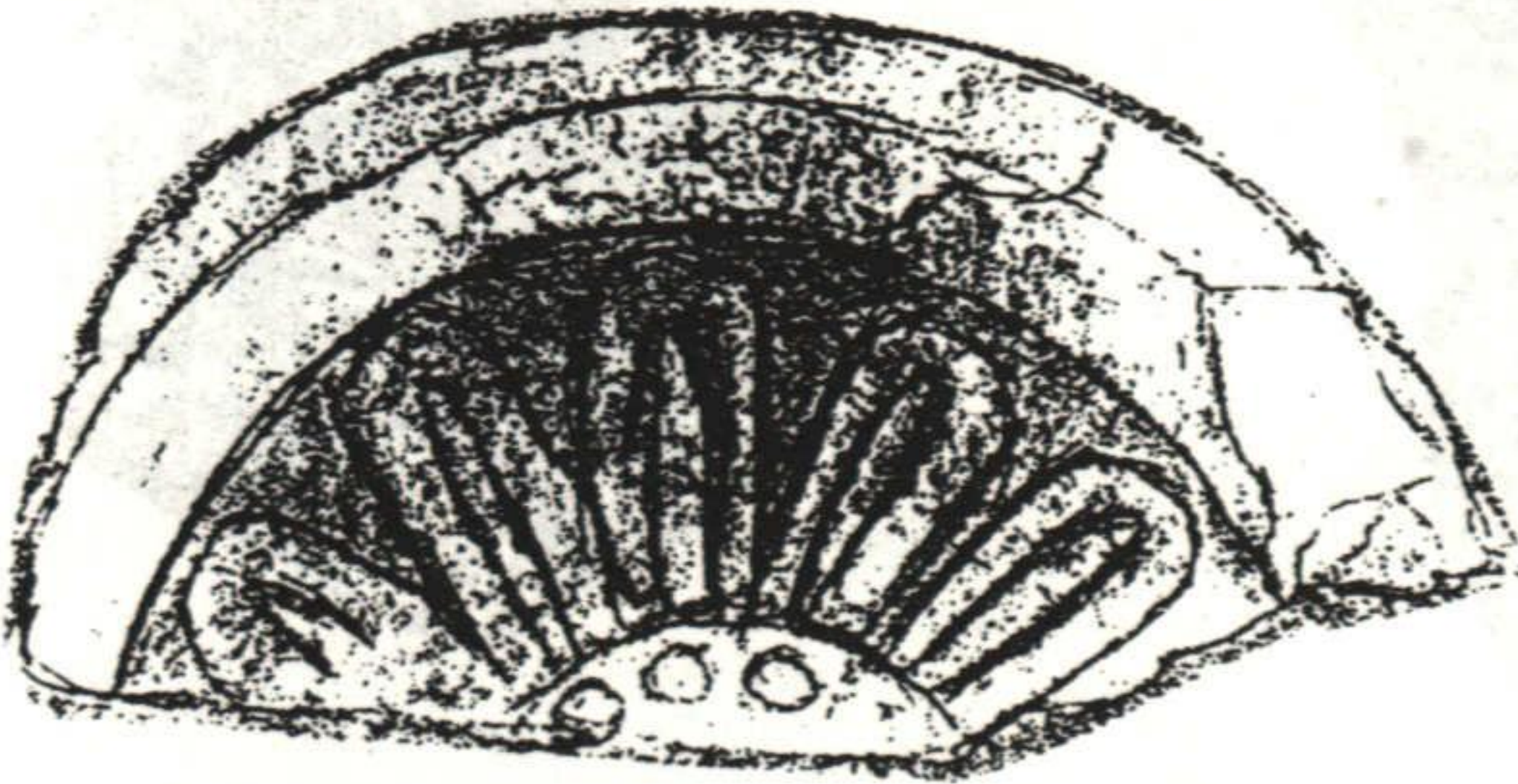
<도면 : 6> 본적사지 수막새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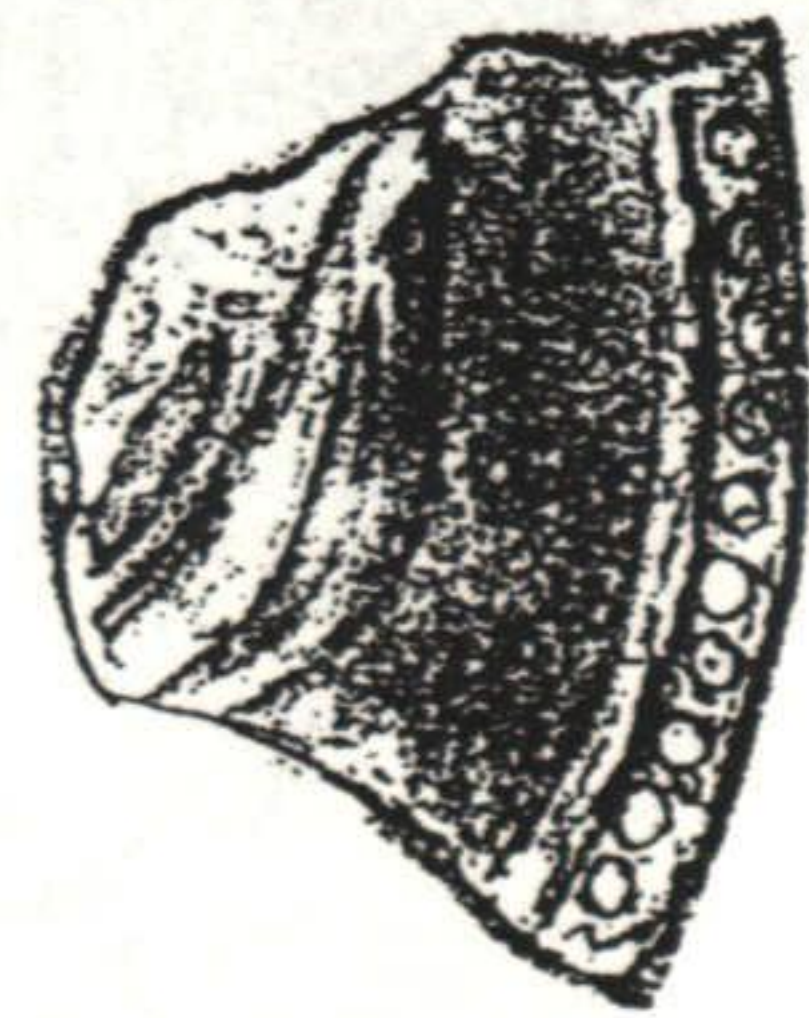
6-1 본적사지 연목기와(중판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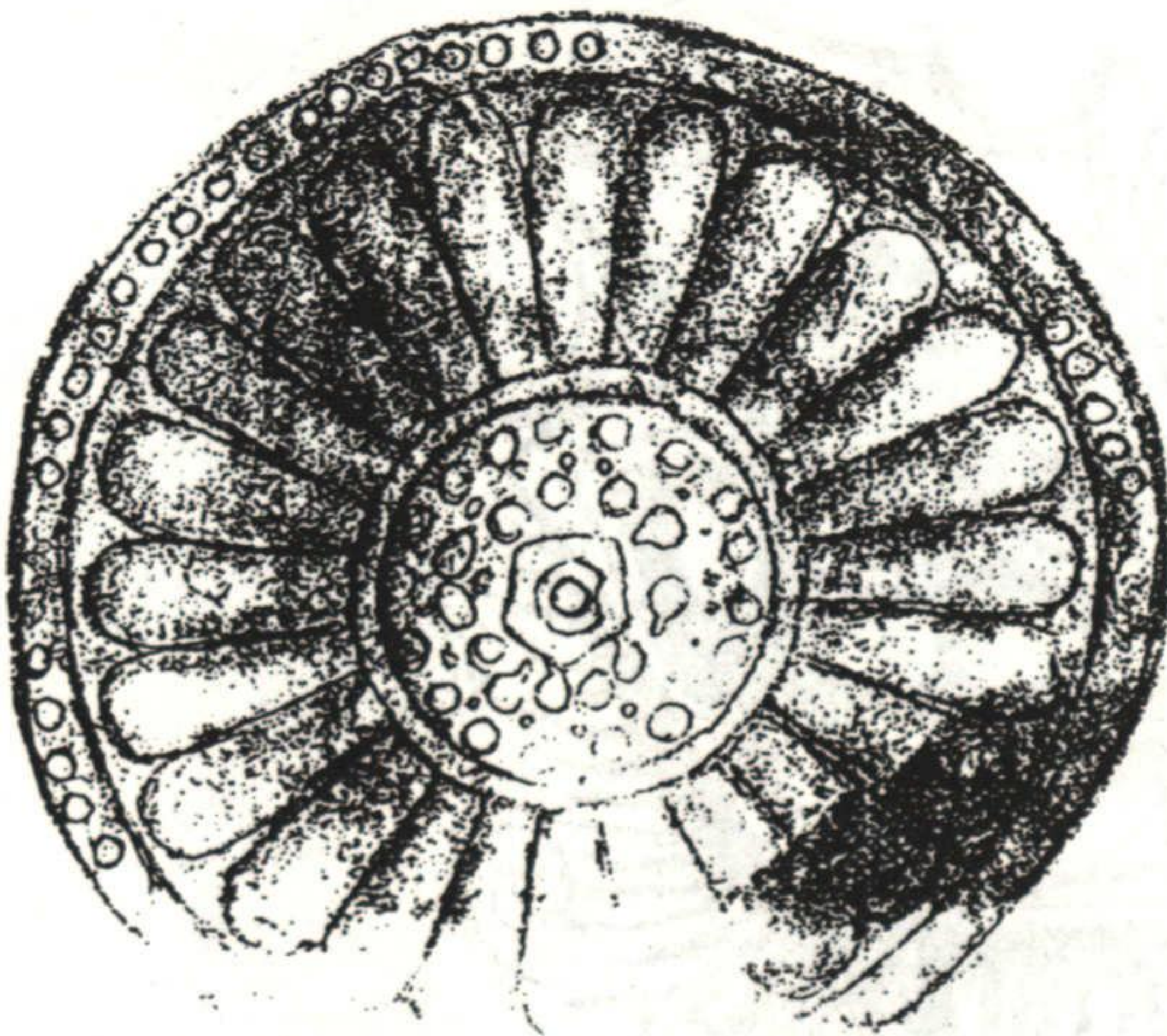
6-2 분황사지 연목기와



6-3 본적사지 연꽃무늬 수막새(북판 12엽)



6-5 본적사지 수막새(화초문)



6-4 본적사지 연꽃무늬 수막새 (세판양식 24엽)

6-6 본적사지 화초문 기와



<도면 : 7> 본적사지 수기와 단면도



7-1 무단식 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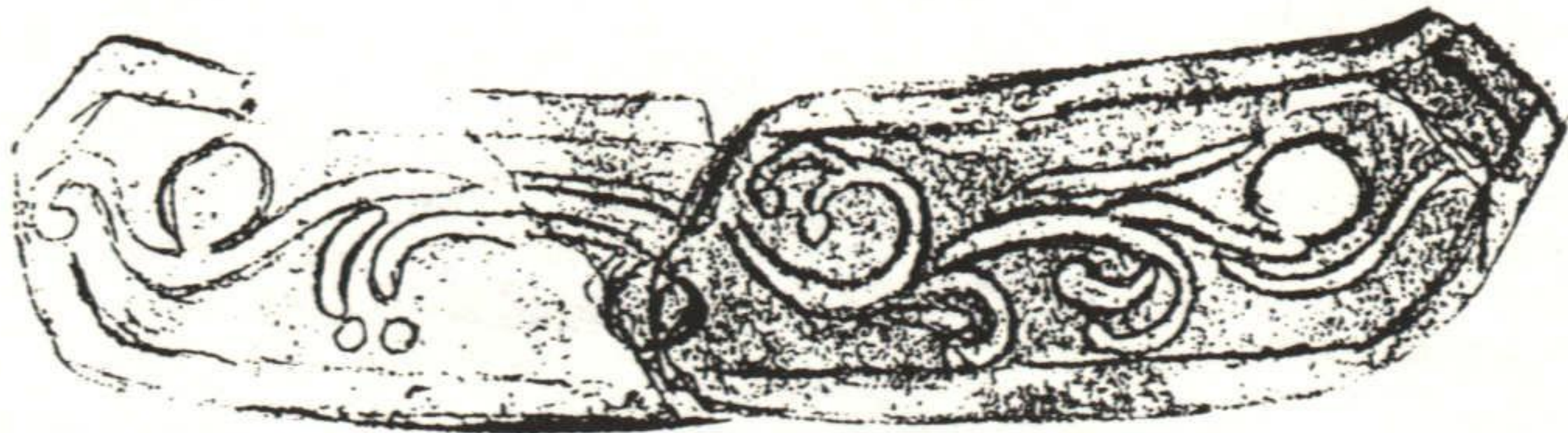


7-2 무단식 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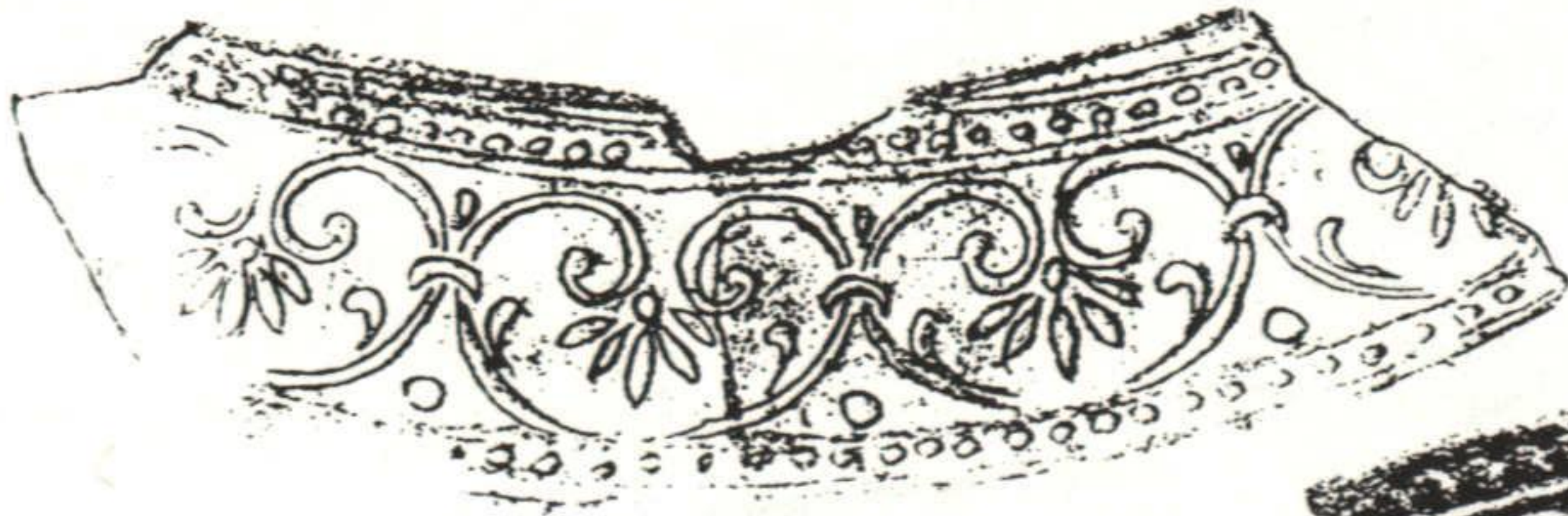


7-3 유단식 수기와

<도면 : 8> 본적사지 암막새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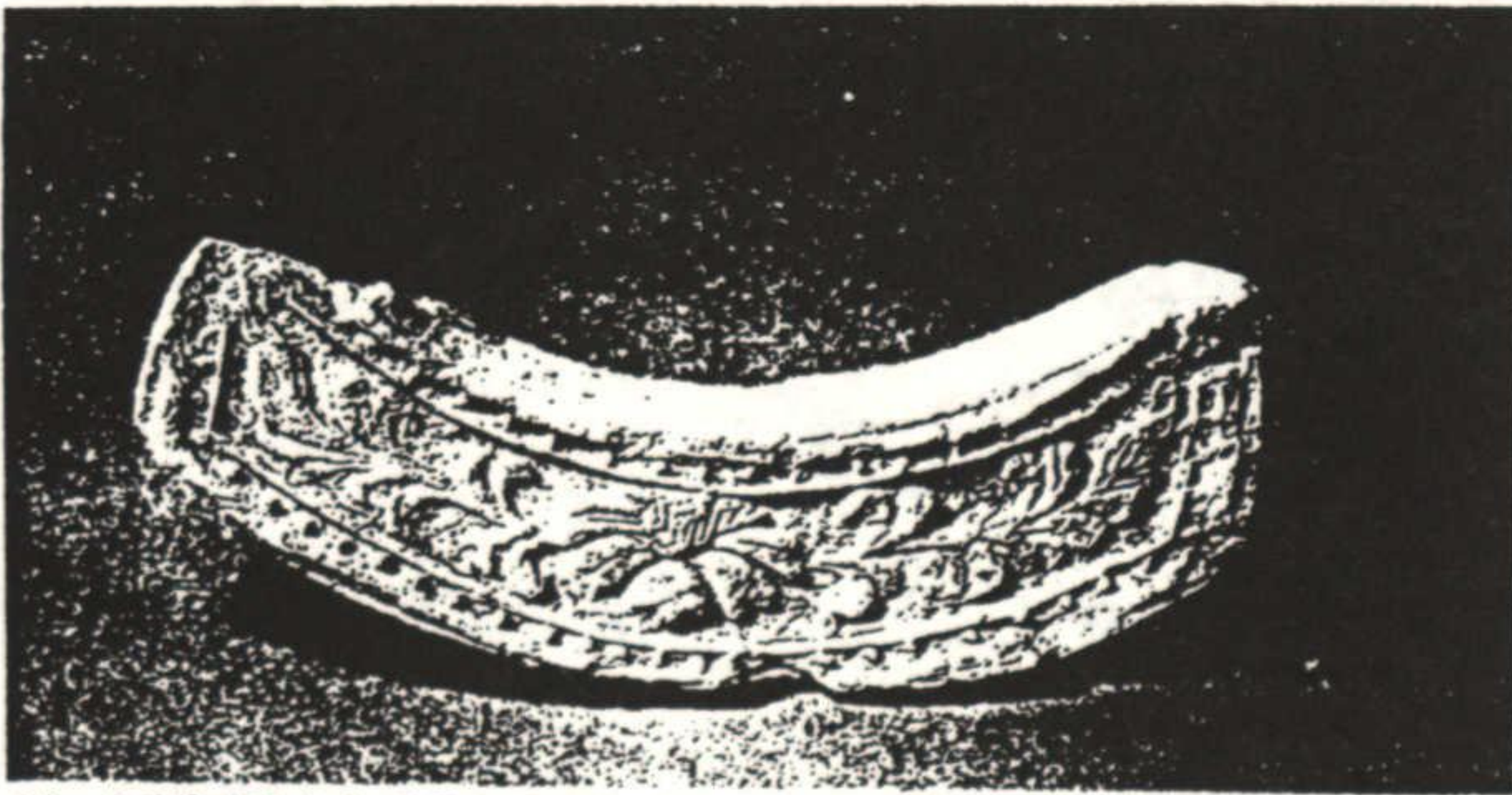
8-1 본적사지 인동당초문양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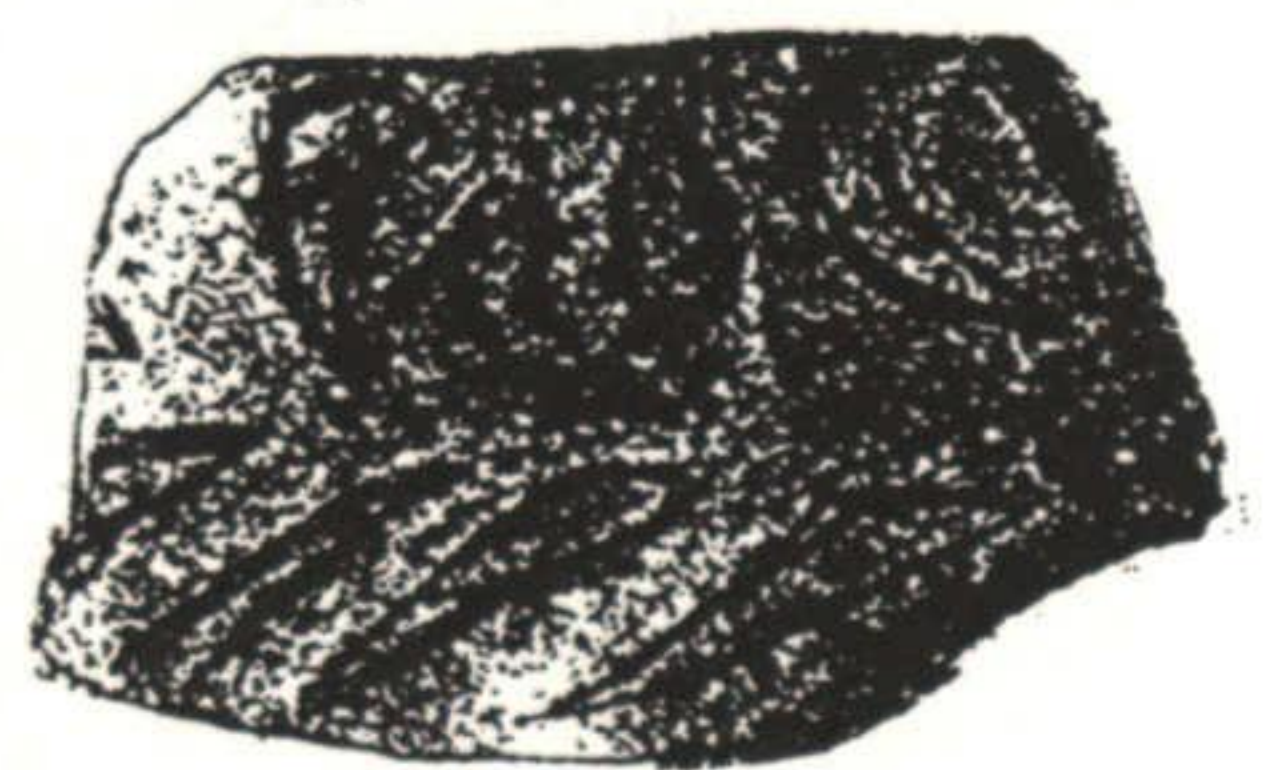
8-2 본적사지 보상화 문양 암막새



8-3 분황사지 꽃(보상화)과 새문양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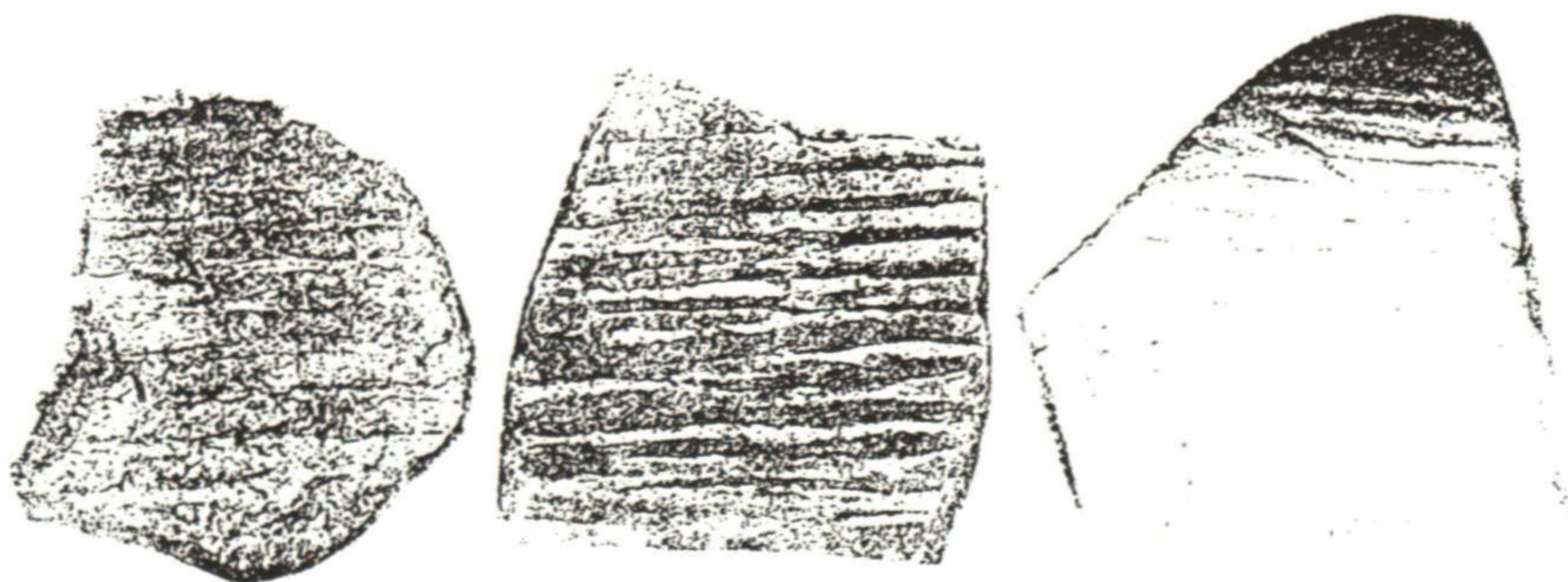


40 초화무늬암막새 草花文平瓦當 강릉 신복사지 고려시대 쪽 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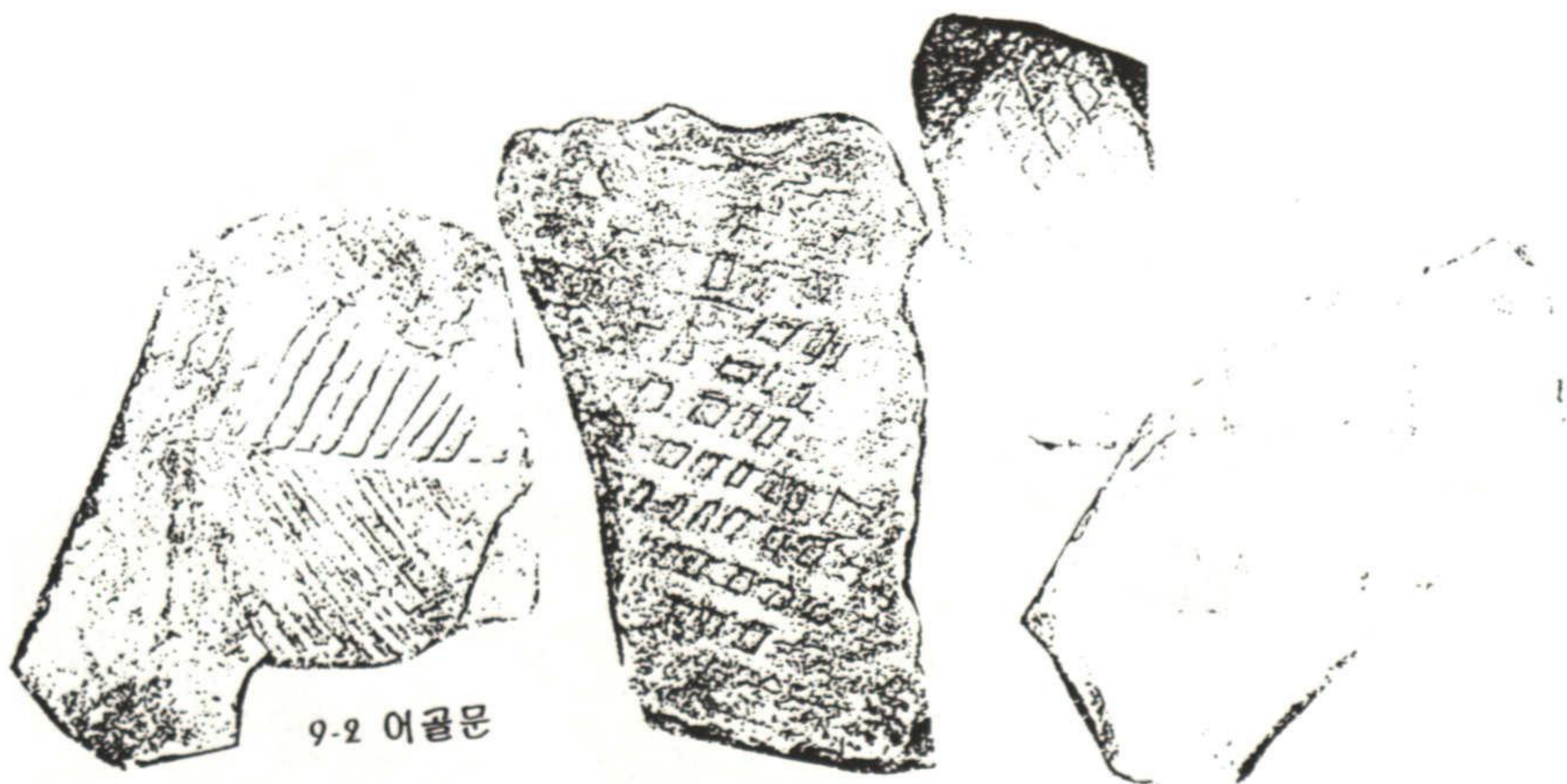


8-4 본적사지 화문문 파편

<도면 : 9> 본적사지 기와 문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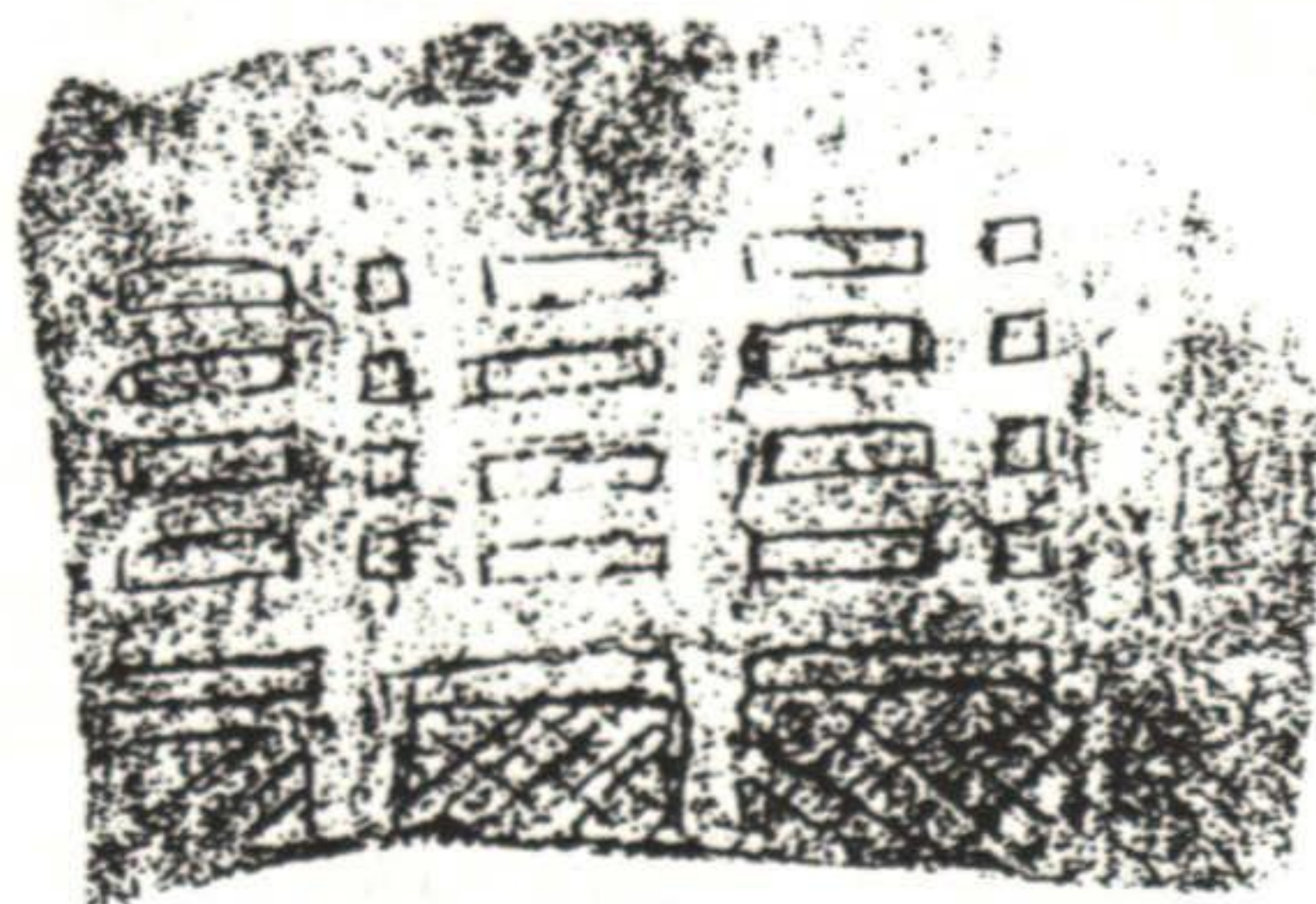


9-1 선문



9-2 어골문

9-3 격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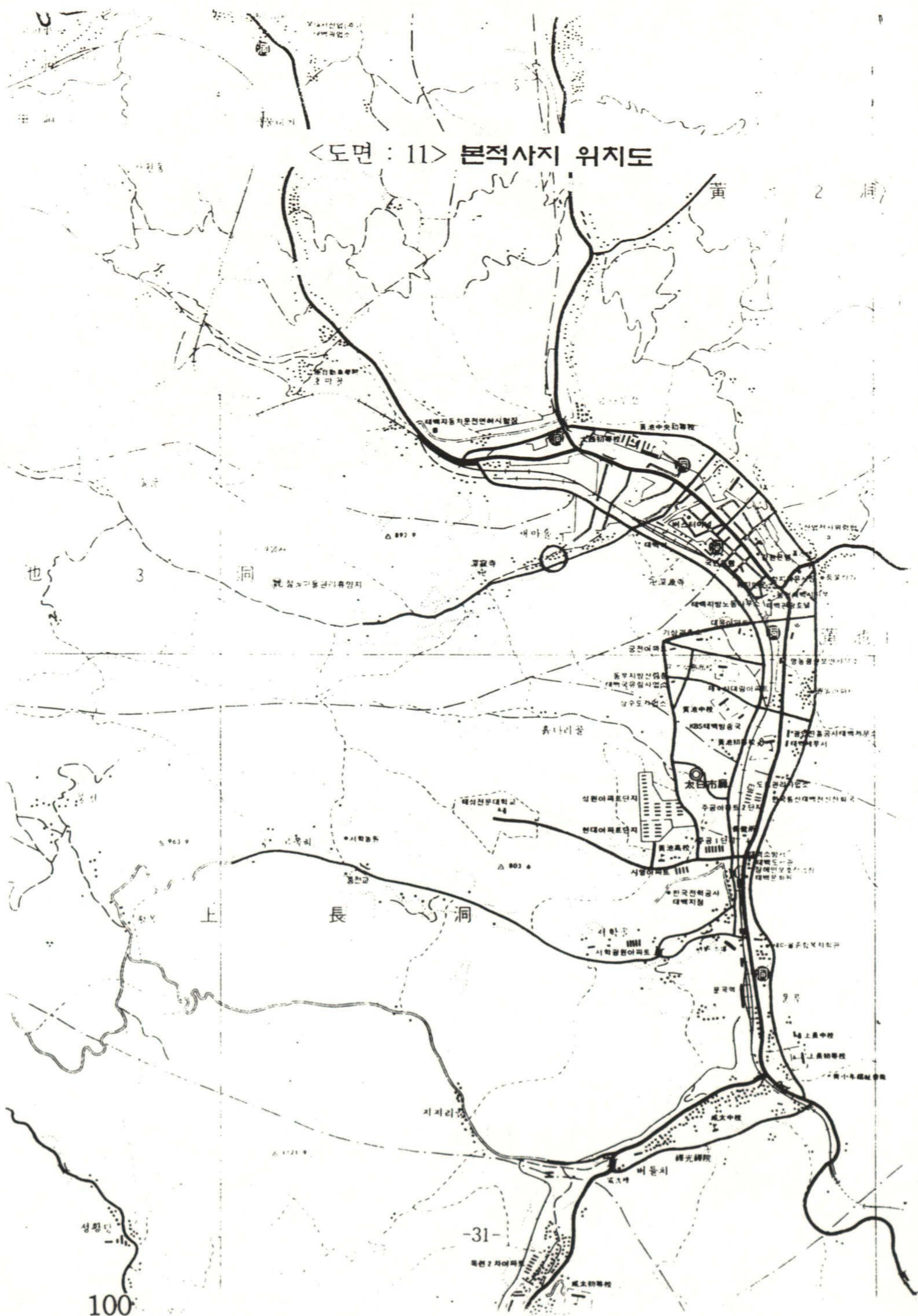


9-4 혼합형

<도면 : 12> 본적사지 부분 상세도



<도면 : 11> 본적사지 위치도



1998년 4월 23일 木曜日

江原日報

고려·신라시대 희귀유물 귀면와등 1백여점 발견

태백 본적사지 태백시황지3동의 본적사 절터에서 희귀 기와장 조각이 출토되는등 고찰로서의 값어치가 크게 인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적사 절터에서는 올해들어 삼국시대~고려시대유물인 귀면와와 보상화 연꽃 등 무늬의 기와장 조각 1백여점이 발견됐다.



이중 귀면와 조각은 신라 선덕여왕 27년(634년) 창건된 경주 분황사에서 지난 92년 발서 발견된 귀면와 조각. 굴된 기와와 조각 양식이 똑같아 주목받고 있다.

이에따라 태백향토문화연구회는 본적사 일대 문화유적의 추가발굴을 하기로 했다. 척주지와 삼척군지등 향토사 연구서에 따르면 본적사는 고려(918~1391)때 창건돼 1700년대까지 존존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太白=張星日기자>

이제까지
사적지
본적사지
쓰고 있다.
또, 이
이전, 본
의 주
강원도
이전에
잡설, 전
머지, 본
주택, 본
있다. 전

1914년
토사, 연
(918~1391)
대까지
했었다.

국개조
보아 3층가
석탑은 6
도원군
알려졌다.

신라시대
무려 3
할 때
조각
것이다.

97. 4. 24

本寂寺석탑 구조물 해체 후방치 '복원시급'

【太白】태백시 황지3동 속천 절터에 있는 본적사(本寂寺) 석탑 구조물 해체 후 방치된 상태가 계속적으로 쓰이는 등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적사 석탑은 6층으로 높이는 10m 정도에 달한다. 본적사 석탑은 1914년 토사 연(918~1391) 대까지 존존했었다. 국개조 보아 3층가 석탑은 6도원군 알려졌다. 신라시대 무려 3할 때 조각 것이다.



사진3> 이한목씨집 석탑재(하대면석, 초층 옥개석)



사진4> 초층 옥신석과 하대 갑석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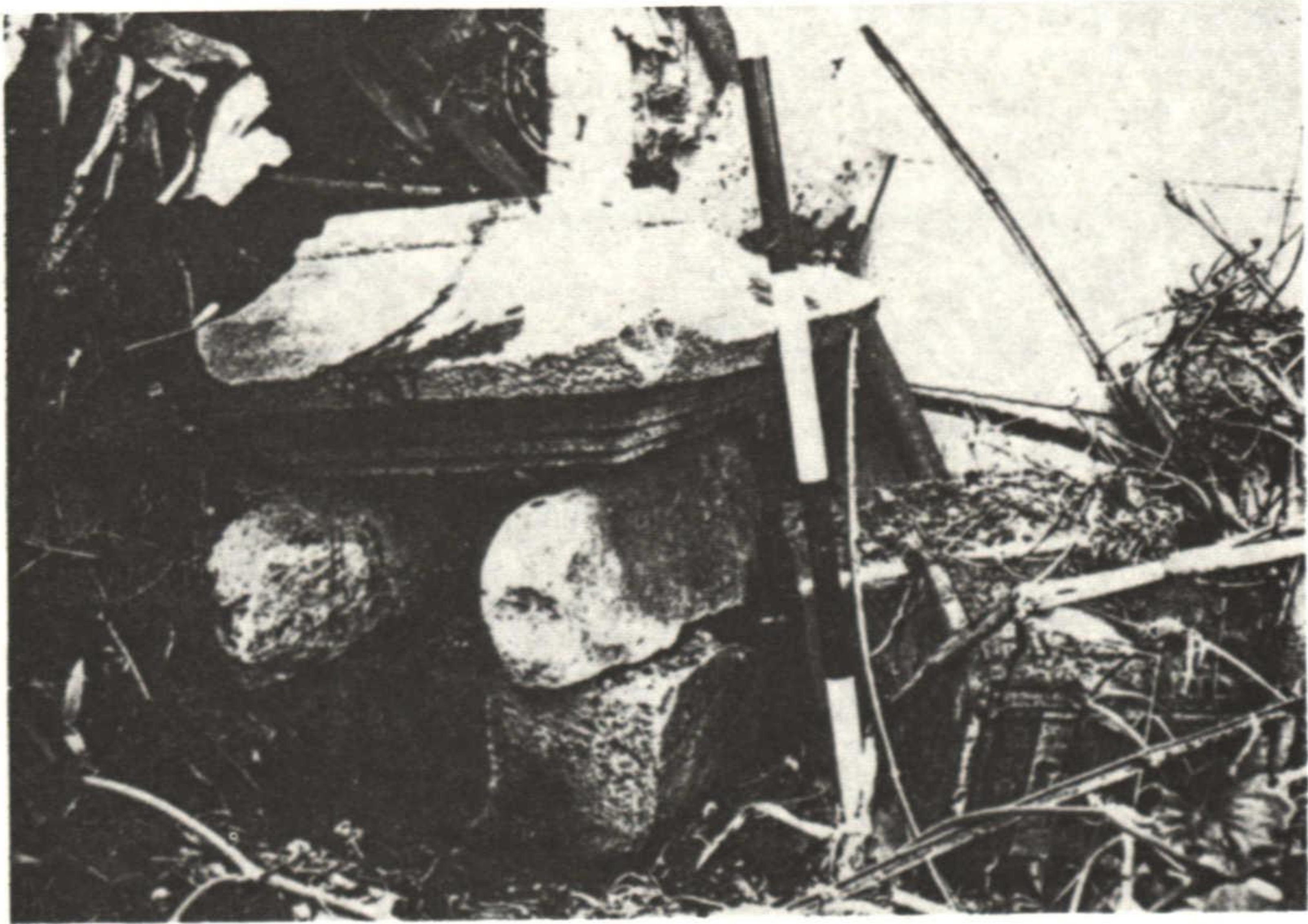


사진5> 박규현씨집 석탑재(3층 옥개석, 하대면석)



사진6> 임노미씨집 석탑재(장독대, 지대석, 상대면석, 하대감석, 상대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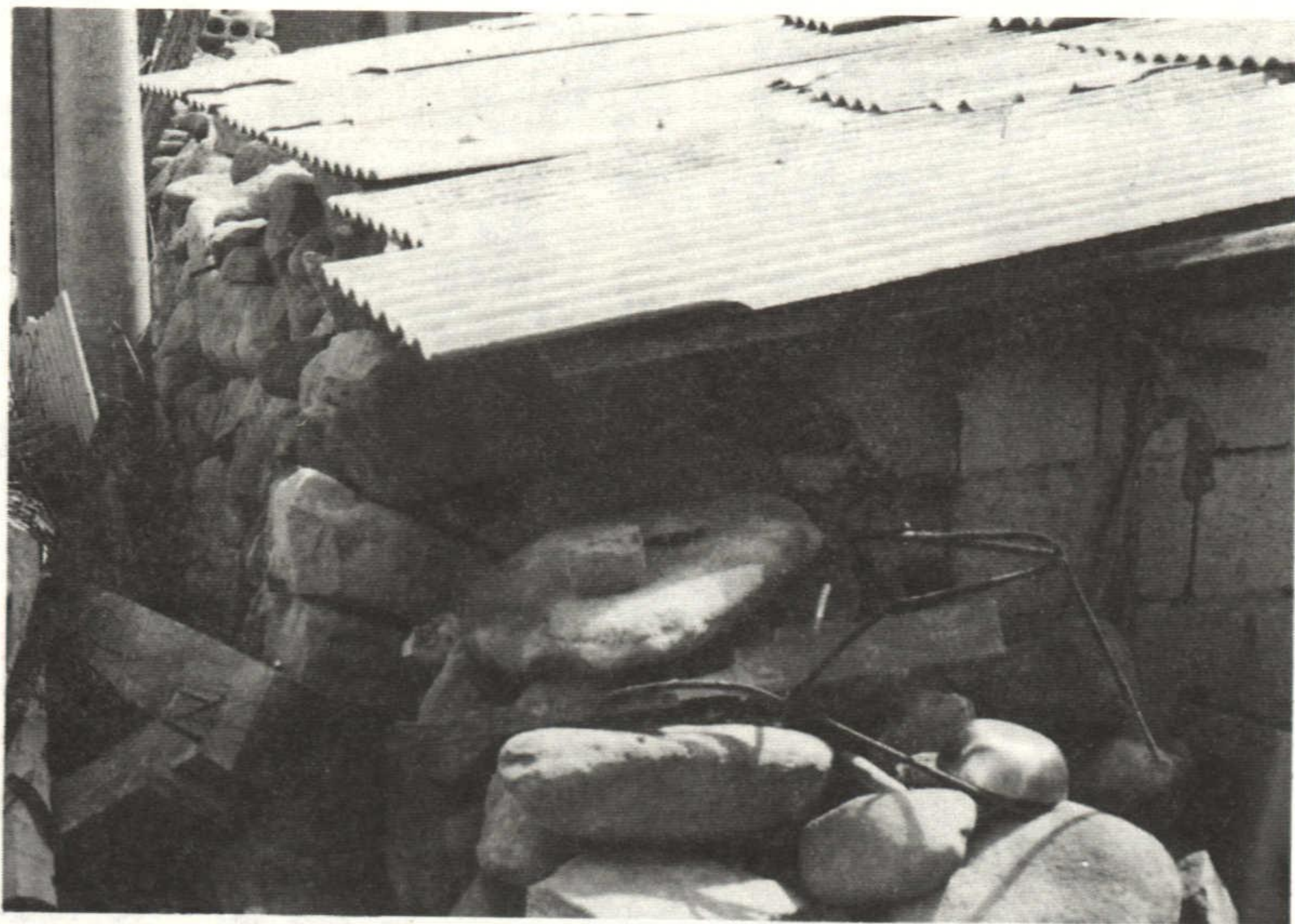


사진7> 돌담, 상대갑석



사진8> 작은방 입구, 3층 옥신석



사진9> 공사전 고사장면



사진10> 굴착 공사



사진11> 장독대 복원 미장 공사



사진12> 석탑재 이송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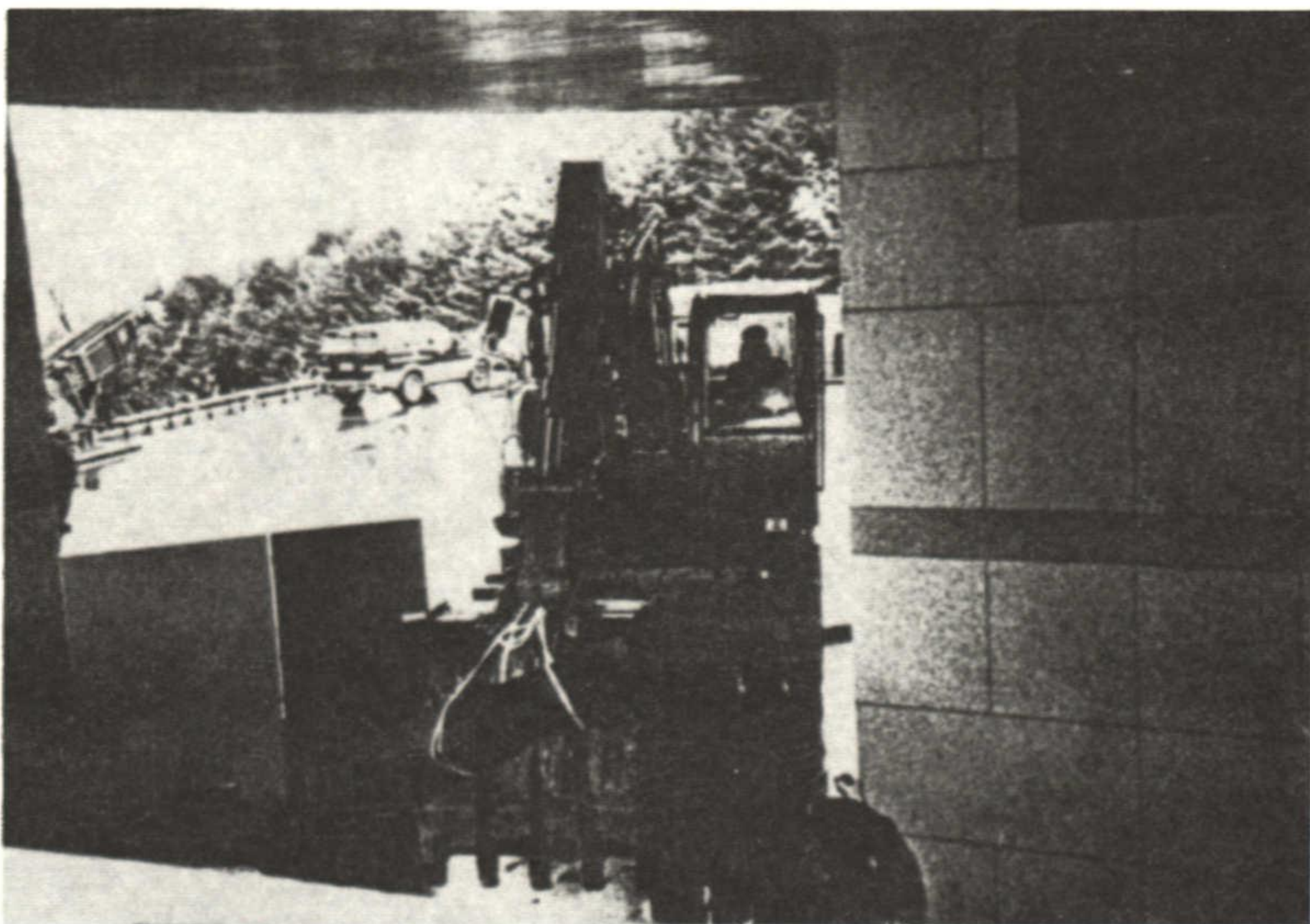


사진13> 석탑재 하차장면



사진14> 석탑재 하차 완료 장면(3층 옥개석, 하대면석)



사진15> 지대석 근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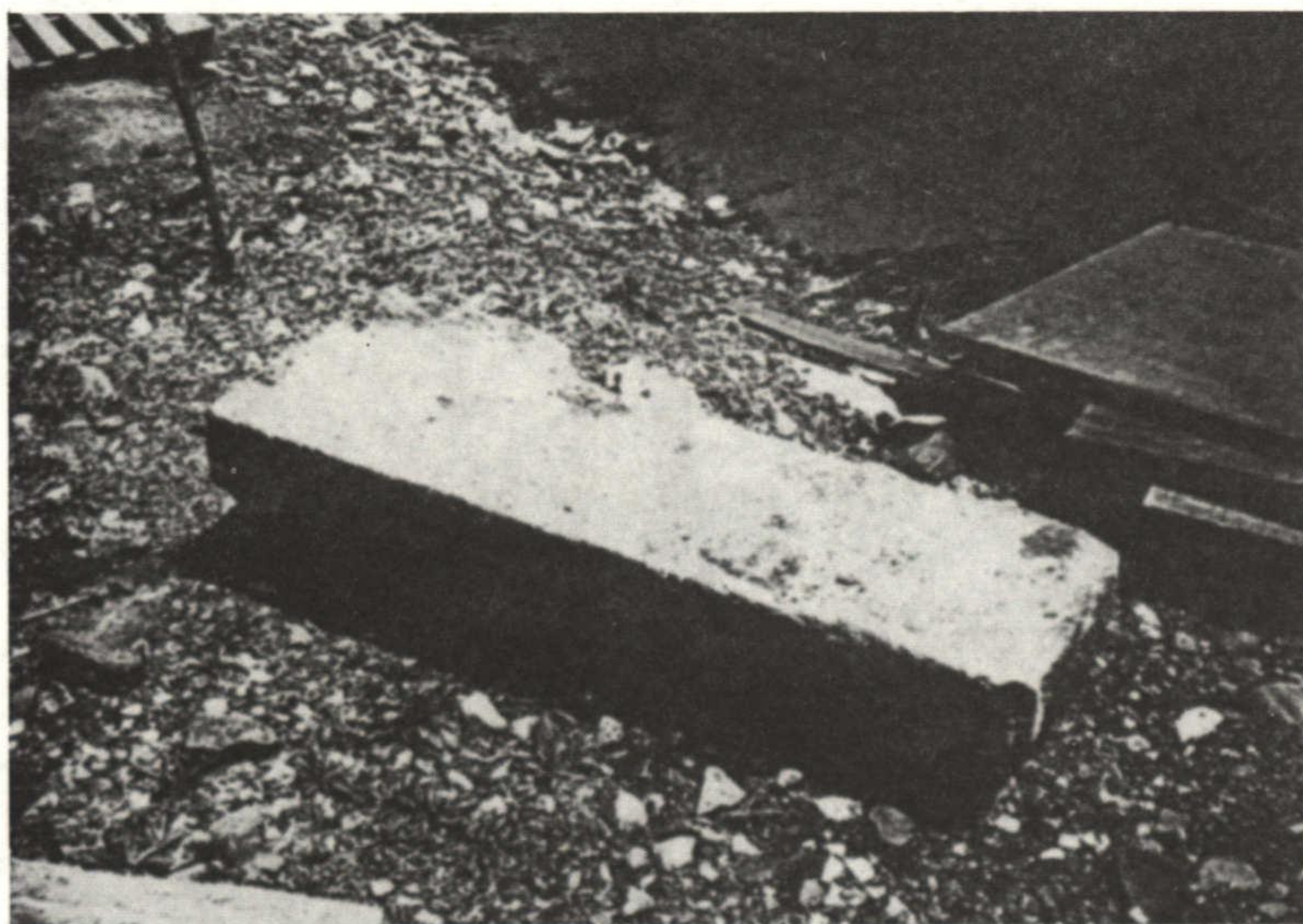


사진16> 지대석 근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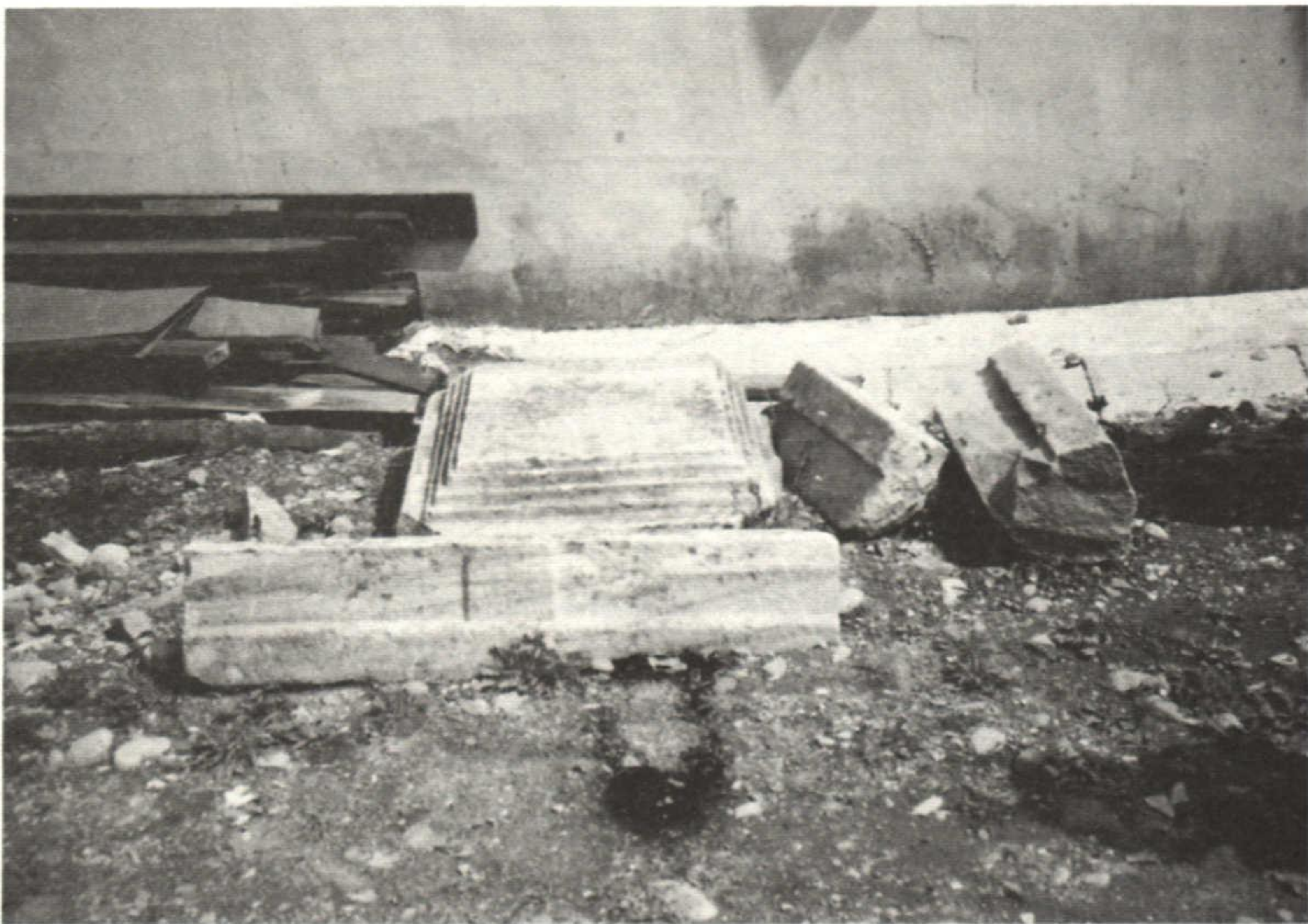


사진17> 하대면석 근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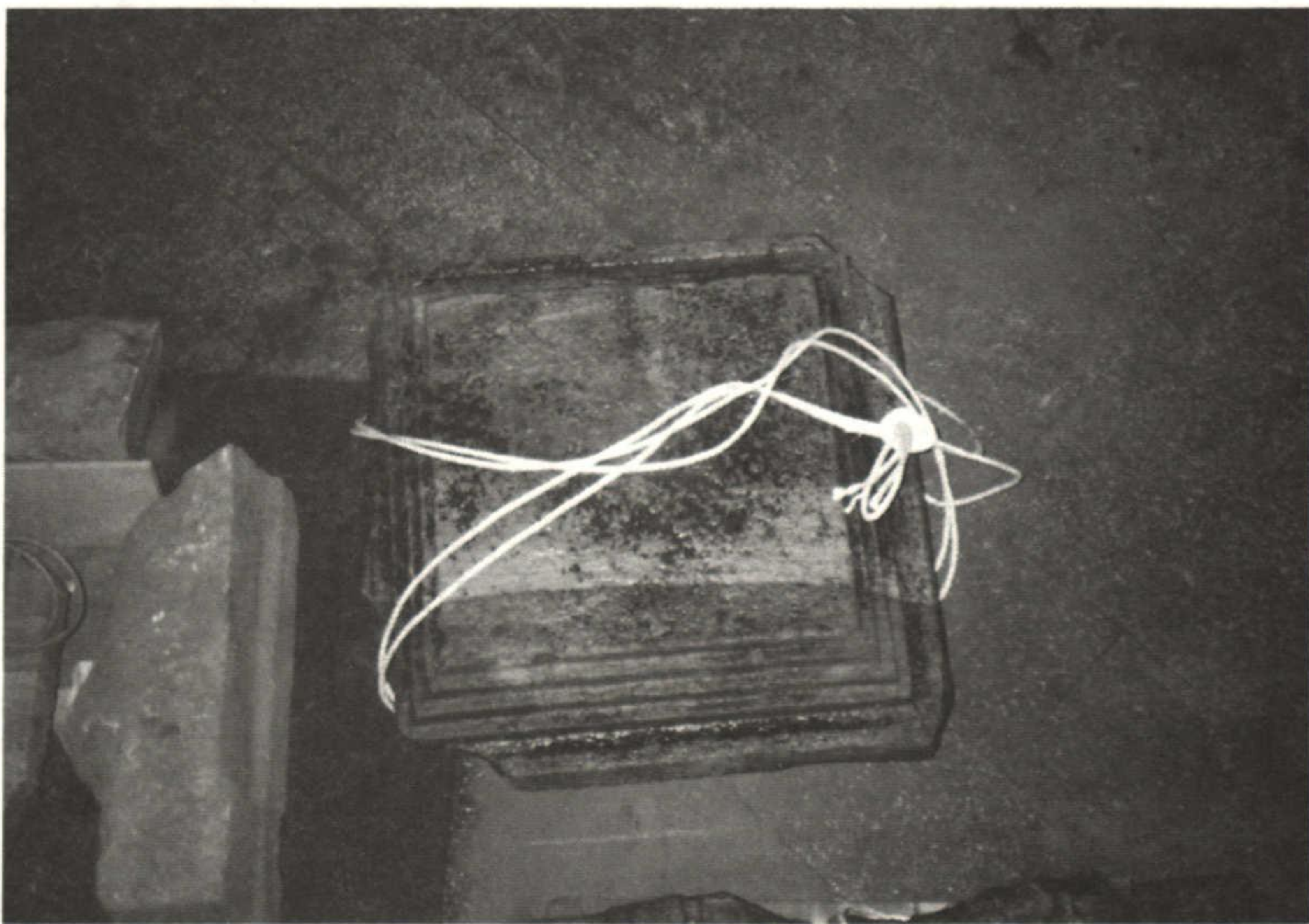


사진18> 하대면석 근경2



사진19> 하대갑석 근경1



사진20> 하대갑석 근경2



사진21> 상대 면석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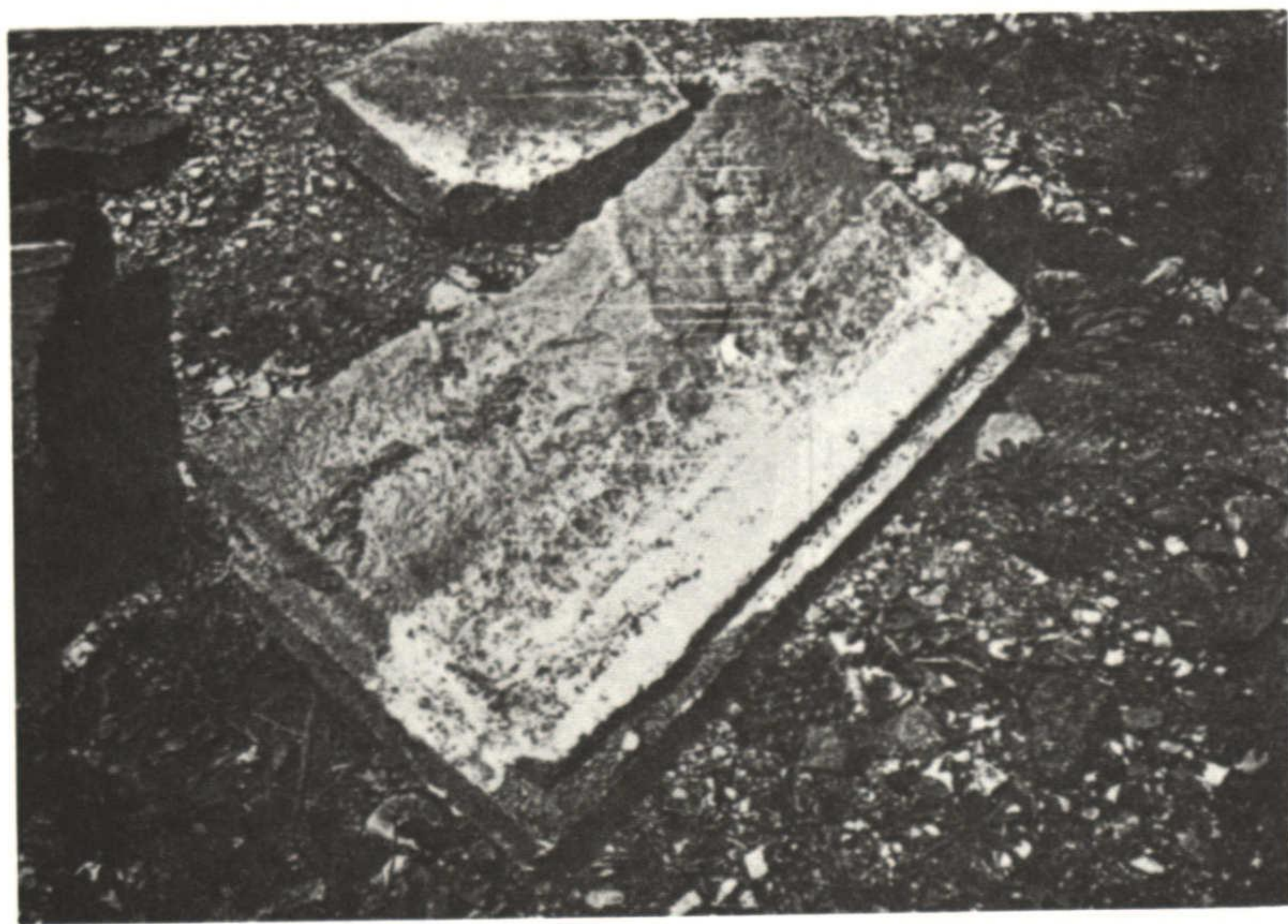


사진22> 하대갑석 근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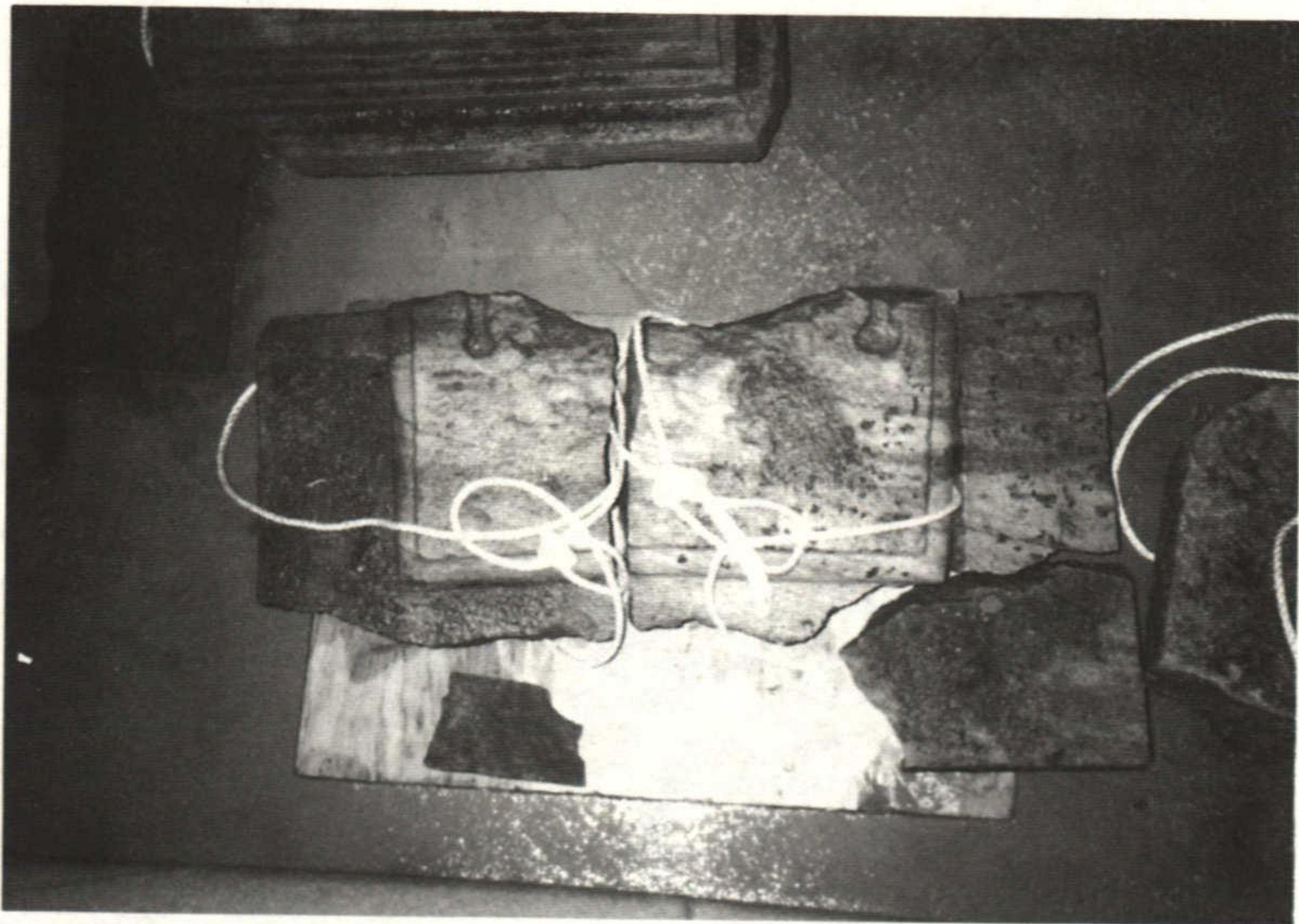


사진23> 상대 갑석 근경



사진24> 인동당초문암막새



사진25> 보상화문 암막새



사진26> 문양미상 막새기와



사진27> 귀면와



사진28> 세판양식 연화문 수막새



사진29> 복판양식 연화문 수막새와
중판양식 연목기와



사진30> 무문 기와



사진31> 선문 기와(삿무늬)



사진32> 어골문 기와



사진33> 격자문 기와



사진34> 복합문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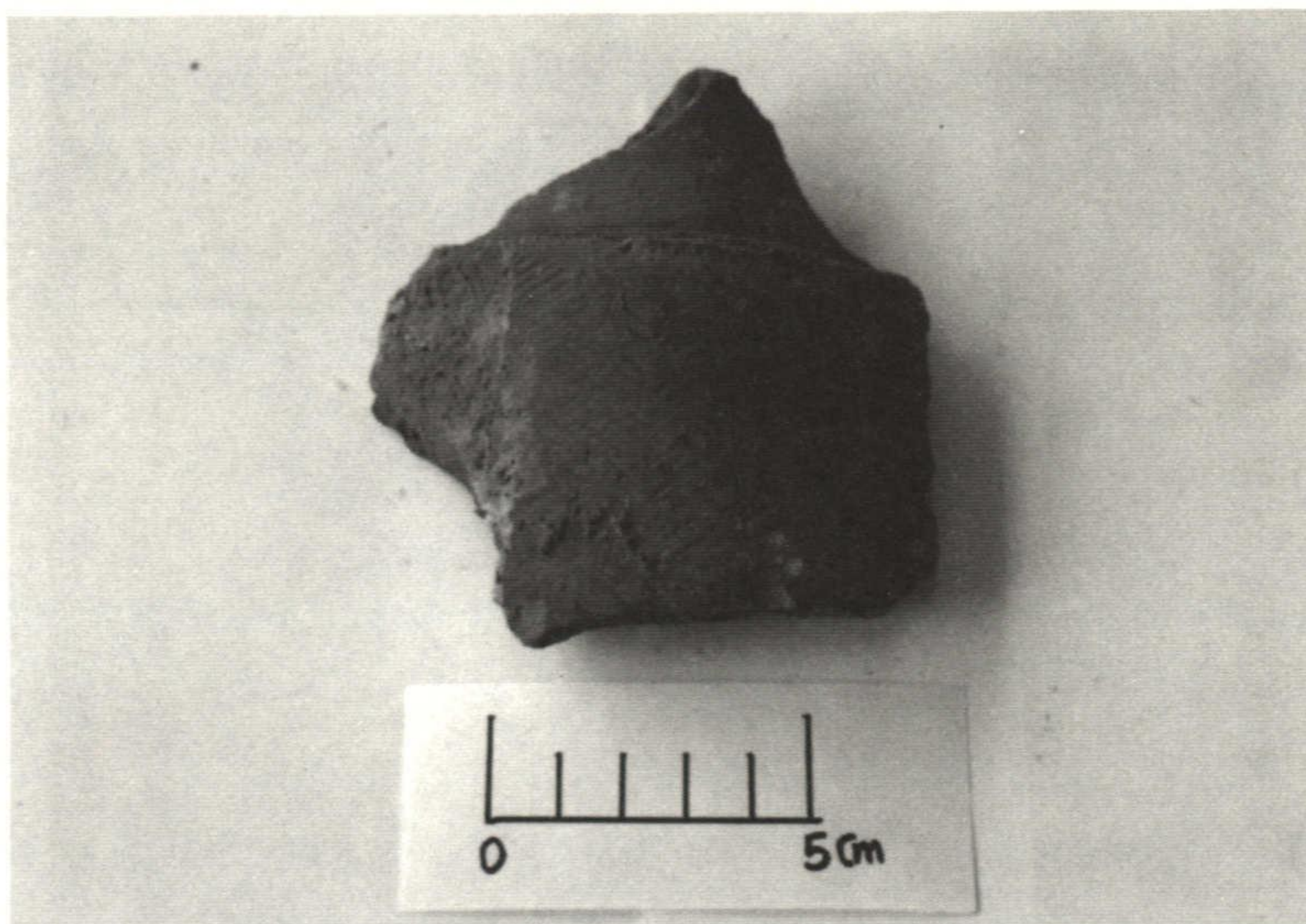


사진35> 가는 어골문 수기와



사진36> 질그릇 파편



사진37> 도자기 파편

아! 민족의 영산 태백



장 성 유
(동화작가)

민족의 원형이 살아 숨쉬는 땅 영산태백

(광명은 천추의 묘한 이치 휘둘러 인간세상 다스리네)

그 풍경은 해마다 계절마다, 아니 시시각각으로 달라서 감히 이 자리에서 그 형용을 다 열거할 수 없으리 봄이면 진달래꽃이 수줍은 처녀 볼 붉어지듯 초목 가운데 숨어 병글고, 순정을 이기지 못해 태백산 꼭대기까지 치달아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은 언제나 철쭉의 무리. 녹음 방초, 능선을 넘나드는 사람속에 주목의 자태는 고고하기만 하더니, 벌레 우는 가을 되어 1천5백고지 망경사에서 태백을 굽어보면 봉봉(峰峰)마다 만산홍엽(滿山紅葉), 그 붉은 멧등은 추풍(秋風)에 조화가 난 듯 사람의 심회를 바닥까지 휘젓고 다니고, 정상은 멀기도 멀어 운무는 짙기만 한데 설중등정(雪中登頂) 끝에 긴 숨을 토하고 돌아서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여기 저기 설화(雪花)가 피어 '월백설백천지백(月白雪白天地白)' 했던 옛 시인의 탄성이 귓전에 들릴 듯도 한 태백산, 한배달!

어둠에 묻힌 일체 삼라만상의 미명이 걷히고 큰 광명이 테를 이루며 몰려와 천왕단(天王壇)으로 쏟아지면, 주과포 차려 놓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찌 숭고해 보이지 않겠는가.

고려시대 최선(崔善)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명산은 삼한(三韓)에 많고 삼한의 명승은 동남이 가장 뛰어나고 동남의 큰 산은 태백이 우두머리가 된다.’ 고 했는데 이는 산세의 우열을 뛰어 넘어 땅의 정기가 모여서 충천하는 혹은 하늘의 정기가 땅으로 내리꽂히는 천지간의 경계로서 태백산을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교감, 천(天)·지(地)·인(人)이 하나되는 장엄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원형이 살아 숨쉬는 땅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 접근법은 그 민족 문화의 원형(Archetype)이 무엇이나 하는 의문 부호와 함께 출발하는 일이다. 구스타프 융은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원형론을 전개한 사람이었고, 베네딕트는 일본을 연구해 ‘국화와 칼’이라는 원형질을 도출해내었다.

원형이란 흔들리지 않는 피라미드의 밑변과 같은 것이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튼튼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인간의 유전자에 포함돼 전해지면서 차츰 응축되고 더욱 견고해지며, 집단적 무의식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땅에는 국시를 달리했던 술한 왕조들이 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 궤도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원형질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민족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그 예로 들 수 있을까. 한국민담의 단골 영동 할매상, 자

비의 미소를 짓는 관음보살상, 도깨비, 장승이나 솟대, 탈, 아니면 산신령....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하늘에 대한 깊은 ‘천사상(天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원시적 형태의 종교는 다분히 주술적 효과와 터부를 중요시하는 샤머니즘 경향이었고, 국가차원의 종교의식인 제천의식이 이루어졌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추수가 끝난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춤과 노래로써 제사지냈다. 이런 제례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예(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일컬었다.

각 마을에는 소도(蘇塗)가 있어 의식을 진행하는 성역이 따로 존재했으며, 성역의 중심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었다.

태백은 우리 민족의 원형이 살아 숨쉬는 땅이다. 한민족 종교의 유습이 그대로 남아 꿈틀거리는 곳이다. 태백산 산행길에 만나게 되는 소도 당골이라는 지명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태백산은 누가 보더라도 온갖 신들이 공생하는 듯한 느낌을 금방 받는 만큼 토착신앙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돌탑들이 눈에 띄고, 무녀들이 막 치성을 올리고 간 듯한 촛농 자국이 역력하다. 당골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조(國祖)단군을 모시는 단군성전이 있고 태백산 산신령이 된 단종을 위로하기 위해 비를 세우고, 5백년간 제를 올려 오고 있다.

부족 전체의 풍요를 기원했던 제천 풍습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도 제천의식의 원형은 역사를 관통해 왔다. 오히려 유·불·선을 융합하면서 복합적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광무 원년(1897년) 10월 고종은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의 원구단(圓丘壇) - 임금이 있는 덕수궁에서 정동쪽에 쌓은 둥근 모양의 제단-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에 올랐다. 이 원구단은 1913년 일제가 헐어 없앤 뒤 안타깝게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지만, 태백산 천제(天祭)는 제천의식의 유풍을 부활, 우리의 원형을 풀숲에 던

저 둔 채 서양의 빈 껍데기만 쫓고 있는 이 물질문명시대에 숭고한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고 또 다행한 일인가.

태백예찬, 백두대간의 허리요, 강토를 두루 적시는 심장!

그 위치 비정은 차치하더라도 태백산은 ‘삼국유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산이요, 그 이름을 간직한 유일한 산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천제를 부활시켜 민족의 가슴에 햇불을 밝힌 산이다.

단언컨대, 과연 태백은 민족의 영산이다. 그래서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은 태백산을 향하여 ‘푸르고 높은 산이 구름사이로 솟았구나. 사람들은 그 정상에 신령이 계시다 하니, 이 산은 분명 하늘과 땅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리라’고 경외지감(敬畏之感)을 표했던 것이다.

태백의 지세는 백두산에서 뻗어 온 백두대간의 주맥이 크게 뭉치어 그 기운을 지리산과 낙동정맥을 향해 흘러 보내는 형국이다. 사람으로 치면 가장 힘을 많이 쓰는 허리부분이다. 용이 힘을 못쓰도록 용혈을 끊자면 그 허리를 자른다. 태백의 지맥에 땅의 정기가 출중하게 모인 것은 지당한 일이다.

또 태백은 남방의 강토를 두루 적시는 강물이 첫걸음을 떼는 수원지(水源池)가 셋에 이른다. 검룡소(儉龍沼) 검푸른 물은 남한강을 거쳐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이루고, 황지(黃地)의 불끈불끈 치솟는 힘은 낙동강 1천3백리에 뻗친다.

여기에다 오십천 굽이굽이가 동해로 곧두박질치며 들어간다. 이로써 태백은 동해·서해·남해와 교통하는 산이 되었으니 그 의미는 상고 이래로 대단한 것이다. 태백산을 백두대간의 중추, 허리라고 한다면, 황지·검룡소·오십천의 원류로서 수원지는 이 강토의 심장 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세와 천기가 어우러져, 태백의 기운은 상·하·수평으로 마음껏 자유자재하다. 태백산 천왕단이 천(天)의 하강작용이라면 황

지와 검룡소는 지(地)의 상승욕구를 상징한다. 옛부터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 해서,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고 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수굴(水窟)에서 솟구친 황지의 물은 수평작용으로 30리를 달려 산을 뚫고 구문소(求門沼)를 만든 뒤 힘차게 용출해 버린 것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3과 9라는 종교적 숫자

천제를 지내고 있는 태백산 천왕단은 유례를 찾기 힘든 큰 제단이다. 이 독특하고 신령스럽기까지 한 제단은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한다. 이 천왕단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3과 9라는 종교적 의미의 숫자다.

천왕단을 중심으로 약 3백m 떨어진 북쪽 봉우리에 장군단(將軍壇)이 있고, 천왕단 남쪽 아래에 또 하나의 적석단이 있다. 이 세 제단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복삼(福三)’이라고 해서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숫자 3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종교적 의미의 숫자 3은 완전 무결함을 뜻한다. 세 개가 한 짝을 이루는 트리아드개념의 예는 일상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동학의 천·지·인, 기독교의 성부·성자·성신, 불교에서는 법당에 삼존(三尊)이라고 해서 부처님 세분을 모신다. 천신(天神)의 아들인 환웅(桓雄)은 천부인(天符印) 세 개, 곧 거울·방울·칼과 무리 3천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천하를 교화 했다. 또한 세명의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로 하여금 360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했다. 3이란 숫자는 세상을 처음 여는 성스런 숫자다. 이렇게 볼 때, 천왕단과 장군단 남녘의 적석단(하단)은 하늘의 형상을 땅 위에 재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릉의 진또배기제를 보면 여성황당, 남성황당, 솟대가 따로 있어 제를 지낼 때 여성황당, 남성황당을 거쳐 마을의 중심인 솟대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태백산 정상의 천왕단, 장군단, 하단에서 함께 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고해 볼 만하다. 다만 그것이 천제의 고유한 형식이었는지, 다른 종교의 색채가 가미되어 나타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숫자라면, 9라는 숫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땅의 숫자 9는 지상지고(地上至高)의 숫자다. 오늘날과 달리, 예전의 천제단은 아홉 단으로 되어 있어 ‘구령단(九靈壇) 혹은 구을단’이라 불렀다. 또한 제물도 9종이었다고 한다.

9라는 숫자의 상징은 서양인들의 종교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신들이나 죽은 사람의 혼령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하늘을 오른다고 믿었다. 피라미드 관련 문서들에 보면 이집트 왕들이 죽어서 하늘로 갈 때 타고 올라갔다는 사다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네팔의 망가르족도 죽은 사람을 위해 사다리를 마련해 준다. 그들은 약 1m쯤 되는 통나무 두 개를 무덤의 양 옆에 세워놓고 기둥에 아홉 개의 층대나 눈금을 새겨 놓는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 하늘로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태백산 천왕단은 딱 한 번 허물어진 적이 있었다. 공비 침입으로 입산이 금지되던 6·25동란 때 태백산 정상에 헬기장을 닦으면서 였다. 그 뒤로 아홉 단이 뚜렷했던 ‘구령단’의 영모한 모습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자승자박하는 우매한 권력의 식견에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구령단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퇴우(退牛)에 관한 단상

천제와 관련된 기록으로 흥미로운 것은 퇴우(退牛)에 관한 내용이다. ‘동국여지승람’은 ‘고을 사람이 봄 가을에 제사하고 신좌(神坐)앞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돌아 보지 않고 달아난다. 사흘이 지난후 부(府)에서 그 소를 거두어 가니, 퇴우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뒤돌아보면 재앙이 따른다고 했다. 퇴우이야기는 ‘척주지’에도 기록된 바다. 희소한 기록 중에 퇴우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퇴우 의식’을 특별히 중요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분히 엽기적인 호기심이라도 좋다. 필자는 ‘왜 소를 머리만 가져가면 쉬웠을 텐데 죽이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모시고 간 것일까?’

‘3일 뒤 소를 거두어 갔다면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 종종 상상에 빠지곤 했다.

가축을 제물로 삼은 데는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하늘의 재산을 축낸 데 대한 용서와 감사의 뜻이 가장 강했다. 그 방법으로 가장 큰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 서양의 고대 문명 시대에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머리를 붉게 물들인 소년과 붉은 숫소가 함께 제물로 바쳐졌다. 13세기에서 16세기에 존속했던 멕시코 아즈텍인들은 해마다 열리는 7월 축제 전날 산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했다.

옥수수신으로 분장한 젊은 처녀는 사원 지붕 꼭대기에서 신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 처녀의 머리는 잘리고 가슴이 찢기고, 곧 박동하는 붉은 심장이 태양을 향해 반들어졌다.

그러나 퇴우 이야기는 천제단이 서양과 같은 ‘피의 제단’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말해 준다. 신을 위로한 천제단의 소는 3일 동안 천신과 합일된 채 풀을 뜯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상으로 다시 내려왔다. 서양의 제단은 신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절대 복종

의 상징이었지만, 우리의 천제단은 천·지·인의 융화와 공존을 의미했다.

그 뒤의 퇴우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상상의 몫이다. 소가 귀하던 때였으니 그 소를 다시 부렸을 까. 조선시대 선농단에서 제사 지낸 후 그 고기로 설렁탕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를 떠올려 보더라도, 종교 제의가 끝난 희생 제물로서 퇴우는 한바탕 잔치마당에서 골고루 분배되었으리라 유추된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하는 산제나 당제를 봐도 그렇고, 현대 종교 카톨릭의 성체 모시기도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즈텍인들은 밀가루 반죽과 꿀로 신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종교 제의가 끝나면 그 신상을 쪼개어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이는 제물을 통한 신성(神性)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군신앙과 제천의식의 습합에 대해

그런데 한 가지, 태백산 천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들은 묻는다. 태백산 천제가 우리나라 국조인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천제 지내는 당일 단군 영정이 천왕단에 올려지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실제로 개천절에 천제단에서는 두차례의 천제가 올려지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실제로 개천절에 천제단에서는 두차례의 천제가 올려지는데 먼저 지내는 태백산 천제 위원회에서는 천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며 하늘을 상징하는 28수기를 벌려 세우고 하는데 뒤에 지내는 대종교에서는 천왕단에 단군 영정을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여기저기 언급되는 신문기사나 칼럼을 보면, 태백산 천제를 아예 단군을 모시는 단군제라는 식으로 써버린 경우나 천신이니 단군이니 하고 대충 뭉뚱거려 짬뽕을 만들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유한 형식으로 지내오던 제천의식에 단군신앙이 습합된 채 일정 기간 진행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종교정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천제는 슬쩍 대종교에 흡수되어 10여년 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천제와 단군제는 엄격히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신단수’ (神壇樹)는 하늘신이 내림하는 곧 ‘신내림나무’ 라는 뜻이다. 단군은 제정일치시대에 제사와 정치의 양권을 담당했던 제사장이기도 했다. 이미 천신사상이 단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천신사상은 개국신화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 비단 고조선의 단군예만이 아니다. 고구려의 시조가 된 하느님의 아들(天帝子) 해모수(解慕漱)는 웅신산(雄神山)에, 가락국 시조 김수로(金首露)는 구지봉(龜旨峰)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는 양산(陽山)에 강림했다.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곧 단군의 삼신(三神)을 한 하느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 신라 때부터라는 설이 있지만, 엄격히 대종교의 역사는 1909년 나철(羅喆)이 교단을 조직하면서 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더라도 천제의식은 단군제와는 그 성격이 대별되지 않을 수 없다. 천제의 신앙 대상은 단군신앙에 비해 추상적이지만, 보다 우리 민족의 원형에 근접한 제천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얘기는 단군신앙을 천제단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단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으며, 어느때 누구든지 가서 엎드리면 하늘은 곧 땅의 인간에게 감응 할 것이다. 단군은 한민족의 조상이며, ‘한국의 얼’ 을 대표하는 신, 우리 민족 수호신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분이다. 다만 천제와 단군제는 그 고유한 성격으로 각각 공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3년 단군전을 짓는다고 각계 언론이 떠들썩 할 때, 우리는 보았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 대표들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터무니 없는 신화라며, 어서 우상의 제단을 걷어치우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아무리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물질만능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민족이 그 고유한 원형을 잃어버린다면 자멸이 뻔하다. 그 민족의 원형질이야말로 민족을 가장 민족답게 만드는 바탕이며, 세계사의 한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추진력’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백에서 시작하는 ‘한민족의 서곡’

‘한민족의 서곡’ 을 쓴다면 필자는 태백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싶다. 우리민족의 원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하는 땅!

21C를 내다보는 세계화의 시대에 민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작은 문제를 다루는 소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애써 안간힘을 쓰며 부인할 필요 없다.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민족은 세계화의 학교, 세계화의 온실’ 이라는 말은 결코 헛되지 않다. 유럽연합이 민족의 종말을 가져올 수 없으며,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인류는 더욱 민족에 대한 강렬하고도 숙명적인 동인(動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민족의 영산, 태백!

민족의 원형이 살아 숨쉬는 땅.

하늘과 땅이 만나서 천지 운행의 기운이 상통하는 곳. 새 역사의 장은 이미 마련되었다. ‘격암유록’ 에는 태백산과 소백산, 양백지간의 정기로 새시대를 열 성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후천개벽할 것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그 때가 임박했다한다.

영산, 태백!

그 지친 노동의 짐을 풀고 이제 한없이 깊고 끝없이 전개되어 온 이 인류사의 사랑과 신앙을 만방(萬方)에 펼칠지어다.

축사(祝辭) 해제(解題)



金 剛 山
太白郷土史研究所長

얼마전 태백시로 편입된 사조동 일원에 지명 조사를 나갔다가 조탄동에 사는 신갑선(辛甲善)씨 댁에서 복사 본으로 된 축사(祝辭)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이 글은 도릉장(桃陵章)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가지 주문(呪文)을 망라하여 필사되어 있었는데 원본은 삼척시 하장면 거주 신창선(辛昌善)씨 댁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23×17cm 규격의 책인데 조선조 후기에 쓰여진 것 같으며 기존의 불경(佛經), 도가서(道家書)등을 베끼고 일부 창작한 내용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송산(松山)이란 호(號)를 가진 신씨가(辛氏家)의 선비가 필사(筆寫)한 책으로 책 말미에 송산농필(松山弄筆)이라 썼듯이 유장한 달필로 써 내려간 글이다. 글자는 정자(正字) 략자(畧字) 간화자(簡化字) 속자(俗字)등을 두루섞어 행서(行書) 초서(草書)로 쓰고 한글은 고문체(古文體)로 써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글이다.

축사(祝辭)라고 이름 붙인 이 글은 토속신앙(土俗信仰)에서 천지신명 등에게 비손하는 말을 적어 놓은 것인데, 선비의 입장에서

제법 글줄이나 읽은 것을 적당히 가미하여 말하자면 좀 유식하게 비손하는 글인 셈이다.

문장의 흐름은 입춘장(立春章)이나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였고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관련된 문구와 천지개벽과 중국의 상고의 왕과 성현들, 우리나라의 도읍지와 건국왕들을 들추며 유불선(儒佛仙)삼교를 복합하여 문장을 만들었는데 병이 난 사람이 천지신명과 그 밖의 여러 신들에게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비손하는 내용이다.

뒤쪽에 원문(原文)을 싣고 난해한 글을 정서(整書)하여 또한 실으니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글은 되도록 원문 그대로 정리하였고 몇 곳에 주(註)를 달았음을 밝힌다.

祝 辭

今遇太歲行年

某年某月某日이온즉

날에 날바든 일도 안이오

달에 달바든 일도 아니올시다

天開於子 하시니

· 하시니: 하시니

天皇氏 나 계시고

地闢於丑 하시니

地皇氏 나 계시고

人生於寅 하시니

人皇氏 나 계시고

天地人 三才之乾坤을

말연하시고

· 말연하시고: 마련하시고

孔子任은 萬卷書冊을

말연하시고

炎帝 神農氏난 醫藥法을

· 神農氏난: 신농씨는

말연하시고

釋迦如來난 神道法을

말연하시고

朝鮮 配判法을

말연하시니

첫재 서울은 平壤서울

· 첫 재: 첫째

檀君千年 箕子千年

二千年이 都邑處오

둘재 서울 慶州서울

· 둘재: 둘째

眞富大王 都邑處오

· 眞富大王: 金傳大王

세재 서울 松島서울
王建太祖 오백년 都邑을
마련 하시고

네재 서울 漢陽서울
我 太祖 五百年 都邑에
無量年을 配判 하옵시고
地運定局 大通運에

我 太祖게옵서
鶴의 머리 터을 닦가
龍의 머리 집을 지으실제
東方 甲乙 三八木으로
東大門을 지으시고
南方 丙丁 二七火로
南大門을 지으시고
西方 庚辛 四九金으로
西大門을 지으시고
北方 壬癸 一六水로
北大門을 지으시고
中央 戊己 五十土로
九重宮闕 높피 지으실제
琥珀으로 柱礎 노코
琉璃로 기둥 세워
龍盤虎踞로 上梁後에
袞龍袍를 입우시며
九龍冠을 쓰옵시고
萬朝百官 거느리고
國事를 議論할제
往十里 靑龍 잡아

· 세재:셋째 · 松島:松都(開城)

· 네재:넷째

· 머리:머리

· 높피:높이

· 노코:놓고

· 萬朝:滿朝

箕子 檀君 모서노코
 君使臣以禮하며
 臣事君以忠으로
 君臣之禮 舉行 함옵시니
 君臣은 天地之分이라
 尊且貴焉하며
 卑且賤焉하니
 尊貴之使卑賤과
 卑賤之事尊貴은
 天地之常經이오
 古今之通義라
 是故로 君者난
 體元而發號施令者也오
 臣者난
 調元而陳善閉邪者也라
 會遇之際에
 各盡其道하야
 同寅協恭하야
 以臻至治 함실적에
 三綱五倫으로 비를 못고
 孝子忠臣으로 독을 달아
 天皇 地皇 人皇 後에
 伏羲 神農 黃帝 堯舜
 禹湯 文武 周公 孔子
 五大聖人을 높피시고
 泛泛中流 높피쓰니
 淸風은 徐來하고
 水波은 不興이라

· 모서노코: 모셔놓고

· 하며: 하며

· 하니: 하니

· 君者난: 군자는

· 臣者난: 신자는

· 비를 못고: 배를 몽고

· 독을달아: 돛을달아

· 文武: 周나라의 文王과 武王

· 높피시고: 높이시고

· 높피쓰니: 높이뜨니

神仙이 下降하고
 惡鬼가 潛藏하니
 豈有聖帝明王之道德乎며
 豈有賢相良佐之善政乎인가
 山無盜賊하고
 道不拾遺러라
 太祖大王 都邑 하시니
 五百年 都邑이오
 無量年 治國에
 朝鮮制度 말연 하시고
 八道制度 말연 하신지라
 時和年豐하고
 國泰民安하옵기로
 堯之日月로 兄弟삼고
 舜之乾坤으로 父母삼아
 康衢烟月 擊壤歌로
 萬民이 咸仰이러라
 某道 某郡 某面 某洞 某姓家中 도라드러
 某生은 上侍父母하고
 下率妻子하야
 前三年이 無事하고
 後三年이 泰平 하옵더니
 某生은 身運이 不吉 하옵던지
 偶然得病하야
 食飮을 全廢하고
 五心이 煩懣하고
 六脈이 搶攘하며
 四肢失靈하고

百節이 告急하야
 天地首尾를 자문듯하고
 廣大天地 滄海萬里에
 指南石을 실은듯이
 거목한 上房안에
 베기도둑 座도둑에
 方在苦痛하옵기에
 저기가서 물어본즉
 이 鬼神이 난다하고
 여기가서 물어본즉
 저 鬼神이 난다 하옵기
 그鬼神 防責禱厄하고
 一治無 하옵기로
 所責이온지

· 베기: 베개

옛날넷적 聖賢君子도
 禱厄之法이 잇다 하오니
 依此之法文하와
 白紙 卷紙 別白紙며
 香山紙 月明紙며
 三南四九紙에
 龍硯石에 먹을 갈아
 靑毛無心筆이며
 黃毛大筆 半中동을 월신 풀어
 一筆揮之 하올적에
 筆落驚風雨오
 詩成泣鬼神이라
 驃風驟雨 싸으난듯
 落花飛雪 뿌리난듯

· 옛날넷적: 옛날옛적

· 싸으난듯: 싸우는듯

· 뿌리난듯: 뿌리는듯

丞相李斯 篆字体며
 王羲之의 半艸書로
 位目設位 그러노코
 列位天尊 모셔노니
 艱難이 寂寞하고
 飮食도 若薄하옵니다
 논에 가니 上穀에 上生米오
 밭에 가니 中穀에 中生米을
 姜太公先生의 造作방에 빌어
 한번 쓸코 두번 쓸코 세번 쓸어
 命米一器 받쳐노코
 敢竭微誠으로
 하늘노셔 내려오난
 銀河水을 쓰자하니
 地下에 내려와
 훑쳐져서 못쓰옵고
 땅에서 소사나난
 玉溪水을 쓰자하니
 烏鵲이 드려 沐浴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東方에 靑龍水을 쓰자하니
 幼男幼女 出生時에 沐浴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南方에 赤龍水을 쓰자하니
 南賊이 强盛하야 渡江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西方에 白龍水을 쓰자하니
 西天 西域國서 분처님이 下降하야

· 방에: 방아

· 받쳐노코: 받혀놓고

· 하늘노셔: 하늘에서

· 내려오난: 내려오는

· 훑쳐져서: 흘려져서

· 소사나난: 솟아나는

· 분처님: 부처님

沐浴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北方에 黑龍水을 쓰자^하니
 北匈奴 强盛^하야 渡江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中央에 黃龍水를 쓰자^하니
 仙官仙女 下降^하야 沐浴水라
 不淨타^하와 못쓰옵고
 萬嶽千峯 岩石上에 내려오난
 甘露水을 밀쳐노코
 龍王宮에서 소사나난
 淸淨水며 玉泉水을
 시별^{같은} 玉食器에 담복쓰서
 金錚盤에 모셔노코
 焚香四拜 ^하온 後에
 鬱密한 弟子 講生은
 東方 甲乙 靑龍方에
 靑帝龍王 靑帝將軍 雷公將軍
 太極圖形 降神鼓을
 虛空中天 높히달고
 외인손에 日光菩薩 日光桴로
 鼓一聲을 울닐적에
 雷公소리 應雷霆而發聲^하니
 天地가 震動에 尊神이 下降^하고
 西方 庚辛 白虎方에
 白帝龍王 白帝將軍 霹靂將軍
 璇璣玉衡 滅鬼鐘을
 덩그러케 安置^하고
 올흔손에 月光菩薩 月光椎로

· 시별^{같은}: 셋별같은

· 외인손에: 왼손에

· 올흔손에: 오른손에

鐘三聲을 올닐적에
 鐘磬소리 動霹靂而發聲하니
 江山이 振動에 惡鬼가 消滅이라
 鐘鼓聲과 步虛聲이 響動天地하니
 萬神이 感動에 一身이 健康하고
 放砲聲과 號令聲이 振動江山하니
 百鬼가 消滅에 百病이 除根이라
 至誠功德으로 如此如此 祝願發願
 奏誦此經 ㅎ올적에
 天地 日月 星辰 諸大神明
 上堂에 五位天尊
 中堂에 二十四萬神將
 下堂에 四十八萬諸大神將任 前에
 至誠發願 ㅎ옵나니
 鬼之所崇와 病之所責이
 吉卽吉事로 分明下教ㅎ시고
 凶卽凶事라도 轉禍爲福으로 視察ㅎ사
 醫藥으로 다스릴 것시오면
 醫藥으로 下教ㅎ시고
 鬼責이라 ㅎ오면
 尊神은 活人之將也오
 惡鬼난 害人之賊也오니
 人依於尊神 ㅎ옵고
 神依於下民이시라
 神不助佑 ㅎ옵시면
 人何保存 ㅎ오릿가
 天尊所에 分付 ㅎ시고
 先王所에 配字 ㅎ시고

神將所에 號令하사
 此家中에 侵責하난
 諸惡業을 靑龍刀로 腰斬하야
 永爲消滅 하옵시고
 救活病人 하올적에
 잠든人生 끼우드시
 보름달이 발근드시
 沈沈漆夜夜三更에
 燈불 켜서 노으드시
 浩浩蒼天 天萬리에
 아침날이 돛난드시
 虎行千里 하난드시
 龍飛碧海 하난드시
 蒼松翠竹 長生閣에
 黃鶴이 翩翩 춤을 추고
 綠水靑山 不老亭에
 白鷗가 雙雙 來往하며
 滄海바다 萬萬리에
 鵬鳥같이 占之하고
 梧桐나무 上上枝에
 鳳凰같이 占之하시오
 堂上鶴髮 千年壽오
 膝下綸趾 萬世榮도
 此家中에 占之하시고
 天增歲月 人增壽오
 春滿乾坤 福滿家도
 此家中에 占之하시고
 和氣은 自生 君子宅이오

· 하난: 하는

· 끼우드시: 깨우듯이

· 발근드시: 밝은듯이

· 노으드시: 놓은듯이

· 아침날: 아침해

· 하난드시: 하는듯이

· 같이: 같이

春光은 先到 吉人家도
 此家中에 占知하시고
 天上四時 春作首오
 人間五福 壽居先도
 此家中에 占之하시고
 衣冠繼世 文兼武오
 忠孝傳家 子又孫도
 此家中에 占之하시고
 日日 掃地 黃金出이오
 時時 開門 萬福來도
 此家中에 占知하시오
 天地 日月 星辰 諸大神明게
 祝願 發願 하옵나니
 連命長壽 하옵시고
 帝王 仙君 賢聖 諸佛菩薩게
 至誠 獻功 하옵나니
 添福 增祿 하옵시와
 石崇의 福을 받고
 金谷園에 집을 지여
 三千甲子 東方朔의 나을 빌고
 八百春秋 彭祖君의 생을 빌며
 周武王의 德을 닦고
 姜太公의 命을 바다
 年年享福 하옵시고
 代代榮華 하옵시면
 天地 日月 星辰 諸神明과
 帝王 仙君 賢聖 佛菩薩이며
 列位天尊이며 列位神將님네

· 밋고: 받고

· 나을: 나이

· 바다: 받아

保生之德은 泰山도 가부엍고
 救活之澤은 河海도 엇도소니
 밤은 將次 夜三更에
 千山에 鳥飛絶하니
 鳥鵲도 잠을 들고
 萬逕에 人蹤滅하니
 人蹟도 고요한데
 高明하신 神道님은
 金風聲而颯起하고
 玉宇高而崢嶸하며
 東天月而明朗하고
 北斗星而燦爛할제
 萬人間이 보난듯시
 地動거름으로 完完히 舉動하시
 天動거름으로 速速히
 下降하시샤

· 가부엍고: 가벼웁고
 · 엇도소니: 얹사오니

· 거름으로: 걸음으로



明午山鳥飛繞亭，鳥鵲之聲處處聞。
川人歌謠多，人跡已至山前。高處神道
生，是人主風聲而吼起，至玉宇高而峰嶺
高，則東天母而即之北斗星而燦爛，此
列第人而自見之，方地也。列第人而自見之，方地也。
奉迎之，天也。列第人而自見之，方地也。
年

神功祝願後願云多公運命長壽多公之
帝王仙王賢聖汝休其此隆川之誠敬功在者
少添補故福云多公外如崇山神是聖之全
少國則聖是公之三才聖是萬方都外此是聖之
八百世秋彭祖壽之公是聖則周武王是聖是
少之善大公以金是聖外是公之善是聖是
以在東華云多公外天地日月星辰汝神功外
帝王仙王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
外是神功是公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
汝之善是公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是聖

里可鵬鳥然引占之云之振羽兮上上枝的鳳
鳳然引占之云之聖鳥數千年壽之德麟
此多也家采之此家中之占之云之天增壽凡人
增壽之壽滿乾坤福滿家之此家中之占之
云之福氣是子生是子定之壽夫是先訓老人
家之此家中之占之云之天上四時壽作首之
人向也福壽長是之此家中之占之云之衣冠
瑞之文也武之忠孝此家子又孫之此家中之
占之云之曰之掃地貴人金出之明之國門壽
壽之此家中之占之云之天地日月星辰法大

是族能養其神會養の振力江云々百鬼十清
滅の百鬼の陰根の神玉滅功江云々水江云々祝願
後敢請誦此經云々云々天地日月星辰諸
大神の上雲外五倍天等中雲の二十四萬神相下雲
の半八萬諸大神相下雲の十萬諸神相下雲
鬼云々出雲外二物云々鬼の者云々云々云々
云々云々云々云々云々云々云々云々云々
云々云々鬼の神云々鬼の神云々鬼の神云々
比害人之賊也云々人依於神云々神依於

150

[illegible]

防養禱反在王一方交五言以是部養可以至則以是
以所至皆君子之福反之法以外存身之依此
之法又在外白然老雅別自強則房山雅月明雅
則三南西九雅山音視及山山音望外音毛走心
筆山山音走大筆中音名聲裂之音是山一筆
揮之云云至此山筆後勢為風雨之注成注鬼神
之外驟風驟雨也山之文後衣飛雲何到此矣
丞相李彤公形字休山王敬之之山筆外書之
位自設任二訓上元之山筆天多山外之音跟隨
山外山音之山音食之山音既山音多山外七山外

民の威仰の利に系道系部系面系洞系姓系中系
此三系系是は父世系之下系妻系子系年系三系年
此是事系之海三年の系年系之系の系生系之系運
の系生系之系之系偶系之系疾系之系食飲系之系金
銀系之系煩懣系之系六脈の系撓攘系之系四肢系之系
百官の系之系即天地系之系是系之系是系之系天
地滄海系之系指南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
房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
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
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
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之系

則此聖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
立大愛人者名曰仁之法中流名曰信之清
風之絲束者水波之石具曰神仙之降邪之
惡鬼之潛藏者山之靈靈帝明王之道道法所
出此聖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
道之於世也則外太祖大王都是之乃五百年
都是之乃五百年法國所創鮮制及此也乃是
八道制及此也乃是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民安之乃五百年乃是之乃是之乃是之乃是
神是之乃是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百官之司之國事三議論望則決中書者龜
背外箕子禮意乎上之君受臣以禮之例臣
事君忠之臣忠君之禮等行五者乃君臣
之天地之分外乎且忠之義果且賊焉乎乎
夫之使卑賊外卑賊之義之乎之天地之常
經之之乎會通我外之政之君者之體之而後
辨施令之也之臣也之調之而陳之而邪也外
會思之際之各求其道之乎同而協恭之乎
以臻之治之乎之乎三綱五倫之之乎之
孝子忠臣之之乎之乎望外天皇地皇人皇後

156

호랑이 생각

김 강 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아시아의 호랑이로 표현되던 우리나라의 경제 신화가 선부른 선진국 흥내와 위정자들의 위기 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았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고 그 대가로 국가경제가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어 사실상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된 오늘의 사태는 신식민지 또는 경제신탁통치로 까지 불리는 국치가 되고 있다.

줄지에 아시아의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로 되고마는 수모를 자초하고 보니 호랑이 해를 맞이 하기가 편치 만은 않다.

올해는 무인년(戊寅年)범띠 해다 범은 호랑이로 불리는 줄범(취범)과 표범으로 불리는 돈범이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들 둘을 그냥 범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범이라는 말 보다는 호랑이로 더 많이 불려지고있다.

동양에서는 호랑이를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여겨 서쪽과 오른쪽을 맡은 신으로 여겼으니 옛 고분 벽화 등에서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호랑이는 백수(百獸)의 왕으로 거칠것이 없으며 먹이 사슬의 가장 윗쪽에 군림하여 못 동물들에게 외경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의 호랑이는 이마에 임금 왕(王)자 형상의 검은 줄무늬가 있어 「왕대」라고 불렀는데 그야말로 동물의 왕이란 말이 실감나게 한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보면 호랑이를 문(文)과 무(武)에 능하고 자상하여 효성스럽고 슬기로워 인의를 갖추고 용용장맹(雄勇壯猛)하여 천하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무서운 호랑이가 효자를 보호하는 가 하면 우둔하고 멍청한 호랑이로 묘사 되기도 한다. 단군신화에서는 참을성 없는 동물로 나오고 옛날 이야기에서는 팔죽장수 아주머니를 잡아 먹고는 햇님이 달님을 하늘나라로 쫓기도 한다. 산공부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가 하면 어여쁜 색시를 물어다 주기도 한다.

무반(武班)들은 관복의 흉배에 호랑이를 수 놓기도 하고 모자에는 호랑이 수염을 꽂기도 하여 호랑이의 용맹함을 본 받고자 하였다. 여염집 대문에 잡귀의 범접을 막고자 호랑이 그림이나 범호(虎)자를 써서 붙이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 발톱이나 이빨을 노리개로 만들어 지니고 다니면 사악한 귀신이 물러 간다고 믿는다.

시골의 마을 산당에는 호랑이가 산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풍수지리의 복지(福地)에 호랑이가 등장한다. 이렇듯 호랑이는 우리겨레의 일상에 너무 가까이 접해 있어 호랑이를 미화하고 그 용맹함과 군자풍의 위엄을 숭상하여 의가 있는 동물로, 문무겸전의 동물로, 인자한 동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토를 호랑이 형상으로 보고 그 꼬리에 해당하는 구룡포 반도에 호미등(虎尾嶺)이란 지명까지 있고 88올림픽 때 호돌이를 상징 동물로 삼기도 했으니 과시 우리나라는 호랑이 나라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도 많지만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았다.

조선조 영조 19년 기록을 보면 경기도 일원에서 한달 사이에 200여명의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거나 다친일이 있었으니 그 피

해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 20년에는 이북 강계지방에서 20여명이 호랑이에 잡혀 먹혔다는 기록이 있으니 맹수 중에 맹수이다.

강원도도 호랑이하면 둘째 가라면 섭섭하다. 강원도 포수하면 호랑이가 연상되고 태백산 호랑이는 너무나 유명하다.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호식총(虎食塚)은 강원도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의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를 능가하는 것으로 호랑이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말해준다.

오죽하면 중국의 문호 노신은 조선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호랑이에 대해 물어 봤다고하며 구한말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 신문기자들도 우리나라의 호랑이 피해 상황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은 아름다운 호피(虎皮)를 얻기 위해 해수구제(害獸驅除)라 하며 호랑이에 대한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산하에 서식하는 호랑이를 무차별 포획하기에 이르니 서기1915년 경부터 해방되기 전 까지 수백마리의 호랑이를 잡아가 거의 멸종에 이르게 하였다.

그나마 몇마리 남아있던 호랑이는 6.25동란으로 또한 사라지고 인위적인 휴전선 철조망이 쳐지면서 백두대간을 따라 왕래하던 호랑이의 생태통로가 막히면서 남한의 호랑이 서식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남한땅에서의 호랑이 멸종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호랑이는 살아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산림청에서 호랑이 서식을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산림청은 임업연구원 등과 강원도 일원에 대한 현지 조사 끝에 양양에 있는 야생조수보호증식장을 호랑이 자연적응훈련장 적지로 선정했다고 한다.

내용인즉 오는 99년까지 양양땅에 호랑이 적응훈련장을 조성하여 백두산 호랑이와 같은 계통인 시베리아 호랑이 두마리를 3년간 적응 훈련시킨 뒤 먹이 사슬이 적당한 강원도내 국유림에 자연방사 시킨다는 것이다.

성사여부와 적응여부, 사람의 피해여부를 떠나 시도해 볼직한 일이다.

호랑이의 나라로 자부하는 우리겨레에게 호랑이는 맹수이기도 하지만 용맹한 기상을 함모하기도 하기에 친근한 동물로 가까이에 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서식지 복원에 대한 시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그러나 진정한 호랑이 서식의 복원은 남북을 가로 막는 휴전선을 없애고 백두대간 마디마다 생긴 고개마루의 도로를 터널로 옮기는 생태통로를 만들고서야만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하면 백두산쪽의 호랑이 가족이 금강산을 거쳐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으로 이주하여 올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진정 이 땅이 호랑이 나라가 될 것이며, 그 기상을 닮은 우리겨레가 세계를 향해 포효할 날이 올것이다.

제13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 등 부			고 등 부		
시조	장원	김재청	시조	장원	김현주
	차상	김정희		차상	김남희
	차하	김정은		차하	김기옥
		홍은희			박원경
산문	장원	민경미	산문	장원	최다경
	차상	박고운		차상	김정숙
	차하	반문진		차하	이예나
시	장원	동방선영			명현주
	차상	이수진	시	장원	박효청
	차하	유제리		차상	윤순희
		오지은		차하	황윤진

잡 초

장성여중 3

김 재 청

한가한 여름 오후 나의 삶 돌아보면
내 삶과 그의 생이 일치함을 느껴본다.
내 주변 어느 곳이나 우리들의 존재는

도로 옆 한 귀퉁이 산과 들 어디서나
발밑의 짓밟힘은 나의 시련일지니
모질은 바람 앞에도 나는 곳곳하리니

나의 삶은 그러하리 뇌성의 연속앞에
푸르름을 간직하며 모질게 이겨내며
어제도 그러하였으며, 내일도 그러하리.

땅

함태중학교 2의 2

김 정 희

숨쉴다 따스한 햇살속에서 오늘도
말없이 고요하게 생명을 싹틔운다
대지여, 모든이에게 생기를 불어주오

만물은 그대와 더불어 살고있다
하늘과 마주보고 친구된 그대여
세상의 모든것이 그대의 친구되리

아름답게 고요하게 그대 만드신 이를
그대와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신 이를
우리여 고마워하자 끝없는 대지에서

중등부 시조 차하

풀 한포기

상장중학교 3

김 정 은

별양이 내리찍는 이세상 대륙위에
한포기 꿈을위해 모진 고난 이겨내며
경치를 벗을삼아 놀려드는 풀 한포기

산수와 조화되어 장관을 이룩하고
모두가 무리지어 푸르름이 깊어가니
그들이 존재함으로 우리세상 빛나리.

풀

상장중학교 1학년

홍 은 희

5000년 자리잡고 한터전 뿌리박힌
역사의 발자취 피맺친 애통으로
맥마다 자리잡았던 극기와 인내들

언제나 힘들때면 도도한 외침으로
굳굳히 자리잡은 선조들의 노력이며
이곳에 맺혔었노라 이곳에 있었노라

명울가신 가슴으로 풀꽃길 거니길
날마다 풀잎새에 기원하고 영원히며
이렇게 이루어질날 풀꽃의 합창들리리.

풀

장성여자중학교 2의 2

민 경 미

지난 3월경에 잡초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방송되었다.

1부에는 잡초의 생명력을 중심으로 방송되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에 대해 보여 주었다. 바람을 타고 날려가 한강고수부지 바위 틈새 아주 작은 곳에 내려 앉아 겨울을 보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던 민들레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지나치는 어느 풀을 보여주었다. 경운기, 자동차에 밟혀 지나가도 다시 일어서서 싹을 틔우는 그 풀의 끈질긴 생명력에 다시금 감동 받았다. 또 나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아주 작은 이름 모를 풀들도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조금의 일에도 금방 실증을 내고 포기해 버리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다음 날에는 잡초가 번식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풀들도 같은 종족끼리는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같은 종족끼리 번식을 하는 풀도 있었지만…… 풀들도 번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꿀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여 피는 풀은 화려한 색과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풀이 있는가하면 벌이 짹짹 기하는 시기에 태어난 풀은 암꿀벌의 독특한 냄새를 퍼뜨리는 풀도

있었다. 하지만 벌, 나비 말고도 파리를 매개체로 번식하는 풀도 있었다. 파리가 좋아하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었다. 바람이나 벌, 나비로 번식하는 풀만 보다가 파리로 번식하는 풀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지독한 냄새가 나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 물론 직접 맡아 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보는 풀의 번식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 내가 그곳에 서 있는 착각을 느끼게 되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수면이 부족해서 피곤했지만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 좋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풀들이 자연이 만들어 낸 한 부분이라 생각하니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하게 느껴져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땅

철암중학교 1학년

박 고 운

지금은 5월 계절의 여왕이라는 달이다. 따스한 햇살아래서는 나무와 풀이 한층 푸르름을 뽐내며 서 있다.

나는 요즘 학교 갔다 오면 종종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우리밭을 보는 일이다.

우리집 뒤에는 조그만 밭이 하나 있다. 비록 조그맣지만 우리가족에게는 소중한 밭이다. 3년 동안 가꿔온 밭, 그래서인지 유독 이 밭에만 정이 든 것 같다.

요즘 밭에는 싹이 키가 크려고 열심히 발돋움을 하는 중이다. 이제 새싹도 아니다. 조금 커진 것 같은 싹, 이제부터 비료도 주고 물도 주며 열심히 키워가야겠지.

작년과 제작년에도 밭에 야채를 심었었다. 별로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채에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거나 다 크기도 전에 죽어버린 것도 있었다. 좀 아깝긴 했지만 그렇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다. 소중한다는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만의 밭을 가졌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우리 밭의 한 귀퉁이를 내 밭으로 주셨다. 나는 그 밭의 돌과 잡초를 모두 뽑았다. 그리고 흙덩이도 곱게 부순다음 버려진 벽돌조각으로 경계를 삼았다. 또 밭에다 내가 오래전부터 심고 싶었

던 맨드라미, 분꽃, 안개꽃 등 여러 가지 꽃씨를 심었다. 이제는 그 씨도 싹이 터서 조금씩 크고 있다.

싹을 생각하며 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 이 싹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될 것이다. 8~9월경에 말이다. 9월은 아빠생신이 있는 달이다. 내가 정성스럽게 가꿔서 피운 꽃을 갖다드리면 아빠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으시는 아빠의 얼굴을 상상하니 마음이 즐겁기만 하다.

이번에는 잘 키워서 아주 탐스럽고 예쁜 꽃을 피워야지 절대로 죽게하지 말아야 겠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문득 땅 생각이 났다. 내가 키우는 꽃도 땅에서 자라나니까 말이다.

땅에서는 모든 생명이 자라난다. 사람도 땅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가?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대신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내 주변에도 산의 한 부분이 무너져 흙과 돌뿐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한 나무가 굳건히 서 있다. 땅이 키워낸 하나의 생명인 것이다.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아픔을 참아가며 사는 땅, 그러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는 땅, 그런 땅이 나는 참 좋다. 땅이 정말 고맙다.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질경이

황지여자중학교 2의 2

반 문 진

나는 질경이라는 풀을 안다. 짓밟히고 짓밟혀도 곳곳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풀, 너무나 쉽게 모든것을 포기해 버리는 약한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존경과 찬양을 받고 있는 풀이다.

본적도 없다 생김새도 모른다. 풀이니 자애로운 빗갈인 초록을 옷삼아 있을테고 어딘지 모를 세상 구석에서 밤의 자손인 이슬을 먹고, 온 몸의 피로를 가셔줄 바람을 마시며 살고 있을테지 하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다.

말로만 듣던 일제치하 그 참혹스런 민족의 비극에서도 우리는 강인했다. 차이고 차이고 또 차여도 다시 일어나 지금의 우리나라를 지켜온 그 분들의 분신이 질경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본인들의 딱딱하고 매정한 구두굽에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초라해져도 단 한방울의 눈물과 함께 그것들을 다 저버리고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시들지 않고, 지지않을 꽃인 지금의 한국을 피웠고, 그 향기가 지금까지 짙게 남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역사를 남긴 것이다. 바람보다 먼저 눕지 않아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풀이고 바람보다 나중에 울어도 먼저 웃음짓는 것이 풀이라고 누군가가 노래 했다. 아무 생각없이 이런 풀들의 풋풋한 향기만 맡고 들판에 누워 풀들의 삭삭대는 속삭임을 노래 삼아 들으면서 언제나 내 상상속에서 내 존경을 먹고 살 나만의 질경이의

모습을 스케치 한다. 체구는 작지만 변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테고 인내로 쓴 삶의 길을 걸어온 한국인과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질경이의 깊은 뿌리가 우리의 깊고 자랑스런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고, 질경이의 푸른 빛깔이 우리의 자애로움을 닮지 않았나?

질경이를 닮겠다. 질경이 만큼이나 강한 자신의 의지로 다시 피어나는 존재는 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질경이의 마음과 뜻을 닮아 가겠다. 생김새가 아닌 질경이의 뿌리 속 깊고 깊은 하나 하나의 모습도 아닌 그것들의 최소의 일부분이라도 배우기위해 존재하리니 난 그것에 만족할 것이다. 남의 것에 눈독 두어 앗아갈 잡초같은 인간의 떳떳치 못한 삶은 면해야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이 사람답게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 대해 떳떳해짐이라는 걸 아주 대충은 알고 있기에 그 표본인 질경이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다.

‘잡초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없이 되뇌어 본다. 질경이……, 질경이…….

난 지금 내 마음 속에 질경이의 씨앗을 하나 심으려고 한다. 내 존경이라는 물과 질경이를 향한 내 고마움을 주면서 따뜻해지는 내 마음을 햇빛 삼아 정성으로 키울것이다. 그 질경이가 내가 세상에 남아있을 때까지 곱게 자랄 수을 때까지 내가 질경이 마음의 백분의 일을 닮아 고난에도 꺾끗해지고 당당해져 힘겨움이라는 바다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강한 이름 질경이를 닮을 테다. 질경이……, 질경이……

풀 잎

황지여자중학교 2의 1
동방선영

저 산이 저렇게
푸르른 것은
작은 풀잎들의
싱그러움 때문일거다.

저 산이 저렇게
생기있는 것은,
풀잎들이 곳곳에서
푸른 숨을 내쉬고 있기 때문일거다.

저 산이 저렇게
높은 것은,
풀잎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있기 때문일거다

저 산이 저렇게
반짝이는 것은,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빛을 발하기 때문일거다

저 산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풀잎들이 솔바람에
춤추고 있기 때문일거다

자유 공간

황지여자중학교 3의 5

이 수 진

하늘을 날으는 꿈으로
자유를 보았다.

하늘을 찾으려
투명함이 흐르는 곳에서

초록빛이 머무는 곳에서
햇살을 쫓다가

조그만 아이의 두 손에서
꿈을 만났다.

비누 방울마다
파란빛을 실어 보내는
꿈을 꾸는 아이.

아이의 꿈이 실린
비누 방울에서 하늘을 찾아
아이의 꿈을 함께 머금고 오른다.

바람은
아이의 눈에 비친 하늘빛이 부러워
그렇게나 많은 꿈을
꾸었나 보다.

땅

상장중학교 1

유 제 리

온 가슴으로
세상 모든 생명
가득 안고

나의
부모이자 스승인
소중한 친구

큰 사랑으로
세상 모든 시기, 미움
모두 감싸고

꿈, 사랑, 믿음, 희망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용서, 인내, 베품
모두에게
심어주려고

자신의
행복, 기쁨, 즐거움
나눠주는

풍 류

황지여자중학교 3의 1
오 지 은

고요하게 요동쳐
수풀 사이를 헤치어

싱그런 그 미소를
바다속에 불어 넣는다.

그 투명한 어깨위에
하늘을 지고

상쾌한 레몬빛 감촉으로
살포시 다가옴이여!

스쳐가는 그대 숨에
속삭이는 그대 숨에

생명하는 하나 하나가
춤타래를 외친다.
그대속에 동화된다.

풀꽃반지

황지여상고 3학년

김 현 주

노을이 드리워지는
고향의 언덕에는
풀피리 소리 소리 한가롭게 울려오고
갯버들 춤추는 듯 산들바람 술렁인다.

찔레꽃 맑은 향기
언덕을 넘어오면
헤어지며 끼워준
풀꽃반지 그리워
머얼리 눈을 들어 보고픈 이 불러본다

함초롬이 젖은 들길
풋풋한 풀내음
하늘로만 팔을 벌린
싱싱한 소망들이
천년을 가다듬은
생명력이 푸르다.

풀

철암고 3

김 남 희

강인한 바위틈에 생명하나 어린풀꽃
그 숨을 내가받아 한참동안 마시우니
내마음 그 생명마셔 신선하여 지더라

강인한 바위틈에 생명하나 어린풀꽃
바위를 뚫은힘에 내가또한 놀래었고
그힘을 나의 삶에서 빛이되게 하리라

고등부 시조 차하

달빛타고 오는 바람

황지여상고 3학년

김 기 옥

달빛이 고옴게
뜨락에 부서지고
풀벌레 맑은소리
낭랑히 울려오면

사창에 가느다란 설레임 번지네.

동산에 무리지어
웃음짓는 아카시아
바람결에 향을 흘려
나뭇잎 질푸르고
작은 새 노래불러 계절은 깊어지네.

두팔을 벌리고
하얀 달빛 안으면
가슴가득 밀려드는
푸르른 바람
정정한 그리움이 여울져 안기네

소꿉놀이

장성여고 1

박 원 경

넌 아빠 난 엄마하며 놀던 그곳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부엌도 있고,
아빠가 즐겨먹는 사탕도 널려 있어라.

흙으로 밥하고 풀로 반찬하고,
저기 조약돌은 우리 아빠 사탕이고,
우리 애기는 돌 갈아서 주어라.

까만 하늘 위에 별이 뜨면,
우리 아기 재우고 나도 눈을 감고,
그 곳은 우리집이요. 그곳은 땅이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땅

장성여고 1

최 다 경

1998년 5월 14일 목요일 날씨 비

제목 : 태백산 현장 답사

유치원에서 태백산으로 놀러를 갔다. 선생님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 답사를 가는 거라고 하셨다. 차를 타고 당골 광장에 내렸을 때 선생님은 우리들의 다리가 너무 작아서 산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리가 작으면 왜 산에 올라갈 수 없는지 여쭙어 보았더니, 키 큰 나무들이 우리들의 작은 다리를 보고 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다음에 나무 만큼 키가 크면 꼭 태백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놀려 주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뒤를 따라 갔다. 엄마가 선생님을 잃어버리면 큰 일 난다고 잔뜩 겁을 줬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씨앗을 세 알씩 나눠주시면서 땅을 파고 심으라고 하셨다. 씨앗을 왜 땅에 묻으라는 걸까? 땅 속에 묻히면 숨도 못쉬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을텐데…… 작년 겨울에 할아버지도 땅에 묻혀서 우리 집에 놀러 못 오시는 거라고 했는데, 씨앗은 왜 묻으라는 걸까? 선생님은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예쁜 꽃이 피어난다고 하셨다. 장미도 무궁화도 다 씨앗을 심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라고 하셨다. 그럼 할아버지도 꽃이 되는 걸까? 우리는 우리가 심어 놓은 씨앗들이 알록달록 예쁜 꽃이되면 그때 다시 오기로하고 집으로 왔다. 선생님은 우리들이 심은 씨앗들이 빨

리 꽃이되라고 하늘에서 물을 주는 거라고 했지만, 나는 무척 속상했다. 알미운 비가 와서 엄마가 싸 주신 김밥도 못 먹었기 때문이다.

1998년 5월 23일 토요일 날씨 맑음

제목: 자라지 않는 상추

엄마께 씨앗을 심어서 예쁜 꽃을 기르자고 말씀 드렸다.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같이 해 드렸더니 엄마는 상추를 기르자고 하셨다. 맛있는 고기에 쌈도 싸먹고 좋을 것 같기에 엄마와 함께 상추씨를 사다가 아파트 화단에 심어두었었다. 그런데 오늘 상추가 자라났는지 궁금해서 나가 보았더니 상추는 아예 싹 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혹시 피노키오가 땅에 동전을 심어 두었을 때 친구들이 동전을 몰래 가져갔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 상추씨를 몰래 가져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전 나무가 못 자랐던 것처럼 상추도 못 자라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화단을 파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서 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다. 너무 속상하다. 무슨 냄새였을까? 내일 꼭 엄마께 여쭙어 봐야지.

은옥이에게

은옥아, 벌써 우리 은옥이도 자연에 대해 궁금함을 갖는 나이가 되었구나. 어린시절 엄마에게 땅은 그저 놀이터로 족한 그런 것이었다. 동무들과 줄넘기도하고 구슬치기도 하는 우리들의 보금자리였지, 그런데 지금 엄마가 은옥이처럼 다 큰 딸을 가진 나이가 되니, 예전에 그 땅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엄마도 무척 섭섭해, 화단에 심은 상추가 자랐더라면, 은옥이와 엄마는 작은 농부가 될 수 있었을텐데…… 아직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단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땅을 아프게 해서, 냄새도 나고,

상추도 못 자라는 거야. 우리 은옥이는 땅을 아프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거지? 언젠가 은옥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거라고 했었지? 하늘 만큼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야. 끝세, 땅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밭고 있을 땅이 있어서 하늘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야. 땅도 그만큼 소중한, 땅은 우리에게 어머니이기도 하고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단다. 풀과 나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자상한 어머니이잖니? 은옥이와 엄마에게도 땅은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란다. 은옥이가 선생님 뒤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어서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자연도, 우리도 땅이 없으면 살아갈 길을 잃는 셈이지. 은옥아, 할아버지도 꽃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땅은 할아버지께 새로운 집이 되는거야. 그 어느 것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한 든든한 집이 되는 거란다. 그냥 두면 하찮은 씨앗도 땅이 품어 주고 보살펴 주면 예쁜 꽃도 되고, 달콤한 과일도 되고, 키 큰 나무도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은옥이도 이 다음에 나무 만큼 키가 크면 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 수 있을거야. 은옥아, 엄마와 함께 세상의 모든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길잡이가 되어 주는, 그리고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는 땅을 지켜가자꾸나, 더욱더 기름지고 더욱더 광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은옥아, 엄마와 함께 땅의 맥을 이어가자.

아버지의 땅

장성여고 2

김 정 숙

우리 아버지는 땅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것같다.

내가 아주 어릴적에 우리 아버지는 광업소에서 일하셨다. 매일마다 시커먼 갯 속에 들어가 열심히 땅을 파셨고 땅을 판 대가로 받은 봉급으로 엄마와 나를 먹여 살리셨다. 워낙에 성격이 깔끔하신 아버지는 검은 석탄이 가득한 갯에 들어가시면서도 항상 흰 양말에 운동화를 신으시고 밝은 얼굴로 내 볼에 입맞춰주시고 일터로 향하셨지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달이 얼굴을 내밀때쯤 시커먼탄을 여기저기에 묻히시고 막걸리냄새에 찌들어서 피로가 가득 묻어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셨다.

엄마는 매일마다 검어진 아버지의 옷과 신발을 빠셨고 한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작업복에 장화를 신으시고 일터에 다니셨다면 엄마의 일이 훨씬 줄었을 텐데도 엄마는 밝은 얼굴로 아침마다 흰양말과 운동화를 챙겨주셨다. 탄가루가 잔뜩 묻은 아버지의 손보다 더 거친 손으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는 그렇게 땅과 함께 살았다.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는 직업을 바꾸셨다. 광업소에서 팽이로 검은 땅을 파헤치실 때와는 다르게 아빠보다 훨씬 큰 포크레인에 올라 앉으셔서 나보다 훨씬 큰 포크로 황색의 땅을 파셨다. 커다란 기계에 올라앉으셔서 아버지만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우리가족

의 생계수단인 그 차가운 기계를 움직이셨다. 아버지는 그렇게 땅과 함께 사셨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광업소 갱에서 검은 땅을 파 헤치실때 보다 어두웠다.

아버지가 일하는 중기회사는 무척 작은 회사였는데 항상 일거리가 많으셨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병치레라고는 없으시던 분이 가끔 자리를 깔고 누우신적도 있었다. 광업소에 다니실 때보다 많은 액수의 봉투를 엄마에게 건내주셨지만 엄마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셨다. 어린 나는 엄마,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를 했다. “아빠! 아빠! 다시 검은 굴에서 일해. 나는 아빠가 광업소에서 일하는게 더 좋아” 라고 힘 없는 아버지의 어깨를 누르며 때를 썼고 그런 나에게 힘겨운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그래, 우리 공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말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와 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채 한 평생을 땅과 함께 사셨 으면서도 땅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에게 늘 짐만됐던 딸을 두고 혼자서 땅으로 돌아 가신 것이다.

땅과 늘 함께셨기 때문에 땅이 아버지의 보금자리였을 수도 있다.

지금은 땅과 어우러져 땅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다. 항상 희생하는 삶. 모든것을 주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의 딸도 땅에서, 땅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다음에 땅에서 아버지를 뵈었을때 부그럽지 않도록 땅과 같이 살 것이다.

아버지와 같은 땅과 같이……

잡초를 보며

장성여고 1
이 예 나

매년 봄이면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하는 일이 있다. 바로 우리집 앞의 작은 밭의 잡초를 뽑는 일이다. 거름을 많이 주고 유별나게 밭에 신경을 많이 주고 유별나게 밭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해면 어김없이 다음해 봄에는 잡초가 기승을 부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잡초를 뽑고 나서 이듬해 봄에 보면 어김없이 그자리에 똑같은 종류의 풀이 딱하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뭘놈의 잡초가 이렇게 질겨?” 라며 손에 잡히는대로 마구 뽑아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분명히 뽑아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을 틔워내는 잡초가 더없이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자꾸 뽑아내고 밟히기만 해도 짓이겨지고 뜯겨진 잎새 사이로 연녹빛 조그마한 새싹을 밀어내는 잡초의 그 생명력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옛날에는 백성들을 민초라는 호칭으로도 불렀다. 생각해보면 그 누구보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러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이어나갔기에, 그 모습이 풀과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그러한 호칭으로 불려졌나보다. 가장 혼하고 구석진곳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빛을 피워내는 모습 그렇다. 그 옛날 우리조상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갖은 고초와 전쟁의 소용들이 속에서도 일제의 말발굽에 짓밟히던 36년간의 수난기에도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민주화의 거센 폭풍우에도 잡초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로 신경을 쓰고 가꾸어야 하는 그 가꿈없이도 잠시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온실 속의 화초와 밟히고 억눌려도 다시 새로운 잎을 밀어올리는 잡초의 모습중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인의 모습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점점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사람 저사람에게 밟히고 눌려도 가느다랗고 약하기만한 꽃대를 세워올려 노란빛 작은 꽃을 피워 하얀 솜털을 날리는 민들레의 모습을 사랑한다. 아니, 민들레뿐만 아니라 모든 잡초들의 그 놀라운 생명력과 초지일관의 모습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잡초를 보며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먼저 뽑아버리고 마는 것은 언제부턴가 허리를 숙여 아래를 보며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밑을 보기보다는 위를 보며 살아가는 방법이 익숙해졌기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삭막하고 차가운 삶으로 일관되어 지는지도 모르겠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고개를 숙여 잡초들의 삶을 눈여겨 보고, 또 그들의 삶에 외경심을 갖고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민초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을 조금이나마 배우는 길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살고 싶다. 어느 한가지 목표-꼭 한가지가 아니더라도-를 위해 끈질긴 인내력으로 버텨나가는 삶. 진정으로 잡초처럼 질기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풀잎과 소녀

장성여고 1

명 현 주

소녀의 눈동자에 까만것, 날카롭게 선 그 잎이 고개를 숙여 작은 물방울을 내려주고 있었다. 그 아이는 물이란 투명하다고 배웠는데 무엇인가에 퍼진 듯 녹색으로 빛나는 그 이슬을 소녀는 계속 지켜보았다.

푸르스름한 새벽 무서우리만치 고요한 그 시간에 소녀는 밖에 나가 있었다. 간밤에 내린 이슬로 대지는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소녀가 바라보는 그 풀잎도 그랬다.

소녀는 땅으로 향한 풀잎을 타고 내려오는 이슬을 지켜보았다. 어제, 그 뜨거운 여름으로 향하는 시간에 내리쬐는 태양빛에 수분을 잃은 그 푸른 생명체를 이슬은 어떤 아량을 베풀 듯, 그리고 놀리듯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자 이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풀잎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한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넌 가야해

쫄그리고 이슬과 풀잎을 지켜보던 소녀는 작은 뺨을 어루만지는 햇살을 느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파랗게만 느껴졌던 그 세상이 각자의 색깔을 나타냈다.

그리고 윤곽조차 드러내지 않던 그 구름이 서서히 주홍빛으로 적셔져 아침의 문을 열었다.

앞으로 세개의 주름, 칙칙한 회색치마 칼같이 단정한 그래서 목을 조르는 남색 넥타이 땀으로 범벅되어 때가 묻은 남방, 소녀의 중학교 교복이었다. 소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교내의 차가운 아스팔트 길 사이에 난 잡초를 뽑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늦장을 부리는 아이들을 감시했다. 소녀는 무거운 낫자루를 들고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된 길사이의 녹색 풀을 짓이겼다. 소녀는 낫자루에 힘을 주어 날카로운 끝을 땅속에 파고들게 했다. 그리고 더힘주어 그것을 뽑아냈다. 소녀의 몸이 약간 뒤로 휘청거렸다.

지면에는 소녀가 파헤친 흙가루가 흐트러져 있었고 하얀 뿌리가 달린 작은풀이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자 저기 나무 밑에 있는것도 뽑아.” 선생님이 나무 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흙묻은 손을 탁탁 털며 일어섰다.

한참을 풀뿌리로 장난치던 소녀는 뒤늦게 일어나 터덜터덜 걸어갔다. 낫을 들고 장난치는 친구결으로 다가갔다.

“풀을 왜 뽑는 거래?”

소녀의 친구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뜨거운 햇살에 비치는 그애의 얼굴은 그 햇살을 거부하듯이 찡그러져 있었다. 소녀는 늘 그랬듯이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지저분하니까.” 소녀의 친구는 소녀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군데군데 나 있는 풀들이 지저분해 보였다.

“나 있는것도 좋은데 어차피 풀은 다시 자라잖아”

그 애는 투덜거리며 다시 앉았다.

“...그래.” 소녀는 새벽이슬을 머금은 그 풀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방금 소녀가 뽑아버린 그러니까 죽여버린 그 풀잎을 바라보았다. “나 새벽에 풀을 봤어” 소녀의 친구는 소녀를 무심히 쳐다보았다. “운동하러?” “아니” “그럼?” “풀이 살아있는걸 보러”

그애는 소녀를 미친애로 보기 시작했다. 사실 소녀는 미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맘에 들어” 미친건 소녀가 아닌데 그 어린 생명을 짓이기는 모두가 미친 것일지도, 그렇지만 소녀도 풀을 죽이고 있었다.

소녀의 친구는 소녀를 보고 중얼거렸다. “저거 바보아냐?”

소녀는 어제보다 더 일찍 나갔다.

“이상해...” 소녀는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소녀가 어제 있었던 그 풀밭이 없었다. 덩그러니 조용히 침묵하는 흙덩어리뿐. “...죽었구나”

전에 잔디깎는 기계를 본적이 있었다. 잔인했다. 그러나 그것에 한번 내 머리를 잘라보고 싶었다.

그것의 무서움은 여전한가 보다. 그 잔인함과 깨끗함은...

인간은 무섭도록 아무것도 없는것을 깨끗하다고 했다. 죽어버린 것을.....

죽었구나 죽어버렸구나 더이상 이슬은 미끄럼틀을 탈 수 없구나 그냥 죽었어

“운동나오니 좋지?” “...네”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에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소녀의 땀 소녀를 느끼게 하는 것, 소녀의 찰랑이는 머리칼 사이로 아침이 빛났다. 소녀는 눈부신 햇살이 싫은 듯 고개를 돌렸다. 소녀의 시야에 녹색빛이 하늘거린다. 영롱한 이슬도 놀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곳은 다시 지저분해졌다. 풀들이 있었다. 다시...자랐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었구나

더이상 이슬은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

그냥... 살아있었어

그래 살아있었다.

바다와 바람

장성여고 3

박 효 정

아무도 없는
육지의 끝에 주저 앉아
내 힘없는 눈 앞
세상을 지켜본다.

늦은 바다는 이내
해를 삼켜
부을근 저녁을 토해낸다.

바다를 향해
큰 소리로 속삭인
나의 마음을
날카로운 해풍이
밀려와 베어가고
그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어느덧
내 눈 앞 바다는

검게 그을려
내 앓아 있는 이곳과
다를바 없는 육지가 되고

그래, 이젠
발을 디딜수 있어
입술을 세게 문채
육지에 손을 디더
일어나려 한다.

지금
내 등뒤에서 불어와
나를 밀어
일으켜 주는건
조금전 그 바람인가 보다.

바람이여

황지여상고 3학년

윤 순 희

세찬 거부 의 몸짓을 토하고 있었다.
빈 가지를 잡고
목덜미를 감싸며 흐느끼던
말 못할 숙명
흙문은 나의 심장이 이리저리 쓸려 다니고
안개 속을 질주하던 열망이
도시의 허파속을 헤짚어
나무와 꽃과 집과 돌들을
끝없는 시간속으로 흩어놓는다.
내 가슴에 새겨진 가장 솔직한 자세
뜨거운 몸짓의 노래
온몸을 날려버린다.

잊었던 날들의 기억
돌아오는 길은 영영 잊었나보다
양상한 분노
죽음같은 고요
계절은 황사를 앓고
겹겹이 밀려오는 슬픈 가락

벌떡 일어서서
솔잎처럼 푸른 기침을 한다.

나에게 희망을 안겨준 푸른존재
갈색빛 생명 밭에서
붉은색 심장으로
피어난 그 초록 생명들
그 파란 희망의 기대를
담은 존재여

난 희망의 꿈을 먹는
그 초록 희망을 좋아합니다.
봄에는 새로운 출발을
여름에는 향기롭고 신선함을
가을에는 독서를 하며 고독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향기를
겨울에는 내년을 기다리는 존재의
기다림을 느끼게 해줍니다.

언제나 변치않는
순수함을 가진 그대여
그대는 나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알게해준 선생님입니다.

자연이 날 부릅니다
꽃들이 웃음짓고
새들의 합창을 들으며
푸른세상에 들어갔습니다

환한 푸르름과
자연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기서 누군가 날 부릅니다
“날 좀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야원 초록 존재였습니다.
난 마음으로 그와
얘기 했습니다.
꼭 도와 주겠다고

난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
그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용기를 준 그대여

난 당신의
푸르름과
희망을 동경합니다.

풀밭에 서서

황지여상고 3학년

황 윤 진

초록의 눈물이
순수의 손바닥에 떨어질 때
산내음, 흙내음
물빛 뺨 옷자락에
설레이는 사연을 그린다.
짓밟아도
짓밟혀도
언제나 일어서고
수줍은 뒷모습을 보이며
짐짓 희살짓는 바람에
헛기침으로 피어 난다.

잘생긴 여인의 종아리 같은
고요한 숨결로 다시 일어나는
가슴속에 오롯이 피는 들꽃
밟히는 초록내음

푸른향기 출렁이는 들길
구름이 노을에 젖어

빛나는 분노를 토한다.
초록별들이 등불을 켜다.

◆ ◆ ◆ 태백문화원 연혁 ◆ ◆ ◆

- 1984. 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1984. 8. 17 문화공보부 법인 설립허가, 황윤덕씨 초대원장 취임
- 1984. 10.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 1985. 7. 18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이호진씨 등 12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 1985.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1986. 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부원장제도 신설
- 1986. 12. 31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완료
-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1987. 12. 31 창간호 '태백문화지' 발간 등 13개 사업완료
-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1988. 8. 16 임시총회개최- 신임원장 장인원원장 선출
- 1988. 12. 31 웅변대회 및 사시랭이 발굴사업등 10개 사업완료
- 1989. 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 1989. 8. 29 문화원원사 이전-구시청 별관
- 1989. 12. 31 태백문화지 및 지게싸움놀이발굴 등 10개 사업완료
- 1990. 3. 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정관개정
- 1990. 6. 13 문화부로부터 90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
- 1990. 10. 16 임시총회개최-부원장선출(김영훈이사)
-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완료
-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등 12개 사업완료
-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등 13개 사업완료
- 1993. 8. 17 제3대 원장으로 우성조씨 취임
-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 1994. 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 1994. 12. 31 문화학교운영등 16개 사업완료
-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등 15개 사업완료
- 1996. 2.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이전
- 1996. 12. 9 문화원 준공식
-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완료
- 1997. 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 1997. 12. 31 한강대제외 12개 사업완료
- 1998. 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 1998. 12. 31 솟대복원사업외 24개 사업완료

§ 1998년도 태백문화원 사업현황 §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향토 교육 사업	제 13 회 남 · 녀 백 일 장	1998. 5.27	구문소	-대상: 태백시 관내 중 · 고등학생 -부문: 시, 시조, 산문 -시상: 각부문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입선 -수상자: 50명 -참가인원: 150명
문화 학 교 운 영	도자기교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20명 -강사: 조미영 -수강일시: 매주 월,화(오전 10:00-12:00) -수강내용: 생활용품 제작
	종 이 접 기 교 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35명 -강사: 김미향 -수강일시: 매주 수,금(오전 10:00-12:00) -수강내용: 종이접기 기초이론 및 실기지도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 취득
	국 악 교 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40명 -강사: 이숙영 -수강일시: 매주 화,금(오전 10:00-12:00) -수강내용: 장고지도, 민요지도
	고 전 무 용 교 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30명 -강사: 이경옥 -수강일시: 매주 월,목(오전 10:00-12:00) -수강내용: 민속춤, 소고춤, 고전무용지도
	한 문 교 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40명 -강사: 김강산 -수강일시: 매주 화,금(오후 13:00-15:00) -수강내용: 추구편, 동몽선습지도
	가 요 교 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 백 문 화 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80명 -강사: 전인석 -수강일시: 매주 월,목(오후 13:00-15:00) -수강내용: 건전가요지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문화학교운영	칠보공예교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백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 일반인 30명 -강사 : 전영숙 -수강일시: 매주 월,목(오전 10:00-12:00) -수강내용: 생활장신구 제작
	통기타교실	1998.4 - 6월 1998.9 - 12월	태백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20명 -강사: 김원종 -수강일시: 매주 수(오후 13:00-15:00) -수강내용: 통기타 이론 및 실기지도
	사진교실	1998.9 - 12월	태백문화원	-대상 및 수강인원: 일반인 30명 -강사: 이석필 -수강일시: 매주 화,금(오후 13:00-15:00) -수강내용: 사진 이론 및 실기지도
향토연구사업	향토사료조사 및 자료발간	1998.1 - 12월	태백문화원	-내용: 영산태백 -분량: 300페이지 -부수: 1,000부 -향토사료조사기간: 1998. 1. 1-12.31
	태백문화제12집 발간	1998.1 - 12월	태백문화원	-내용: 무인년태백소식, 태백관광, 백일장 수상작품외 -분량: 250페이지 -부수: 1,000부
	숫대복원	1998.11.7	태백산도립공원	-참여인원: 문화가족 40명 -내용: 숫대복원 및 주변정리 천신굿마당
향토행사사업	오궁썰매대회	1998.1.25	태백산	-대상: 관내 및 관외 일반인, 학생 -참여인원: 100명 -내용: 태백산 등반 및 오궁썰매대회
	문화유적지 순례	1998.10.23	경주문화엑스포	-참여인원: 문화가족 120명 -내용: 경주문화엑스포 답사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향토행사사업	천제	1998.10.3	태백산천재단	-참여인원 : 5,000명 -내용: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구하고자 천제를 올림
	한강대제	1998.8.2	검룡소	-대상: 전국 일반시민 -참여인원: 1,200명 -내용: 물먹기대회(많이먹기, 빨리먹기 부문), 용신제, 유두면 시식회
문화사랑방운영	문화학교 수료생들 작품전시회	1998년 7.20 - 7.23 12.7 - 12.9	황지못 문화원	-관람객: 2,000명 -전시작품수 (상반기)칠보공예, 도자기, 종이접기 총200점 (하반기)칠보공예, 도자기, 종이접기 총150점
	취미교양	1998.4 - 6월	태백	-대상: 일반시민
일반행사	연극공연	1998.1.22 -1.25	태백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500명 -내용: 극단「동그라미」연극공연 -공연횟수: 평일 1회 공연 주말 2회 공연
	이성천님 강연회	1998.6.26	태백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문화가족 100명 -내용: 우리나라 고전음악에 대해 강연 -강연시간: 오후 6시 - 8시
	최종원님 강연회	1998.10.17	태백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일반시민 및 문화가족 150명 -내용: 「예술과 인생」에 관한 강연 -강연시간: 오후 2시 - 4시
	신봉승님 강연회	1998.10.28	태백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일반시민 및 문화가족 120명 -내용: 「문학과 삶」에 대해 강연 -강연시간: 오후 4시 - 6시
	산목련 시낭송회	1998.12.18	태백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중·고등학생 50명 -내용: 장성여자고등학교 시동아리 [산목련] 시낭송 공연 -공연시간: 오후 4시 - 6시

■ 이사 및 운영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집	직장	
고 문	황윤덕	태백시 장성동 6-1	581-6648		
고 문	장인원	태백시 황지3동 자혜의원	552-2795		
원 장	우성조	태백시 문곡동 27번지 2/2	581-2714	553-7566	
부 원 장	박광옥	태백시 황지1동 태백단위농협	011-233-5368	553-3830	
이 사	이용익	태백시 화광동 1/1 장성한의원	581-6424		
	하일호	태백시 황지1동 11-2 경희한의원	552-6244	552-2525	
	전영호	태백시 장성동 198-2 한일기업		581-3314	
	황광현	태백시 황지1동 2-1 강원이동통신		552-5015	
	천명란	태백시 황지1동 태백축협		553-4000	
	황영흠	태백시 황지1동 74-17 황지주류합동	552-1222~4		
	주양식	황지동 422번지 10/4 귀뚜라미보일러		552-4425	
	방병국	태백시 혈동 50번지	552-7138	554-4500	
감 사	김해운	태백시 황지1동 11-2 문성사		552-2318	
운영위원	유호명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태백영업국		553-6746	
	김운대	태백시 황지동 172-2 태백자동차매매상사		559-5300	
	남주수	태백시 교보생명 황지영업소		552-2573	
	홍성덕	태백시 황지1동 교보생명 태백영업소		553-6171	
	전영수	태백시 황지1동 중앙로 거무내미		552-5939	
	장영창	삼척시 도계읍 전두1리 18반		541-3472	
	하진호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 황지영업소		552-2162	
	홍성일	도계읍 제일생명 도계영업소		541-2647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 70-56번지 강원일보사	552-4592	552-2881	
	김정배	태백시 황지3동 1/3 크라운베이커리		553-6611	

■ 사무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집	직장	
사무국장	김강산	태백시 황지1동 6통 2반		553-3161	
간 사	이명숙	태백시 문곡동 시영A 106-105	581-3966	553-3161	

■ 후원위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강국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A. 1331-103	(02)645-4700	재경태백총동문회장
고봉영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96-4	(031)341-1814	캘코연마(주)사장
고영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현A. 3-406	(02)275-3610	동부건설(주)상무이사
김시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1동 419-2	(02)212-7818	진일인쇄대표
김재림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시영A 20-902	(02)719-2997	황일토건(주)사장
서강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6-246	(02)821-8742	경안전자(주)사장
신동촌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3-102	(02)298-3204	현대칼라(주)부시장
이근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A. 7-1208	(02)868-4455	(주)남방 영업이사
장무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공A. 104-503	(02)417-5275	재향군인회운영과장
홍성필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삼천리빌라 4-101	(02)679-1460	당산동분식센터 대표
전춘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155-36	(02)603-0526	진우전기 사장
홍영치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465	포항제철전문교육부장
우용택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396	품질관리부검사과장
김창남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0-2	(0331)213-0188	유성전자(주)사장
송준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신A. 3-102	(02)499-6346	삼표FP미콘(주)사장
이단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11	(02)415-7551	연화유치원원장
최옥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0-306	(02)737-2708	시릿트대표
이춘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A. 319-402	(02)549-2577	초등학교 교감

■ 향토사 연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동현	태백시 황지동 9-3	552-3637	
이석필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6-206	552-1487	
김인수	태백시 황지1동 중앙로 한성통신	552-8229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A2-506	552-7576	
이상본	태백시 황지1동 11-2 한성지업사	552-2225	
조영호	태백시 장성동 403	581-2879	
정의준	태백시 철암1동 5-7	582-9114	
장화윤	태백시 황지1동 10-1	552-6651	
이명진	태백시 황지1동 상수도사업소	552-1360	
정운자	태백시 상장동 1-1	552-3980	
용현주	태백시 장성동 4-5 그린화실	581-2251	
석수덕	태백시 황지2동 10-1	553-1666	
정원범	태백시 황지1동 4-1	552-3248	
김부래	태백시 황지1동 5-6	552-3267	
김준연	태백시 황지3동 2-1	552-2048	

태백향토문화연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 강원일보사	553-4882	
조영호	태백시 상장동 244-3 태백시청 산업경제과	550-2354	
신원철	태백시 황지1동 2/2 태백철물	552-5018	
김동수	태백시 황지3동 4/2 273-95	553-3767	
전태균	태백시 상장동 244-3 태백시청 관광교통과	550-2367	
이상출	태백시 상장동 244-3	581-6133	
정연수	태백시 태백우체국사서함 4호	553-1477	
오광희	태백시 황지1동 육성빌라2층 신동아화재	553-4440	
박한홍	태백시 황지1동 39-75	553-0792	
홍정임	태백시 황지3동 1/1 터치라인	553-0915	
배해진	태백시 백산동 75-1번지 태백레미콘	553-2855	
최홍조	태백시 문곡동 산28-45 장성여고	581-5654	
황정아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3호	553-6868	
김주영	태백시 장성동 태백경찰서 정보과	581-6113	

■ 태백문화학교 동문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숙영	태백시 장성동 174번지 3/3	581-3226	회장
심관옥	태백시 화광동 9/6	581-3977	부회장
김수진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3-506	552-3128	부회장
이재남	태백시 황지3동 황지연립 A-205	552-3856	감사
진동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12/10	0398-591-7680	감사
배금순	태백시 황지1동 49-208	552-8588	총무
김금자	태백시 상장동 9/2	552-3466	홍보부장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552-6780	섭외부장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 101-403	553-4963	기획부장
백옥화	태백시 황지1동 4대림A. 502호	552-7574	운영위원장
전명옥	태백시 상장동 17/3	552-9672	운영위원
한부강	태백시 협심동 협심연립 다-302	581-7662	"
우분자	태백시 동점동 2/4	582-7869	"
손영자	태백시 상장동 3/7	552-9333	"
전영숙	태백시 동점동 1/5	581-6207	"
황순옥	태백시 금천동 16/27	581-3208	"
홍정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6-204	552-8390	"
김귀동	태백시 소도동 10번지 64호	552-4543	"
박상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 태백건축사	553-7195	"
이복남	봉화군 석포면 대현 185	0573-672-6704	"
조해순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9-406	552-1690	회원
박정희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1102	552-5506	"
박광방	태백시 장성2동 170-107	581-6410	"
이명재	태백시 황지동	552-8677	"
정종성	태백시 철암2동 3/2	582-9529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최정희	태백시 상장동 7/2	553-5612	회원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552-2522	"
엄순자	태백시 장성동 8/7	581-4480	"
정순노미	태백시 협심동 협심A. 9-102	581-8921	"
김태선	태백시 화광동 8/5	581-3698	"
김진희	태백시 성정동 7/6	552-5850	"
손정임	태백시 철암동 366-24	582-1988	"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101	552-0022	"
강연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10-102	553-3127	"
진장규	태백시 철암동 11/7	582-8806	"
김송지	태백시	552-1943	"
배일녀	태백시	581-6868	"
김정녀	태백시 계산동 계산A. 208-106	581-3169	"
윤정숙	태백시 소도동 1/6	553-6264	"
안경희	태백시 소도동 1/5	552-3577	"
김선자	태백시 소도동 9-19	552-4735	"
최옥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404	553-2731	"
송남득	태백시 철암2동 남동상가 206호	582-1724	"
이현희	태백시 철암1동 6/3	582-1189	"
최성임	태백시 소도동 10-115	552-5013	"
박칠성	태백시 철암동 349	582-9276	"
한봉길	태백시 황지2동 10/6	552-3414	"
이금순	태백시 소도동 1-3 1/1	552-9788	"
김순자	태백시 화전2동 4/2	552-5253	"
심금량	태백시 백산동 79 4/1	553-2905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춘자	태백시 황지1동 17/5	552-6826	회원
엄병화	태백시 소도동 1/5	552-1459	"
문정자	태백시 황지동 7/3	552-3662	"
엄귀자	태백시 소도동 4/5	553-7358	"
탁옥희	태백시 동점동 양지연립 나-202	582-8043	"
신현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9-504	552-8696	"
전유관	태백시 장성동	581-2800	"
홍복연	태백시 황지1동 4/4	552-7673	"
이창식	태백시 동점동 1/1	581-3887	"
구옥예	태백시 철암동 육성빌라 501호	582-8448	"
권분향	태백시 장성동	581-6024	"
김순연	태백시 황지동 33-76	552-5905	"
이기을	태백시 황지2동 3/4	552-3985	"
유영순	태백시 상장동 8/1	552-5012	"
김화자	태백시 장성2동	581-6213	"
안학우	태백시 화전동 152-1 6/2	553-8087	"
김명숙	태백시 황지1동 15/1	552-6459	"
정종숙	태백시 황지동	552-8259	"
권옥주	태백시 철암동	582-7008	"

■ 명심회 회원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552-2522	고문
홍순남	태백시 황지1동 4/4	552-2542	고문
김금자	태백시 상장동 9/2	552-3466	회장
이재남	태백시 황지3동 황지연립 A동 205호	552-3856	부회장
김수진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3-506	552-3128	부회장
최명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305	553-2475	총무
전영숙	태백시 동점동 1/5	581-6207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	553-4963	
손재학	태백시 황지2동 5통 1반	552-4889	
박선민	도계읍 전두리 태진A 나동 505호	541-3330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12/2	552-2521	
이복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동 1003호	553-3711	
이규복	태백시 황지1동 10/1	552-2772	
김순남	태백시 동점동 동점A 9동 201호	582-1354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동 101호	552-0022	
백옥화	태백시 황지1동 4대림A 502호	552-7574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552-6780	
최미숙	태백시 문곡소도동 함태A 1-529	552-8816	
권길자	태백시 상장동 6/2	552-5509	
이영실	도계읍 홍전3리 8반 주공A 1동 203호	541-3769	
최종애	도계읍 홍전2리 9반	541-6946	
윤수금	태백시 상장동 7/8	552-2694	
임명자	도계읍 전두1리 1반	541-8055	
신정자	태백시 소도동 7/1	552-7167	
정광숙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2동 401호	552-5717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점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동 205호	552-4063	
김미영	태백시 황지1동 궁전A B-412	553-6191	
김옥자	태백시 황지1동 3대림A 302-302		
배영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1-1402	553-6175	
송형규	태백시 상장동 114-16	552-3980	
이옥주	태백시 상장동 2/3	552-4556	
채명자	태백시 연화동 한보A 314동 103호	554-3765	
탁옥희	태백시 동점동 양지연립 나동 202호	582-8043	
이병란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동 1203호	552-5195	
안순녀	삼척시 도계읍 도계 2리 10반	541-5548	
이복남	봉화군 석포면 대현 185	672-6704	
김영옥	도계읍 풍전2리 새마을A 2-302	541-4718	
김은숙	도계읍 풍전2리 새마을A 6-302	541-3072	
주순란	삼척시 도계읍 풍전2리 8반 새마을A 3-101	541-5732	
정옥순	태백시 연화동 한보2단지 11동 104호	554-3642	
손수남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1206	553-1924	
양금자	태백시 상장동 6/6	552-4227	
이정숙	태백시 황지1동 4대림 501호	552-1256	
이정미	태백시 통동 한보 5단지 502-108	554-3134	
권정애	태백시 장성동 협심A 5-103	581-6423	
이귀순	태백시 상장동 1/2 127-3	552-4580	
김미숙	태백시 황지1동 18/4	553-0645	
배금순	태백시 황지1동 49-208	552-8588	
남명숙	태백시 장성동 문화연립	581-2752	
최옥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404	553-273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정숙	태백시 연화동 경동A 310-302	553-5278	
박도향	태백시 철암1동 철도A 3-201	582-4533	
송남득	태백시 철암2동 남동상사 206호	582-1724	
심금랑	태백시 백산동 79 4/1	553-2905	
박순자	태백시 소도동 9/3	553-2751	
정인숙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반	541-5166	
심순희	태백시 문곡동 4/4	581-8036	
이영란	태백시 상장동 연화연립 나동 102호	553-3121	
이금순	태백시 황지1동 한양연립 A-103	553-7341	
김문향	태백시 장성동 계산A 208-501	581-7569	
임호규	태백시 장성1동 1/3	581-6634	
김정늬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A-202	581-3125	
송옥남	태백시 장성3동 계산A 204-203	581-6695	
김은희	태백시 철암1동 284-1	582-8753	
이영재	태백시 황지1동 윤림연립 302호	553-6352	
정은희	태백시 상장동 1/2	552-8162	
노향미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1206	552-8929	
손수남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1-1206	553-1924	

■ 칠보사랑회 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시영A 101-403	553-4963	지도강사
진진순	태백시 황지2동 368-12 시민연립 가-201	553-7462	회장
배금순	태백시 황지1동 49-208	552-8588	부회장
박광방	태백시 장성2동 170-107	581-6410	총무
박복남	태백시 황지1동 7/2	582-4098	
오경란	태백시 황지2동 8/4	553-2309	
이영란	태백시 상장동 연화연립 나-102	553-3121	
조경자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701	553-7462	
하청화	태백시 상장동 황지초등학교관사 나-105	552-7925	
박미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1203	552-0887	
정광숙	태백시 황지1동 대운A 2-401	553-5717	
한문자	태백시 상장동 공무원A 가-402	552-9764	
박희숙	태백시 상장동 썬타운옆 롯데햄	553-3465	
장금자	태백시 상장동 주공A 204-103	553-0469	
박경심	태백시 상장동 우남연립 202호	552-4434	
박영옥	태백시 황지1동 16/6	553-5926	
김복화	태백시 황지1동 9/6	552-8812	
신갑순	태백시 구문소동 태고관사 B동 102	581-4573	
정혜란	태백시 구문소동 근영연립 다-105	581-2014	
박선희	태백시 황지동 18/8	553-6461	
권순희	태백시 구문소동 3/2	581-5831	
오세은	태백시 황지1동 1/4 44-89번지	552-5958	
황삼녀	태백시 사조동 1/4 24번지	552-7070	
이미자	태백시 황지1동 49-89 17/5	552-3057	
김정늬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양빌라 A-202	581-3125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임호규	태백시 구문소동 1/3	581-6634	
송옥남	태백시 장성3동 계산A 204203	581-6695	
김강숙	태백시 황지1동 74-5 6/5	553-3980	
김은희	태백시 철암1동 284-1 2/2	582-8753	
권정애	태백시 장성2동 협심A 5-103호	581-6423	

■ 태지회 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진진순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4-501	553-7462	회장
김형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502	553-5565	총무
이석재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3호	553-2422	감사
이춘실	태백시 장성동 협심A 7-107	581-7320	회계
이미경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2-103	552-3710	
김정자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4-501	552-9941	
이경남	태백시 연화동 동방연립 가동 303호	554-3927	
정혜란	태백시 장성동 48번지 근영연립 다동 105호	581-2014	
김해순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7-207	553-3263	
손미숙	태백시 황지1동 6통 2반	553-0363	
박순남	태백시 상장동 체신A 301호	553-3134	
이향숙	태백시 상장동 17/5 광원A 2동 301호	553-5819	
한미순	태백시 황지1동 7통 4반	552-4555	
정순란	태백시 장성2동 1통 4반 170-137	581-3713	
홍미예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1동 903호	552-8979	
장경조	태백시 황지동 우남연립 102호	553-6015	
김우옥	정선군 고한읍 중앙A 5-403	591-6134	
박춘자	태백시 소도동 삼신A 405호	552-8982	
강원단	태백시 소도동 삼신A 303호	552-5721	
이숙임	태백시 문곡동 시영A 106-209	581-5925	
이혜정	태백시 장성동 89번지 6/3	581-6912	
김성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7-102	552-4714	
최은정	태백시 상장동 한전사택 301호	552-2256	
강양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3-201	553-6949	
양미숙	태백시 상장동 1주공A 7-207	552-8407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최명규	태백시 상장동 현대A 102-305	553-2475	
김영아	태백시 상장동 궁전A B동 115호	553-7034	
박미숙	태백시 장성동 협심A 1-301	581-7553	
남인순	태백시 장성1동 근영연립 가-103	581-4241	
서환선	태백시 황지1동 궁전A B-216	552-7696	
김숙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11-310	553-2013	
백막동	태백시 황지2동 산174/2	553-2659	
이인자	태백시 황지2동 5/1	552-4889	

통나무리듬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김명숙	태백시 상장동 2주공A 201-401	552-3619	
김혜경	태백시 상장동 함태A 나-307	553-1612	
김진희	태백시 상장동 7/6	552-5850	
김형지	태백시 상장동 1주공 9-505	552-6879	
김순복	태백시 상장동 2주공 201-308	552-9121	
김귀옥	태백시 문곡동 3/3	581-2146	
이민옥	태백시 상장동 202-406	553-0848	
김종남	태백시 황지1동 5/2	553-0976	
신온순	태백시 상장동 1주공 6-401	552-9981	
신순이	태백시 장성동 문화A 101-101	581-0146	
안귀옥	태백시 계산동 간부A 2-301	581-7140	
장옥희	태백시 협심동 협심A 11-405	581-8790	

太白文化 (12 집)

발행일: 단군기원 4332년 2월 28일

발행인: 우 성 조

편집인: 김 강 산

발행처: 태 백 문 화 원

인쇄처: 대 성 문 화 출 판 사

전화: 651-2121 · 4354

등록: 1993년 8월 20일 제3호

■ 본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보조로 발간함.

